

2009年度 2月
碩士學位論文

濟州市 歸德마을의 民家變容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金 昌 瑀

濟州市 歸德마을의 民家變容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a Folk Houses
in kyideok Village, Jeju

2009年 2月 日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金 昌 瑀

濟州市 歸德마을의 民家變容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剛 澈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金 昌 瑀

金昌瑀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金 秀 璘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林 晚 澤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朴 鋼 澈 

2008년 11월 일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목 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1.3 제주도 민가의 용어 정리	5

2. 제주지역 민가변용의 이론적 고찰

2.1 민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 동향	6
2.2 제주도 민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 분석	12

3. 제주도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징

3.1 제주도 마을과 민가의 형성 배경	21
3.2 제주 민가의 건축적 특징	26

4. 제주시 귀덕마을 민가의 변용

4.1 조사개요 및 대상가옥의 건축적 특성	39
4.2 공간구성요소의 이용현황	41
4.3 행위에 따른 공간의 변용	59
4.4 구성요소별 변용	64
4.5 평면형태의 변용	76
4.6 가옥 배치의 변화	81
4.7 안거리 공간구조의 변화	94

5. 결론	101
-------------	-----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a Folk Houses in kyideok Village, Jeju

Kim, Chang Woo

Advisor : Prof, Park, Gang Chul,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uses, changes, transformation of plane and changes of arrangement of house components with traditional private houses located at Kyideok village, Hanrim-eup, Jejudo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uses of rooms at private houses, the mistress used small room for their daily residence to serve meals and guests as the major residential factor and the master used large room for their residence to perform ancestral rites or to be bedroom for children or guests as the place for main family events. Sangbang (상방) was mainly used for houseworks, resting and entertaining guests, and Chatbang and Gopang were used for meals and storage, but these rooms were often changed for other uses.

Second, sleeping was done in small room, kitchen was used to prepare meals and in summer floor was used as place for meals and in winter small room was used for meals. Small room was also used for entertaining close friends or relatives and large room was for important guests. Small room was used for taking personal rest, large room was used for children's study, and Gopang, Mulpang and Jeongji were used for storage.

Thir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pace by spatial components, Jeongji was mostly changed into western style from conventional one and Gopang was often placed by dividing the space. Small room was mainly used for enlarging space by integrating other adjacent spaces and in particular, integration of Nanggan on the front was mainly found. Large room also integrated adjacent spaces Nanggan and Gulmuk to increase its area.

Gopang and Chatbang were integrated into other space or were not used as their original uses, but they were changed into room or kitchen. As described above, residential spaces were changed into other uses and frequency of changes by room showed small room, large room (22)>Jeongji, Nanggan(21)>Gopang(11)>Chatbang(6)>Sangbang(4) in order, and changes were found centering around small room, large room and kitchen. Major contents included integration and extension of room and security of more rooms and areas through changes of uses, and heating system and western-styled kitchen were develop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stallation technology and changes for improving functionality of space use and living convenience were made.

Fourth, changes of spatial components such as integration, extension and division resulted in those of plane as well as those of unit spaces. To sum up the types of plane changes caused by changes of spatial components, it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djustment, additional and mixed types. In case of adjustment plane, change of plane was caused by removal or creation of internal wall and it was found at 10 houses. Additional type was shown as change of “—” letter type plane into “ㄱ” letter or “└” letter types by attaching room or accessory space to side or back of existing plane and it was found at 1 house. In case of mixed type, internal adjustment and additional types were found together and it was found most frequently at 11 houses.

Fifth, arrangement of house was evenly found as ㄷ-letter type (9), twisted ㄱ-letter type (6), and twisted ㄷ-letter type (6), and main access was made from left and right sides of inner room. Changes of arrangement types showed that attached rooms were divided into addition and removal of attached room, extension of inner room area, new construction of attached room and maintenance of existing structure depending on the increase or decrease of attached rooms to existing arrangement. Location where attached room increases was shown as front (7), left front (7), left (2) and right front (2) based on inner room.

Sixth, changes of spatial components caused those of spatial structure as well as plane shapes. Spatial structures were changed into reduced type of circulation, negligence type which didn't use increased spatial factor and increased type of various circulations with increase of convenience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민가(民家)라는 말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헌들에서 무수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어 오랜 세월동안 한국인들이 사용하여 온 말임을 알 수 있다. 민가는 백성의 집을 뜻하는 것으로 궁궐, 사찰, 향교 등과는 다른 사적인 건축이다. 이러한 민가는 그 시대의 문화를 간직하므로 주거문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민가는 특정한 건축가의 작품이 아니라 지역마다 지역과 조화되는 풍토건축이다. 어느 마을에서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집짓는 숙련공은 그 집 주인과 더불어 이미 집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대하여 서로 잘 압으로 오직 문제되는 것은 집주인이 새롭게 요구하는 가족의 요구사항, 규모 일 등일 뿐이다. 이러한 토속적인 건축의 결과물이 민가이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변동은 거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微視的)인 측면과 함께 농어촌마을에 다양한 변화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197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산업화는 서구 지향적 가치관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문화차용현상(文化借用現象)을 가져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귀덕마을 민가들은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서민생활의 전모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으나 민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과거의 생활공간에서 현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순적인 여건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 등 거주자의 상황성 변화로 인하여 각 민가에 변용(變容)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제주에 관한 연구들은 민속마을과 제주 전통가옥을 활용한 관광개발방안 연구나 주거 또는 민가의 양식과 형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해안에 위치한 귀덕마을의 민가들을 대상으로 민가건축의 지역색을 파악하고 근대화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분석한 후 그 변용의 요인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연구로 연구방법은 이론고찰과 현장조사,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론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함과 동시에 연구대상과 그 방법을 모색하였다. 현장조사는 상가 건축물에 대해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나누어 행하였다.

표 1. 조사 진행과정 및 내용

조사	목적	내용	대상	조사방법	기간
문헌조사	·연구대상 및 방법의 모색 ·이론정립	·관련자료 정리 ·연구방법 모색 및 대상 구체화	·기존논문 ·단행본	·선행 연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008.02~05
현 장 조 사	예비조사	·조사대상의 구체화 및 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지답사, 인터뷰	·답사 및 관찰, 기록, 인터뷰	2007.12
	본조사	·각 건축물의 특징 파악	·배치, 평면, 입면, 단면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실측 및 면접조사	2008.01~2
	추가조사		·누락 부분 수정, 보완		수시

예비조사는 연구대상 건축물의 현지답사와 거주자 및 관리자의 인터뷰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연구방법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가옥의 실측 및 면접조사를 주로 하였고,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통해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추가조사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수정 보완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수치자료의 경우 EXCEL 프로그램에, 도면자료는 CAD와 SKETCH-UP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맞게 전산화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대상 민가 안채의 건축적 특성과 거주자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안거리 주공간들을 단위공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용여부, 개수 등의

변화를 살펴 평면적 변용을 기술하였다. 셋째, 안거리로 대표되는 주공간구조의 변화는 변용된 평면의 동선체계를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당시와 현재의 공간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거주자의 개선행위가 안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제주도 귀덕마을 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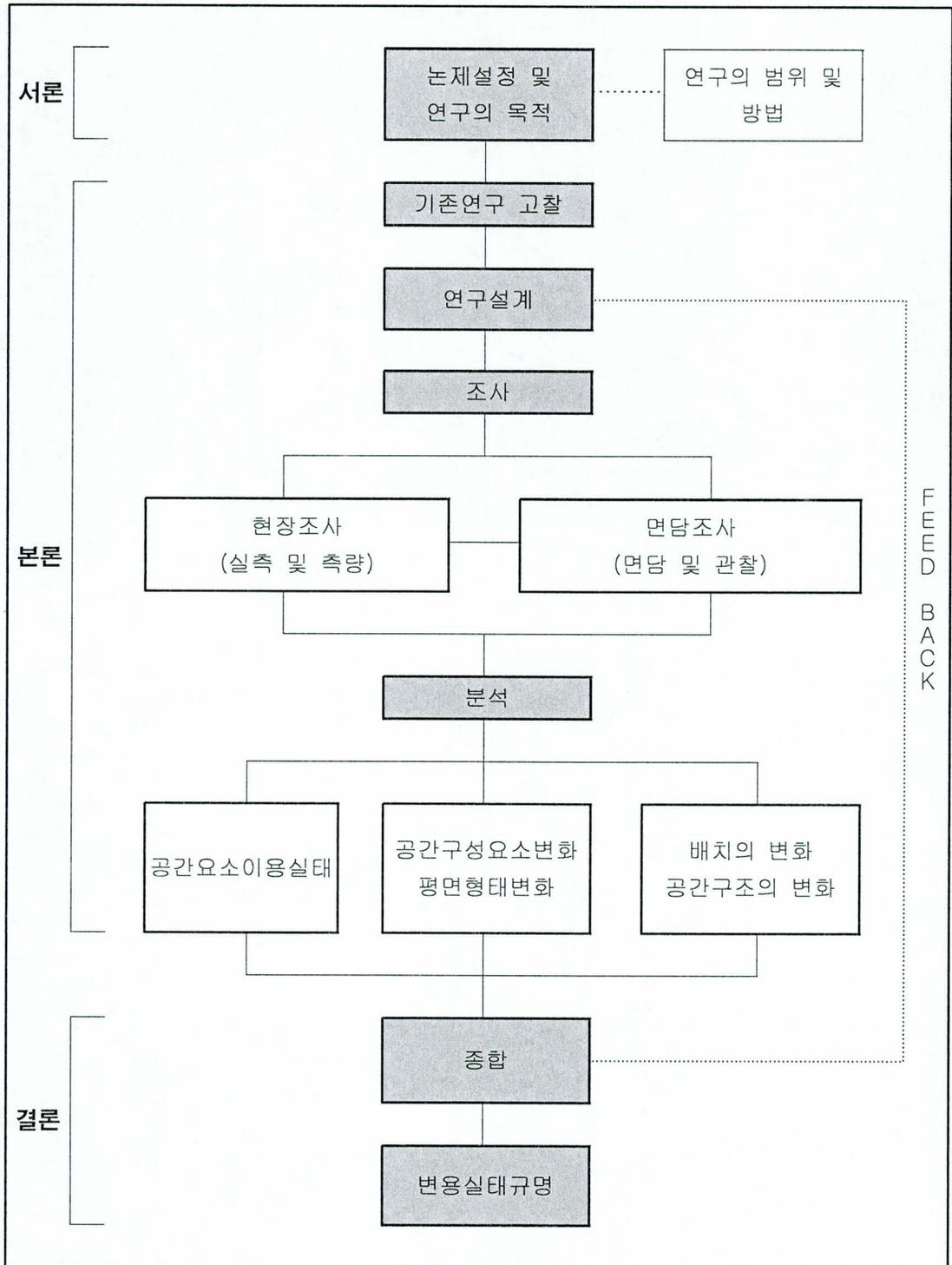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

1.3 제주도 민가의 용어 정리

제주도 민가에서는 다른 지역의 민가에서 쓰이는 용어와는 달리 낯선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고 팡 : 곡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두는 방
- 구 들 :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구들을 놓고 불을 피우도록 만든 방
- 굴 목 : 방의 난방을 위해 불을 지피는 곳
- 난 간 : 뒷마루
- 도들(고리) : 상방 공간의 상머루 아래 대들포와 대들포 사이에 끼움대를 끼워 제사 때 쓰는 병풍, 제상, 초석 등을 보관하는 곳
- 모 거 리 : 안거리, 밖거리에 대하여 모로 배치된 건물
- 물 팡 : 물허벅을 올려놓는 시설
- 밖 거 리 : 육지의 사랑채와는 개념이 다른 바깥채
- 살 레 : 찬장
- 상 방 : 대청, 마루
- 생 깃 문 : 상방 앞벽 대문 곁에 설치된 창
- 쇠 막 : 마굿간
- 안 · 밖 거 리 :父의 세대가 안거리에, 子의 세대가 밖거리에 별도의 취사 및 경제를 영위하며 기거하는 제주 특유의 주거형태
- 안 거 리 : 안채 또는 본채
- 안 뒤 : 안거리의 뒤뜰
- 마 당 :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로 둘러싸인 마당
- 울 레 : 도로에서 주택으로 출입하는 진입로
- 우 영 : 울타리 안에 있는 밭, 텃밭
- 이 문 거 리 : 좌우에 주거시설이나 축사가 있는 여러 칸으로 된 대문간
- 작 은 구 들 : 작은방
- 장 향 굽 : 장독대
- 정 지 : 부엌
- 정 지 거 리 : 정지가 별도로 안거리에서 분리되어 직각으로 지어진 건물
- 챗 방 : 찻방, 식사를 주로 하는 방
- 큰 구 들 : 안방
- 통 시 : 돼지우리 곁 변소

2. 제주지역 민가변용의 이론적 고찰

2.1 민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 동향

표 2 시기별 연구의 동향

구분	1990년대		2000년 이후	비고
	1990~1994년	1995~1999년		
분석대상연구(총 60편)	민가	양택훈(92), 탁수성(93), 탁수성 외(93), 장성조 회(94)	오상록(95), 박강철 외(95), 임상규(97), 조성기(97), 정기환(99)	전보림 외(2000), 김영필 외(2001), 이주옥 외(2003) 이상선 외(2007)
	민속마을	외암마을: 김남미(92), 김남춘 양동마을: 강동진(94) 성음마을: 박현숙		성음마을: 김영철(2003), 여경옥(2002), 낙안, 성음: 최영화(2001) 외암마을: 이왕기, (2001), 외암, 하회, 양동, 낙안: 신상선(2002), 정의, 낙안: 최재권, 낙안: 성음: 임창복(2004), 성음: 고계성(2004), 하회, 성음, 양동, 왕곡, 외암, 낙안: 박경립(2004), 이호열(2005), 낙안: 이상선(2006)
	가옥		김상화(1995), 조성희(1996),	김명선(2002), 김왕직 외(2002), 윤도선 외(2004), 원세용 외(2004), 정아선(2004), 이종우(2003)
연구주제의 특징	주거의 변용을 주민들의 생활행태와 관계 지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주거의 변화과정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민속마을의 취락경관의 성립과 주거의 외부공간의 구조 분석의 연구와 민속마을의 보존방안의 제시와 보존체계 및 방법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됨	주거의 변용을 문화 접변과정에서 이주기구가 보여주는 주거의 변용에 관한 연구와 주민들의 개인적 취향과 관계 지은 연구 그리고 개인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짐	주공간의 변용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와 주공간을 경제적 이윤을 위한 증축의 측면에서 구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민속마을의 공간구조와 평면의 형태, 외관 형태의 변형현상을 구명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외부의 공간과 경관의 훼손상태 파악과 건축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됨	연구초기에는 평면 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나 90년대 후반 평면유형을 생활행태와 관계지어 살피고 2000년에는 경제적이윤과 관련지어 살핌
연구방법	현장 설문조사, 실측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변용의 과정과 유형을 기술코자 한 것과 사회문화의 변화와 주거공간의 변용관계를 밝히려는 연구, 이러한 변용실태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2000년대는 공간분석법(Space Syntax Model) 등의 분석방법이 도입됨			사회과학적 접근보다는 관찰, 분류방법을 주로 사용함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구수의 증가, 가족관계의 변화와 주의식의 변화, 주택의 위치적 여건, 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과밀화 • 민가 및 마을 공간의 변화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기술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거주자의 개인 및 가족행태 환경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함 • 안방중심 생활이 지속되지만 가족 단란 생활공간의 확보요구에 따라 거실이 확보되거나 확장됨 • 부엌의 입식화 경향이 두드러짐, 개실은 감소하고 부엌과 안방 등의 면적이 증가함 • 주공간구성요소의 변용과 평면의 형태변용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변용의 원인 규명 • 설비의 발달과 마감재료의 발달 그리고 전통재료의 수급문제로 인한 원형보존의 문제 			90년대에는 사회변화적 측면과 변용과의 관계가 부각 2000년대는 가족성원의 증감, 시설의 발달 그리고 생계형 변용이 나타남
종합	연구의 초기에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의 변용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90년대의 중반에 들어 주거의 변용과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민속마을의 보존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민가의 변용현상과 원인을 구명한 연구와 민속마을의 주공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외부 공간과 민속마을 경관 보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됨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990년대 초반 개별건축물에 대한 관심에서 1990년대 후반 마을 단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민가의 변용과 민속마을의 공간구조 그리고 마을 내 민가의 변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대한건축학회논문집을 검색한 결과 총 60건을 검색하여 이를 연대별로 동향을 살폈다. 1980년대 초에는 주로 전통가옥의 입지, 환경, 공간구성, 평면유형과 같은 일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간구조의 특징에 관하여 지역적, 신앙적, 생태적으로 접근한 연구와 전통가옥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내부 공간, 마당, 대문과 같은 단위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배연구조, 처마곡선, 가구구성, 공간개념의 현대적 적용, 일본전통주거에 관한 분야까지 세부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속마을의 보존과 활용방안 그리고 마을 내 민가의 변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 민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문화재로서의 민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들의 보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단위 공간으로서의 민가 변용에서는 민속마을이나 전통마을과 같이 특정한 공간 내의 민가 변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민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 35편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내용, 연구방법 그리고 결론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상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의 연구를 연대별로 구분해보면 연구대상의 경우 연구 초기인 1990년대 문화재로 지정된 특정민가와 전통주거의 변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양동마을과 외암마을 그리고 성읍마을의 공간구조와 민가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양동, 하회, 외암, 왕곡, 낙안읍성마을 등 전국의 민속마을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택훈¹⁾은 제주민가를 대상으로 1960년 이후 증개축을 통한 공간적 변화 및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주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 요구 및 주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공간의 증개축이 이루어졌음

1)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 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1992,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을 밝히고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를 유발한 외부적 요인으로서 근대화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 자재의 보급, 설비의 개량, 가구 등의 보급과 도시적 생활양식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 수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주의식의 변화와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작용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공간에 증개축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고 했다.

탁수성²⁾은 경남 서부지역의 전통 주거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주자의 주거 공간 이용행태 및 원형보존과 변형실태를 파악하여, 실생활을 담아 적극적으로 보수 유지케 하는 보전의 개념으로서 역사 문화 환경의 유지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에서 문화재 지정가옥 거주자의 의식구조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공간에 대한 이용행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리적인 변형실태는 크게 개인 생활공간인 안방과 설비공간인 부엌, 욕실, 보일러실에서 나타났고, 주거공간의 평면계획은 개인생활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인 안채 안방 부분의 변화를 가급적 수용하면서, 부엌과 안방의 연결, 수납공간으로서의 다용도실과 가사실의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성조³⁾는 자연적 변형에 따른 관리 소홀을 통하여 가옥의 관리 및 생활상태의 조사와 건물의 변화, 변형, 훼손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인위적인 변형유형 및 변화발생 공간은 부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경남서부지역⁴⁾의 문화재보다는 잘 보존되고 있으나 부엌에 대한 융통성있는 개조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강철⁵⁾은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일자형 평면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생활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특성과 안채 평면의 변화를 조사하여 부엌의 입식화로 전체적인 평면 형식이 변화하고, 사적공간의 규모는 커졌으나 공적 공간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히고 거주자의 달라진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에 의한 공간의 변화가 전통주거의 정체성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보전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2) 탁수성, 문화재 지정 전통가옥 보존을 위한 주거 공간 이용행태 및 변형실태 연구, 1993, 경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3) 장성조김일진,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택의 주거행태 및 변용실태에 관한 연구, 1994.10.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제14집 제2호.

4) 경남서부지역은 탁수성의 연구(1993)에서 대상이 되었던 전통주거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박강철, 나상훈, 오상록, 전통주거 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문화재를 중심으로, 1995,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

오상록⁶⁾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주거를 대상으로 주생활에 따른 주공간의 변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특성과 안채 평면의 변화를 조사하여 남부지방 전통주거의 전형적인 평면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주공간의 변화가 전통주거의 정체성 보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임상규⁷⁾는 삼척지방을 중심으로 영동지방 동서간과 북서간의 민가를 대상으로 형태를 조사·실측하고 분석하여 영동지방 남·북간으로 함경도지방에는 정주칸이 있는 구들구성의 田자집, 강릉지방에는 마구가 돌출한 구들구성의 田자집이 나타나며, 삼척북부는 일자의 구들구성의 田자집, 삼척중부는 일자의 마루 있는 田자집, 삼척남부는 변형의 마루가 있는 田자집이 분포하고, 월성지역은 마루 있는 홑집이 나타남을 밝히고 영동지방 남·북간과 삼척을 기점으로 한 서쪽의 민가 전이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조성기⁸⁾는 서해 강화도 주변 민가와 영남 북부지역의 여칸형 민가가 중부형 민가에서 변용된 것이라는 가설 아래 이들 민가가 어떤 요인에 따라 폐쇄적인 형태로 변용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강화도 주변 민가는 고려·조선 시대를 거쳐 오면서 외적의 병화에 시달린 강화도민의 방어본능에 의해 폐쇄적인 형태로 변용되었고 영남 북부지역의 여칸형 민가는 태백산간지역의 공격적인 자연풍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폐쇄적이고 집약적인 생활공간으로 변용되었다고 하였다.

정기환⁹⁾은 강원도의 시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을 대상으로 변용 요인과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법령들을 파악하여 법령의 모순과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전통가옥 변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법령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보림¹⁰⁾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910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도시형 한옥을 대상으로 현장 답사, 도면,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옥 본체가 주변의 주거지나 가로

6) 오상록, 전통가옥의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석론, 1995.

7) 임상규, 영동지방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1997.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통권 101호.

8)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의 폐쇄적 변용에 관한 연구, 1997.1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1호 통권 109호.

9) 정기환, 전통가옥의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7.

10) 전보림, 전봉희, 한옥의 도시 주거적 변용 연구 -서울 도시형한옥의 대지경제선과 건축외벽의 사이공간을 중심으로-, 2000.10. 대한건축학회발표논문집, 제20권 제2호.

와 만나는 형식을 분류하여 주거에 필요한 절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세입자의 공간이 확장되는 경우보다 소유주의 공간이 확장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을 밝히고 도시주거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와 사적 생활권을 보호받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하며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지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영필¹¹⁾은 전남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 중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22개 가옥의 일자형 안채를 대상으로 거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 공간 이용행태 및 원형보존과 변형실태를 파악한 결과 주생활 대부분이 안방, 부엌, 대청에서 이루어지며 수장 공간은 방치되고 욕실, 보일러실, 입식부엌이 추가되었고 부엌의 입식 부엌화와 대청에 입식부엌의 설치에 따라 동선과 공간구성이 과거와는 달라져 주생활의 중심이 변함을 밝혔다. 이는 법제적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지만 거주자의 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이주옥¹²⁾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중요민속자료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거주한 한옥을 대상으로 공간구문론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요공간의 상대적 공간심도(RRA)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내부와 외부공간이 분리되어가며 각 공간이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안방은 사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었으며, 부엌은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는 최근 20년간 생활패턴이 급격히 변화되고 이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변경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의 구성방식과 공간의 의미들이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선¹³⁾은 낙안읍성민속마을 내 민가를 대상으로 1983년 조사시점과 현재의 평면을 비교하여 거주자의 상황성, 주 공간구성요소의 변용, 평면형태의 변용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변용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변용의 원인을 거주자의 상황성 변화

11) 김영필, 김후진, 박강철, 전남 지역 문화재 지정 전통 가옥의 평면 변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10호, 통권 156호, 2001.10.

12) 이주옥, 한필원,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한옥 생활공간의 변화에 대한 해석 -충청지역 중요민속자료 지정 한옥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8호, 통권 178호, 2003.8.

13) 이상선, 낙안읍성 민가의 주공간 변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권 10호, 2006년 10월.

와 낙안읍성의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읍성마을 주공간의 변용현상과 변용원인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자별 변용현상 및 변용내용

구분	연구자	변용현상	변용원인
민속마을내	이왕기	내부통합·확장, 내부분할, 용도변경 외부부속시설설치, 미닫이문 설치	생활양식변화, 실의부족, 수장공간부족, 난방방식의 변화, 잘못된 복원과 보수, 주민의식 결여
	여경옥	부엌의 입식화, 욕실 세탁실의 설치, 마루전면의 현대식창호설치,	난방방식과 취사방법의 변화, 생활편리의 욕구, 난방의 효율성추구,
	이호열	부엌의 입식화, 안채의 공간확장, 마루전면현대식창호설치,	주생활 양식변화, 신설비의 도입, 무분별한 보수공사
민가	연재진	위생공간확충, 외부공간의 내부화, 부엌의 입식 개수, 공간의 분할	수납공간확보, 위생공간의 필요, 난방방식의 변화 등 생활편리의 욕구
	이상선	담장과 창호 재료의 현대화, 지붕재료의 변화, 증축 시 신재료 사용, 상가로 용도변경을 통한 입면 변화	내부공간의 변화에 따른 외형변화, 노후 재료 교체 시 재료의 현대화, 용도변경을 통한 입면 변화
	이상선	주공간 요소의 확장 통합 용도변경을 통해 평면의 형태가 통합, 부가 확장형으로 변용되었고 그 평면구조 또한 변화	가족구성의 변동과 생활방식의 변화 경제적인 여건, 마을의 생산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변화

변용현상은 주로 평면을 중심으로 변용 현상을 고찰하여 변용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외부 공간 또는 경관에 관한 연구는 적은편이다. 연구의 방법은 지정당시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의 평면형태, 공간구조, 경관 그리고 거주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민가의 변용 현상의 내용은 부엌의 입식화, 안방공간의 확장, 인접한 공간의 통합에 의한 면적 확장, 안채 내 위생시설의 확충, 설비공간의 증축, 공간분할을 통한 수장공간의 확보, 각 실의 용도변경, 마루 전면의 현대식 창호 설치 등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변용현상을 유형화 하면 통합 및 확장, 용도변경, 분할로 정리할 수 있다. 변용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수장공간의 부족, 취사 및 난방방식의 변화, 실의 부족, 난방의 효율성 추구, 새로운 설비의 도입, 수납공간의 부족, 위생공간의 필요 욕구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주생활 양식의 변화와 생활편리성의 추구가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이와 함께 거주자의 보존의식 결여와 주무관청의 관리 소홀 또한 변형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2.2 제주도 민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 분석

표 4 제주 전통민가의 평면유형

제목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김정기 김홍식	1973	문화재로 지정된 민가	제주민가의 평면유형을 분류하고 공간의 기능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함
한국의 민가연구, 보전제	장보웅	1974	원형보존상태가 좋은 민가 50채	실측기록, 면답을 통하여 민가의 재요소를 분석하고 지붕의 종류, 기배치유형, 건물배치유형을 분류하며 민가형의 형성과 양식의 전수경로를 추정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	김홍식	1977	제주도 민가 30채	제주민가 3칸형에 대하여 작은방없는 3칸집, 작은방있는 3칸집으로 분류하고 작은방있는 3칸집은 정치내형, 중마루형, 한칸형으로 세분하여 분류함
성읍리 공간구성의 연구, 제주도연구	김홍식	1994	성읍리 민가 9채	성읍리마을과 마을 내 각 가옥의 공간구성형태를 살핌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론	양택훈	1992	제주도내 8개 마을의 민가	제주민가에 나타난 증개축의 현황을 위치, 평면유형, 실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제주민가 공간의 재편성을 주요구의 유형별 패턴과 공간적 대응, 공간의 재편과정, 시대별 공간변화의 특징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신석하	1996	제주민가 4채	제주지역 민가의 평면적 구조적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론	김영식	1996	제주지역 주택 13채	전통민가와 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주거평면을 중심으로 거주공간 상호간의 관계와 구성의 상관성에 대하여 분석함
제주의 민속 IV, 의생활·식생활 주생활, 제주도	김홍식 김석운 신석하	1997	1910년 이전의 제주 민가	제주지역 민가의 평면을 유형화하고 평면구성요소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함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론	강장호	1999	제주지역의 전통민가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유형과 평면구성의 특성과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공간의 확대와 축소는 관점에서 고찰함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박은영	1999	제주 화북과 조천의 민가 31채	대상지역의 특징을 고찰하고 연구대상가옥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배치, 평면, 구조를 비교 분석한 후 화북 조천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의 양상과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힘
제주도 민가 유형 해석을 통한 문화지역 설정 : 부엌구조와 생활과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희봉 송병언	1999	제주도내 23개 마을 70여채 민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한 평면유형 외에도 정지거리별동형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평면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함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론	강연진	2001	제주지역과 북부지역 전통 민가	겹집구조인 북부지역민가와 제주지역민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제주도민이 갖는 건축적 지역성을 고찰하여 제주도 건축에 적용가능한 설계요소들을 추출하여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함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박론	최재권	2002	제주지역 8개마을 72채 민가	제주민가의 생활문화적 특성을 건축에 적용하여 지속성과 변화성을 요약 정리함

제주도 민가에 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표 4>와 같다. 이들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정기·김홍식의 제주도 문화재 및 유

적 종합조사보고서(1973)에서는 제주민가의 평면유형을 분류하고 공간의 기능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장보웅의 한국의 민가연구(1974)는 원형 보존상태가 좋은 제주 민가 50채를 대상으로 실측기록, 면담을 통하여 민가의 제요소를 분석하고 지붕의 종류, 칸 배치 유형, 건물 배치유형을 분류하며 민가형의 형성과 양식의 전수경로를 추정하였다.

김홍식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1977)”는 제주 민가 30채를 대상으로 실측기록 분석하고, 제주민가 평면의 구성에서 3칸형에 대하여 작은방 없는 3칸집, 작은방있는 3칸집을 세분하여 부엌내형, 중마루형, 한칸형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¹⁴⁾

김홍식의 성읍리 공간구성의 연구(1984)에서는 성읍리마을과 마을 내 각 가옥의 공간구성형태를 살폈고, 양택훈(1992)의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8개 마을의 민가를 선별하여 제주민가에 나타난 증개축의 현황을 위치, 평면유형, 실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제주민가 공간의 재편성을 주요구의 유형별 패턴과 공간적 대응, 공간의 재편과정, 시대별 공간변화의 특징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변화를 분석하였다.

신석하의 제주의 전통문화(1996)에서는 제주지역 민가의 평면과 구조적 특징을 김홍식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김영식(1996)의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주택 13채를 대상으로 전통민가와 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주거평면을 중심으로 거주공간 상호간의 관계와 구성의 상관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김홍식·김석윤·신석하의 제주의 민속 IV권(1997)에서는 1910년 이전에 건립된 제주지역 민가들을 대상으로 평면을 유형화하고 평면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김장호의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1999)도 제주지역 전통민가를 대상으로 배치유형과 평면구성의 특성과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공간의 확대와 축소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박은영의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1999)에서는 제주민가 31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을 고찰하고 연구 대상가옥을 초가와 와가로 나누어 배치,

14) 김홍식의 연구(1977)이후에 연구자들은 이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 구조를 비교 분석한 후 화북 조천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의 양상과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혔다.

이희봉의 제주도 민가 유형 해석을 통한 문화지역 설정 연구(1999)는 제주도내 23개 마을 70여 채 민가를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한 평면유형 외에도 정지거리별동형

표 5 연구자별 민가 유형의 분류 기준

	분류기준				분류기준				
	칸수	1차분류 : 칸수(규모)	2차분류 : 구성요소		칸수	1차분류 : 칸수(규모)	2차분류 : 구성요소		
김정기 김홍식 1973	2	막살이집		김영식 1996	2	막살이집			
	3	작은방이 없는 형			3	작은방이 없는 삼칸집			
		작은방이 있는 형				한칸형			
4	웃3알4칸집		중마루형			부엌내형			
장보웅 1974	2	2칸형		4	웃삼알사칸집				
	3	3칸형		삼칸기본형(작은구들이 없는 삼칸집)					
	4	4칸형		3	삼칸분화형	한칸형			
2	2칸막살이	기본형	중마루형			정지내형	정지별동형		
		고방없는형							
		단순형							
김홍식 1984	3	작은방 없는 3칸집	기본형	4	확대된 평면유형(사칸형)				
		작은방 있는 3칸집	한칸형		1,2	축소된 평면유형(2칸형, 1칸형)			
			고랑캐형	한쪽형	2	2칸부엌안 고방집			
	4	3칸 신형	기본형	2	2칸 마굿간집				
			개조형	자유형	2칸 부엌집				
	4	4칸집	기본형	3	작은구들이 없는 형	한칸형	정지내형	중마루형	
			변형	4	네칸형				
			특수형	3	3칸기본형				
			기본형		3칸반정지형				
	2	막살이집(2칸형)		이희봉 송병언 1999	3칸굽은정지형				
3		3칸집-작은방이 없는 3칸집			3칸굽은정지형				
		작은방이 있는 3칸집	한칸형		알3칸웃4칸형				
3	3칸집-작은방이 없는 3칸집	한칸형	정지없는 안거리3칸형						
		중마루형	4	4칸형					
	4	웃3알4칸집	부엌내형	2	2칸형(막살이집)				
3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집	한칸집	작은구들이 없는 형						
		정지내집	3		작은구들이 있는 형	한칸형	중마루형	부엌내형(혹은 정지내형)	
중마루집	4	4칸형							
4	네칸집	작은구들이 있는 세칸집	변형	2	막살이형				
			기본형	3	작은구들이 없는 3칸형				
3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집	한칸형	김홍식 김석운 신석하 1997		4	4칸형			
		정지내형				3	작은구들이 있는 3칸형	한칸형	정지내형
		중마루형		4칸형					
4	네칸집		4	4칸형					

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평면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강연진(2001)의 연구에서는 겹집구조인 북부지역민가와 제주지역 민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제주도만이 갖는 건축적 지역성을 고찰하여 제주도 건축에 적용 가능한 설계요소들을 추출하여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하였고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2002)에서는 제주민가의 생활문화적 특성을 건축에 적용하여 지속성과 변화성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12편의 선행연구는 제주 민가의 평면에 대한 유형 분류를 통하여 건축적 특징을 밝히고자 했던 점이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 평면유형의 분류방법과 기준을 <표 4>와 같이 검토하였다.

김정기, 김홍식(1973)의 연구는 건물의 규모와 추가된 방의 유무에 따라 평면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건물의 규모별로 막살이집, 3칸집, 옷3칸 알4칸집으로 분류하였고 작은방의 개념인 작은구들의 존재여부로 평면유형을 다시 나누었다.

장보용(1974)은 제주도의 민가를 칸의 규모별로 2칸형, 3칸형, 4칸형으로 분류하였고 칸 배치의 기본적 요소로서 정지, 상방, 구들, 고팡을 들어 이들의 배치형태를 살폈다.

김홍식(1984)의 연구에서는 여타 연구와 동일하게 건물의 규모별로 2칸, 3칸, 4칸으로 분류한 후 큰구들, 작은구들, 정지, 대청, 물동(난간, 퇴), 굴묵, 고팡 등의 위치와 이들의 유무에 의해 1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양택훈(1992), 김영식(1996), 강연진(2001), 최재권(2002)의 연구에서도 김홍식(197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규모별로 2칸의 막살이집, 3칸집, 옷3칸알4칸집으로 유형을 나누고 3칸집은 작은방(작은구들)의 존재여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작은방이 있는 3칸집의 경우 구성요소의 배치형식에 따라 다시 세분하였다.

박은영(1999)의 연구는 김홍식(1984)의 가옥 분류방식을 따랐지만 막살이집인 2칸집을 고팡, 마굿간, 부엌의 배치와 평면상의 비중을 따져 유형을 세분한 점이 특징이다.

이희봉(1999)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김홍식(1984)의 분류방식 이외에도 제주도의 동쪽에 주로 분포하는 정지거리별동형 가옥들을 조사하여 유형화하였다.

강장호(1999)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방식에 이희봉의 정지거리별동형을 추가하여

3칸집을 한칸형, 중마루형, 정지내형, 정지별동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평면의 분류체계는 일차적으로 건축물 전면 규모에 따라 구분하였고 이를 각 형태나 구성요소의 2차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2차적인 분류기준은 먼저 2칸형에서는 구성요소나 평면형태에 의한 것으로 박은영은 부엌안고방집, 마굿간집, 부엌집으로 나누었고 김홍식은 기본형, 고방없는형, 단순형, 부엌안고방형으로 분류하였다.

3칸형에서는 작은구들의 유무, 정지의 유무, 평면형태, 구조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었고 4칸형에서도 평면형태와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었다.

용어의 통일이 되지 않아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김영식의 글에서는 작은방이 있는 3칸집의 분류에서 2차 분류로 한칸형, 중마루형, 부엌내형, 옷3알4칸집으로 나누었는데 “형”과 “집”이라는 단어에서 그 일관성이 없고 통일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옷3알4칸”이라는 용어는 이희봉의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알3칸옷4칸형”이라는 분류도 나와서 “형”과 “집”의 경계가 혼돈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든 유형에서 1차적 분류체계를 규모별로 나누었고 2차에서는 구성요소인 작은구들이나 정지로 나누었고 또 구조나 평면형태에 따라 나눈 경우도 있었다. 3차 분류에서는 구성요소나 평면형태로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유형은 <그림 2>와 같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온 모든 평면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1차로 규모별로 2칸, 3칸, 4칸으로 나누었고 2차 분류는 각 연구의 특징이 될 수 있는 형태나 구조, 작은구들, 정지 등의 유무로 분류체계를 나눈 것을 모두 합하여 작성하였다.

모든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규모에 의해 2칸, 3칸, 4칸으로 나누었고 2칸에서는 특징있는 구성요소별로 다시 분류해 막살이집, 마굿간집, 부엌안고광집, 부엌집, 기본형, 단순형, 고방 없는 형의 7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박은영의 연구를 살펴보면, 3칸형은 작은구들의 유무에 의해 분류하였으나 2칸형은 2칸부엌안고방집, 2칸마굿간집, 2칸부엌집으로 분류하여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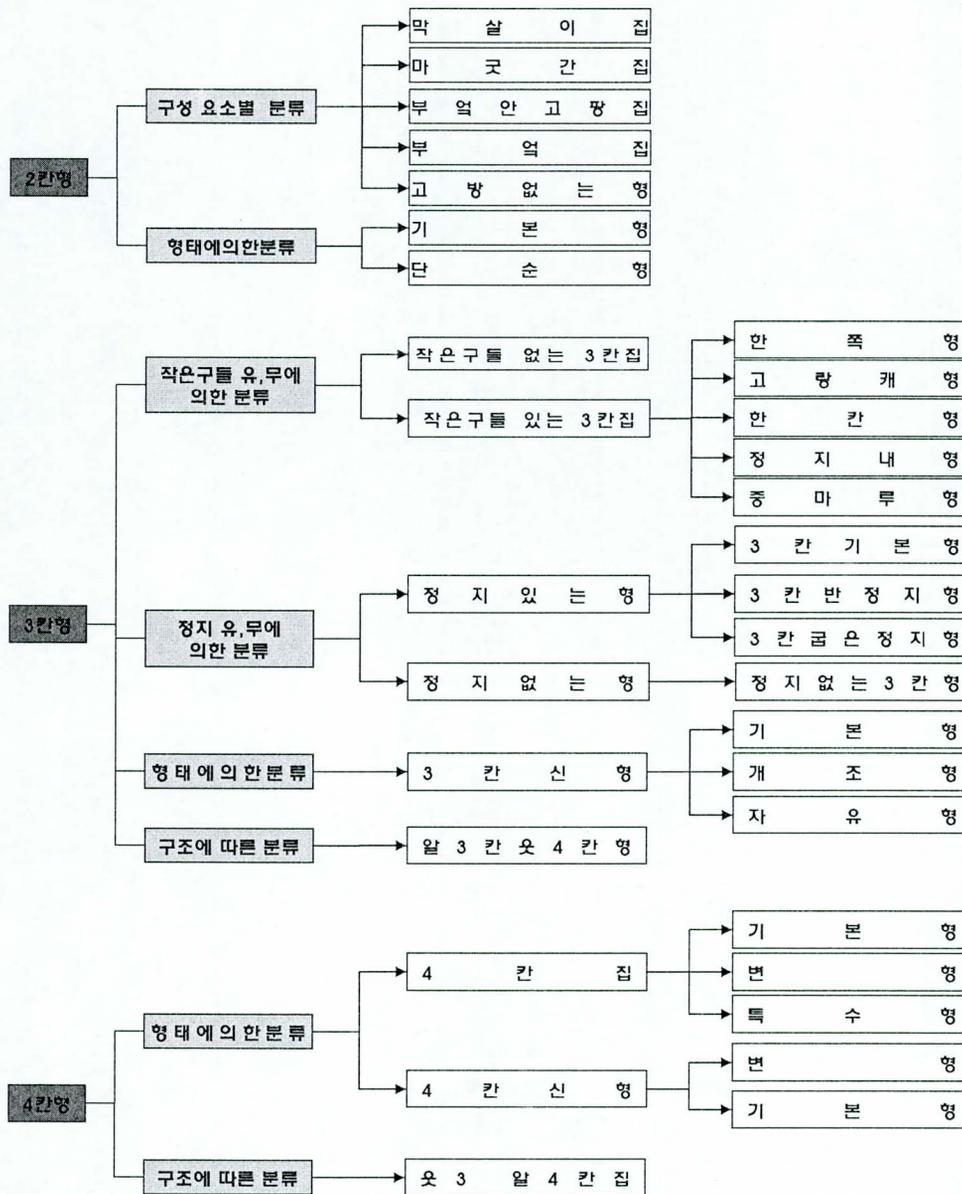


그림 2 제주민가 평면유형의 통합

나 이는 2칸에서는 작은구들에 의한 분류가 불가능하여 특징 있는 구성요소인 고방이나 마곳간, 부엌을 기준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3칸형에서는 연구자별로 작은구들의 유무, 정지의 유무, 구조방식, 평면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었다. 작은 구들의 유무에 의한 분류는 작은구들이 없는 3칸집,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으로 나누고 작은구들이 있는 경우는 다시 한칸형, 정지내형, 중마루형으로 나누었다. 정지의 유무에 의한 분류는 정지가 있는 경우 3칸 기본형, 3칸 반정지형, 3칸 굽은 정지형의 3가지로 나누었다. 즉 정지의 형태에 의해 “1차 : 칸수 → 2차 : 정지의 유무 → 3차 : 정지형태”의 3단계를 거친 유형분류이다.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에서는 한가지형으로 알3웃4칸형의 하나의 유형만 나타났는데 이는 지붕 상부 구조는 4칸형이지만 아래 평면의 형태는 3칸인 평면이다. 마지막으로 형태에 의한 분류는 중앙에 상방이 배치되고 한 칸에 고평, 구들, 굴목이 배치되며 다른 한 칸에 정지가 있는 형태를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평면형태가 변화되는 형태를 개조형, 자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칸형에서도 역시 형태에 의한 분류와 구조방식에 따른 2가지 분류체계가 나타났는데 형태에 의한 분류는 기본 평면을 중심으로 변형, 특수형을 4칸집으로 보았고 4칸형에서 시간이 흐르며 변형되는 가옥을 4칸신형으로 분류해 다시 기본형과 변형으로 나누었다.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는 3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붕 상부 가구는 3칸이면서 아래 평면은 4칸인 집을 웃3알4칸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연구자들은 제주민가의 평면 유형을 규모에 의해 1차적으로 2칸, 3칸, 4칸으로 나누었고 2차 분류로 2칸형에서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별로 나누었으며 4칸형에서는 규모가 커짐으로써 구성요소가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형태나 구조에 의해 분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민가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3칸형에서는 작은구들의 유무, 정지의 유무, 구조방식, 평면형태에 의해 2차 분류를 하였고, 작은구들이나 정지를 중심으로 분류했던 가옥에서는 3차적인 분류로 구성요소나 형태로 다시 세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각 연구자마다 분류체계와 용어가 상이하어 같은 평면을 다르게 분류한 것이다. 분류체계가 다르나 동일한 평면의 경우는 2칸에서 “막살이집”과 “부엌집”, “2칸막살이-기본형”이 있었고, 3칸형의 경우는 “작은구들없는 3칸형”과 “3칸기본형”, “한쪽형”과 “3칸굽은정지형”, “한칸형”과 “3칸반정지형”의 3가지가 있었다. 4칸형에서는 “4칸집-기본형”과 “웃3알4칸집”이다.

연구자들의 평면 해석에 따른 차이로 2칸에서 막살이집은 “2칸형이면서 상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간살이는 평면을 양분하여 한쪽은 정지, 다른 한쪽은 앞으로 못뚝(퇴), 구들, 고팡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구들 한쪽에 굴목이 설치되어 있다. 부엌은 전체공간의 1/2을 차지한 장방향으로.....”라고 하였다. 이는 부엌집과도 같은 의미로 박은영의 연구에서 부엌집은 “전면을 2등분하여 한쪽은 부엌, 다른 한쪽은 앞으로부터 토방(물동), 구들, 고팡을 놓으며 구들 한쪽 측면에 굴목을 배열한다. 부엌과 셋문 앞은 식사공간으로 활용된다.....”¹⁵⁾라고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서 부엌집으로 분류한 것은 박은영의 다른 유형으로 마굿간집이나 부엌안고팡집과 같이 구성요소로 인한 특징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막살이집과는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막살이집과 부엌집의 미세한 차이를 정지 내에 있는 ‘정지마리’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지 내부에서 식사를 위한 일종의 임시 거처 공간으로 바닥에 앉을 수 있게 마른풀을 놓거나 편상을 놓는 경우가 있다”¹⁶⁾는 것으로 보아 이의 도면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식사를 위한 임시적인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정지마리만으로는 두 평면을 다르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정지없는 3칸형은 역시 이회봉의 연구¹⁷⁾에서 나타난 평면으로 상방을 중심으로 한칸엔 고팡과 구들, 한쪽에 굴목이 있고 다른 한칸엔 작은 구들이 이중으로 배치된 형태로 김홍식의 분류법에 의하면 3칸신형-기본형과 동일한 형태이다. 다만 김홍식의 분류에 의해 나타난 “3칸신형-기본형”의 평면은 마당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 중앙칸 상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큰구들이 있고 우측에 작은구들이 이중으로 있는데 반하여 이회봉의 “정지없는 3칸형”은 상방을 중심으로 우측에 작은구들이 이중으로 있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김홍식의 연구뿐 아니라 다른 연구¹⁸⁾에서도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같은형으로 보아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15)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론, 1999.

16) 앞 주 박은영의 글, p.19.

17) 이회봉, 송병언, 제주도 민가 유형 해석을 통한 문화지역 설정.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1998.

18) 김정기·김홍식,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1973, p.267, “이러한 평면의 간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바뀌기도 한다...중략”; 신석하, 제주의 전통문화, 1996, p.151, “이런 종류의 집에 있어서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칸인 상방을 중심으로 평면의 좌우가 바뀌는 수도 있으며...중략”; 최재권,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박론, 2002, p.34. “이 형태도 다른 형태와 같이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중략”, 이와 같이 좌우가 바뀌는 경우는 많았으며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동일한 평면을 다르게 표현하였던 유형을 통합하여 <그림 3>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3칸형에서는 2차 분류에 작은구들의 유무를 중심으로, 3차분류에서는 정지의 유무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4칸에서는 김홍식의 연구 외에는 모두 단순하게 규모에 의한 4칸형으로만 분류하였으므로 김홍식의 연구에서 나왔던 형태에 의한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랐다. 김홍식의 연구에서는 성읍마을 내 91개의 가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4칸형의 가옥의 사례를 보면 4칸형-기본형 2개, 4칸형-변형 1개, 4칸형-특수형 2개, 4칸신형-변형 2개, 4칸신형-기본형 2개의 가옥으로 나타나 91개 가옥 중에서 4칸형의 가옥은 10%가 안되는 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당시에 4칸형의 가옥이 매우 드물었고 분류체계에 의한 평면 형태도 1~2개 정도만 나타나는 일반적인 평면이 아닌 특별한 경우였다.

3. 제주도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징

3.1 제주도 마을과 민가의 형성 배경

민가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지역성과 시간성이 많이 작용하는 건축유형이라 할 수 있다. 민가의 구조와 공간구성, 외부형태 등 민가의 형식은 지리, 지세와 지질 및 기후의 자연조건과 사회제도, 생활양식, 풍습 등 인문조건에 의해 서서히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민가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특이하게 변형·발전하며 대단히 천천히 변화하는 특수성을 갖는다.¹⁹⁾ 제주도는 오랫동안 육지와는 다른 가족 제도와 생활 관습 등으로 독특한 문화적 지역성을 이루어 왔다. 제주도에서 건축의 장소적인 독자성은 한국건축의 보편성과 지역의 문화기후·풍토적 제약 등에 의한 국지성의 이원적 구성이라는 전제하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자생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화요소를 융합시켜 변용된 민가의 형태를 고찰하는데 있으므로 그 형성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1 자연환경

가. 지형, 지세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화산도로서 제주도와 목포간의 거리는 약 141km, 동북쪽의 부산과의 거리는 약 274km이며, 경도 126도 10분~126도 58분 사이와 북위 33도 12분~33도 34분 사이에 놓여 있으며 면적이 1,819km²로서 동서의 길이 약 80km, 남북의 길이 약 40km, 그리고 둘레는 약 254km가 된다. 타원형으로 된 제주도는 중앙부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300여개나 되는 대소 화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섬 전체가 아스피이트형 화산으로 되어 있다. 섬의 중핵이 되고 있는 한라산은

19)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1996, 홍익대학교석론, p.8.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해안에 이르고, 등고선은 산봉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경사는 남부가 북부에 비하여 비교적 급한 편이어서, 이로 인해 해안선도 남부는 단애를 이룬 곳이 현저하며 평야는 동서 양단에 넓게 퍼져있다. 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삼읍이 모두 한라산 기슭이라 평지는 반도 안 되고 밭을 가는 이는 생선의 밭속을 파냄과 같고, 평탄한 듯 하나 멀리 내다보이지 않으니 오목하고 솟아 있는 때문이다’라고 지형을 묘사하였다.

즉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지세를 하고 있다. 손을 모아 약간 오므린 다음 손등을 위로 한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높고 사면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짐으로 인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좌향은 한국 전통주택의 입지인 배산임수를 취해 주택의 방위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하회마을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배치형태이다.²⁰⁾

하천은 한라산을 비롯한 성판악, 어승생악 등에 의하여 남북 양사면으로 갈라져 내린다. 이들 하천은 거의 건천이어서 한번 호우가 오면 일시에 물이 넘쳐 흘러 내리다가 곧 말라 버리는 하천이다. 섬의 90% 이상이 화산암인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어 물은 곧 지하로 빠져 해안선 가까이 가서 용출한다. 따라서 취락이 해안선 가까이 밀집하기 마련이다.

나. 기후

제주도의 기후는 근해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하다. 해양성 기후 특징이 뚜렷한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14.7℃, 가장 추운 날도 -5℃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세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훨씬 낮다. 연평균 습도는 제주시 73%, 서귀포 72%로 서귀포가 약간 낮다. 그러나 4~9월의 연평균 습도는 서귀포 80%, 제주시 77%로 서귀포가 현저하게 높다.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시 1,440mm로서 한반도 남부와 비슷하며 서귀포는 1,676mm로서 국내 최대 강우지 중의 하나이다.

제주도에 있어서 바람은 기후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예부터 풍세(風勢)가

20) 박희용의 3명, 제주 전통주택의 건축특성 연구(I),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권 2호, 1999.

큰 지역으로 강풍다풍(强風多風)의 섬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기압차가 크고,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주변지역 기압배치 하에서 기단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초속 10m 이상의 폭풍일수는 117일, 연평균 풍속이 초속 4.7m이다. 연중 2, 3회 있는 태풍일 때는 최대 풍속이 초속 36m이다. 제주도의 30년 평균 풍향의 분포는 주로 북서풍~북풍계열이 뚜렷하며, 특히 고산에서는 북풍계열, 성산포에서는 북서풍계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봄철 30년 평균 주 풍향을 찾기는 어려우나, 고산에서는 북풍계열, 성산포에서는 북서풍계열이 강하게 분다. 여름철 풍향의 분포는 고산에서 남남동풍계열이 주로 부는 특징이 있다. 가을철에는 고산에서 북풍계열과 북동풍계열이 많이 불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뚜렷한 경향은 없는 편이다. 겨울철은 주로 북서~북풍계열이 많이 분다. 특히 고산에서는 북풍계열, 성산포에서는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부는 특징을 보인다.

이 바람은 돌과 더불어 가장 뚜렷한 제주문화형성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이 주민의 의식 내부가 일상생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주거형태의 물리적 특성은 전부 바람의 영향이라 할 만큼 많다. 마당을 중심으로 민가를 별동으로 구심 배치한 것, 높은 돌담을 타리, 상대적으로 외기 노출 표면적이 작은 양통형 평면 또는 겹집형 평면이 정착되어 있는 것,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선택, 목골구체 외부로 쌓은 석조 덧벽, 창호를 보호하기 위한 판장(板張)덧문 등은 모두 바람에 적응하기 위하여 선택된 지혜로 보이는 것들이다.²¹⁾

3.1.2 인문환경

가. 풍습

제주문화의 특성을 형성하는 근본 요인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고찰되고 설명되었지만 특히 언어 분야, 민속분야와 가족, 친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 경제적 측면과 인류학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21)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86, pp.9~10.

사회적으로 미분화된 농경 사회적 상황과 어려운 환경조건에 적응해 나가려는 삶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결속을 위한 공동적인 운영방식과 조직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적 행동을 결속시켜 문화적 특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연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삶의 지혜를 드러내는 예로 연자매 관리집단을 들 수 있는데, 연자매는 대략 20호 정도의 이웃끼리 돈과 노력을 모아 동네별로 공동의 힘으로 의논하고, 관리하며 어려운 일을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웃끼리의 인정도 깊어지는 공동체이다. 용수(用水)집단의 형성도 물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을 공동협력과 질서를 통해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다. 또한 초가지붕에 쓰이는 새를 얻기 위하여 새왓이라는 밭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는 산간지대의 깊이가 얕은 한정된 곳에서 재배되므로 공동으로 땅을 개간하고 분배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함양되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적극적인 사회적 성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개체성보다는 어려운 삶의 조건을 극복하려는 공동체운명체제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이중적 성향을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도서성(島嶼性)인데,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도서환경에 의하여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수성과 외래문화의 영향은 적어 지방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결국 제주문화는 이러한 두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화적 특수성이 존속했다고 할 수 있다.

나. 가족제도

가족이란 주거를 공동으로 하는 생활 공동체이며 생산·소비의 공동 경제단위이고 부부 및 그 혈연관계의 집단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조선중기 이후 이념적인 전형으로서 보편화된 한국의 전통가족은 가계계승과 부계친족 집단의 결속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장남은 반드시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가족의 창설과 확대, 축소, 해체의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부계·직계·장남에 의해 계승되는 한국가족의 구성원리는 현실의 가족생활 속에서 개인에 대한 집의 우위성,

가장의 권위확립,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 재산상속에서의 장남 우대와 조상제사의 장남 봉사, 부녀자의 낮은 지위, 정조관념의 강화와 이혼·재혼에 대한 금기의식 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가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장남이 결혼 한 후 부모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분가주의와 강한 독립생활의지를 보여주는 제주도 가족의 이상형은 육지가족의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아니라 부부가족이며, 결혼한 자식이 분가할 때는 대개 주거를 분리하여 독립된 민가를 새로 마련하지만 독립된 민가를 새로 마련할 형편이 못되거나,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치 않은 홀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가끔 부모가족과 아들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분가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두 가족은 대개 ‘안거리’와 ‘밖거리’로 주거를 분리하고, 경작지를 나누어 따로 농사를 지으며, 취사와 세탁 등 일상생활을 각기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며 이사를 가더라도 부모가 미혼 자녀를 거느리고 이사를 간다.

이것은 조상의 영혼이 깃든 전래의 민가와 토지 및 중요 가재도구(제사상이나 제기 등)는 장남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의 호적중초에 이미 장남분가가 널리 행해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장남분가 전통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장남분가의 관행은 재산상속, 제사상속,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족의식 등 가족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²²⁾

‘철저한 장남분가’ 외에도 재산 상속의 균분 경향, 문중조직의 미발달, 육지와 상이한 혼인 의례, 부락내혼의 경향,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사혼(死婚)의 관습, 조상제사의 분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핵가족적 성격 등은 가계 계승과 부계 친족 집단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직계 가족을 지향하는 육지부의 전통적인 한국 가족과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며 이는 조선 중기 이전의 한국 전통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특징들과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매우 흡사한 모습들이다.²³⁾

22) 『제주의 민속 V』, 제주도, 1998, pp.554-557 참조.

이와 같이 제주도의 친족이 육지와 차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박(土薄)한 생활환경, 머슴의 부재(不在), 유교적 양반 문화의 희박(稀薄) 또는 결여(缺如)등에 연유되는 것으로 생각한다.²⁴⁾

3.2 제주 민가의 건축적 특징

제주도 민가가 육지의 민가와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철저한 별동배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속적 사고와 풍수지리의 영향, 기후적 요구, 가족제도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로 인한 안·밖거리의 분리거주와 바람이 많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가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이외에도 바람이 많고 강한 기후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기도 하며, 마당공간이 농어물의 건조장과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외에 여름철의 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분동(分棟)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²⁶⁾

민가의 좌향은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방위에 대한 길흉관습이 결정요인이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배산임수의 입지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섬의 북서쪽에서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3.2.1 민가의 공간 구성요소

제주도 민가의 내부공간은 곁집으로 형성되어 깊고 넓어 으스스하다는 말이 있다.²⁷⁾ 3칸집이 일반형인데 ‘상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난간을 거쳐 앞에는 마당과 후면으로

23) 한국사학회,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문학과 지성사, 1995 중, 이창기, 「19세기말 제주도의 가족구성」, p.71.

24) 최계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p.12.

25)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론, 1999. 재인용.

26)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박론, 1997.

27) 金淨, 濟州風土錄, 中, 16세기.

는 안뒤로 연결된다. 이곳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천장은 연등천정이다.

상방이 한쪽은 부모들의 큰구들이 있어 뒤에 고팡이 붙어있다. 고팡에는 주로 곡물이 저장되는데 툇칸까지 포함하는 넓은 면적과 위치로 보아 설계에 중요한 위치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 천장은 제물반자이며 통풍을 위한 최소한의 개구부를 설치한다. 반대쪽은 자녀들의 방인 작은구들과 챗방이라 부르는 식사 전용 공간이다. 챗방은 정지로 통하는데 이곳은 한 칸 전부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이다.

취사 재료를 농업 부산물인 조나 보리대를 사용하므로 우천시에 대비한 연료의 보관과 작업장의 기능도 겸하게 된다. 전면으로는 마당으로, 후면으로는 장독대가 있는 안뒤와 연결되는데 정지가 별동으로 분화된 경우도 있다.

전후좌우로 툇칸을 두어서 전후면의 것은 농산물의 일시 보관소로, 측면의 것은 구들에 채난을 위한 공간인 굴묵으로 쓰고 풍우시에 주공간을 우침으로부터 완충시킴에 유리하다.

평면형태는 철저히 일자형으로 일관되며 채난과 취사연료가 분리되어서 안방+부엌의 구성 단위인 타지방 민가와 달리 챗방이라는 식사 전용 근대적 기능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가. 상방(마루)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개방적인 공간이다. 상방은 2칸형 민가에서 3칸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엌공간이 기능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3칸집과 4칸집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상방은 집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하며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집의 대표신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볼 때 정지와 더불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혼상제가 행하여지는 공적 요소를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전, 후면의 외부공간과 직접 접하고 있어서 여름철의 통풍에 유리하다.

나. 구들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이 있는데 큰 구들은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 구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밖거리 구들에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성장한 아들부부 또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부 등이 산다. 구들은 사적 생활공간이며, 또한 조상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다. 정지

주택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칸집에서 1/2, 3칸집에서 1/3, 4칸집에서 1/4이 일반적이다. 정지는 가사노동의 공간이며 대표적인 여성공간이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벽은 돌을 쌓아 흙만 바르며 천장은 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정지의 기능은 취사공간, 저장공간 등이며 상류층의 3칸집이나 4칸집에서는 정지가 별동으로 떨어져 모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지는 상방이나 챗방과 연결(부엌+마루, 부엌+챗방+마루)되어 기능 분화가 잘되어 있다.

라. 챗방

챗방은 상방과 같은 마루방이다. 평상시는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 행사시는 배선실적 성격의 공간으로서 부엌+챗방+마루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별 기능 분화가 잘 되어 있다.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상방으로부터 기능 분화한 것이다. 이는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민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마. 고팡

식량과 씨앗 등을 담은 항아리와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공간이다. 흙바닥이거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장은 노출반자이다. 환기를 위한 두 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통한다. 고팡이 상방을 사이에 두고 부엌과 떨어져서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분할식 방법에 의한 한칸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소농 등의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무속신의 영역이며 제사 때에는 이 신을 위해 고팡상을 차리기도 한다.

바. 난간

상방과 마당사이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완충공간으로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며 상방 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바람과 일광의 여과, 일시적 수납공간에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바닥이 마당보다는 높고 상방과는 같아서 마당과는 구분이 되면서 밖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연속되어 있다. 비바람이 칠때는 상방과 구들에 비가 직접 들지 않도록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들 때 방에서 나와 일광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 굴목

굴목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주택의 보건위생적 공간에 속한다. 굴목의 상부는 방에서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에는 방의 중앙 위치에 불을 뿜 수 있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굴목의 고팡쪽 구석에는 불을 때고 난 재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3.2.2 민가 배치의 일반형

제주도 전통주거가 내륙의 전통주거와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점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철저한 별동배치 형식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무속적 사고와 풍수지리의 영향, 기후적 요구, 가족제도의 특이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뚜렷한 지역적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가옥의 좌향은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외에 방위에 대한 길흉관습이 결정요인이 된다.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설에 의한 입지를 선택할 경우 제주는 한라산이 중앙에 솟아 있는 지형적 조건 때문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동, 서, 남, 북의 입지에서는 꼭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통주거건축에 있어 안과 밖은 일반적으로 담이 기준이 되어 공간적인 구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주도의 민가에서는 울레라는 것이 있어 안과 밖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다. 울레는 유도하는 울담에 의해 방향성이 주어지며, 그 연속에 의해 내외공간을 통합연결하고 있다.

올레는 주택에 출입하는 입구로서 마당과 마을길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내부적 외부 공간이다. 제주도는 문이 발달되지 못한 반면 올레가 문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한다. 올레의 입구는 어귀라 부르는데 그 양쪽에는 어긋돌이 놓이며, 이 앞에는 집주인이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사용했다는 말뚝돌이 놓인다. 올레의 양옆에는 다리뚝돌이 설치된다. 올레에서부터의 집의 형상은 정면으로 대향시키지 않고 축을 엇갈리거나 비스듬히 놓거나 모서리 방향으로 진입함으로써 민가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올레는 집의 내부로의 진입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주며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또한 내부로의 통로로서 연속성과 방향성, 리듬감을 부여한다. 올레는 곧지 않고 구부러져 있으며 끝부분이 휘어져 있는데 이것을 올레목이라 부른다.²⁸⁾ 이것은 올레 안으로 들어 온 사람에게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고 마을길에서의 길고 지루한 감을 전환시켜 주택 내부인 마당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올레목이라는 분절요소(Articulation)가 있어서 올레의 공간감을 받아주면서 마당으로의 진입감을 상승시켜주고 있다. 이 공간을 지나면 마당의 공간과 함께 전체공간이 시야에 들어오음으로서 공간의 흥미를 배가시키게 된다.

마을배치에서 통로인 수평축은 마을길-올레-마당-각 채 등 다단계적으로 접근되며 그 단계마다 분절에 의한 특성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우선 T자 도로는 분절의 1차적 요소라 할 수 있고, 올레는 집에 들어서기 위한 2차적 분절요소라 할 수 있으며, 올레목에서의 분절요소는 3차적 분절요소로 제주 전통민가만이 갖는 독특한 공간효과이다. 이러한 서로 인접하는 공간영역을 분절하는 요소의 다양성은 공간에 점진적 성격을 준다.

제주도의 민가는 일자형이 대부분으로 육지의 남부지역과 비슷한 면이 보이지만 간살이 아주 다른 양통집으로 오히려 북부지방이나 일본과 유이한 점이 있으며 건축물의 수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및 네거리집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외거리집은 다시 막살이집, 3칸집, 옷3·알4칸집으로 나뉘고 두거리집, 세거리집은 가옥의 배치유형에

28) 산림경제 복거조(山林經濟 卜居條)에 “當面直來之路謂之衝破 必須盤於曲轉 四路園宅凶 其驗最著” 기록되어 있다. 즉 집 앞으로 직진한 도로는 좋지 않고 반드시 곡전해야하고, 도로가 사방을 둘러싸는 것은 좋지 않다. 김홍식, 내가 본 한국건축의 멋, 건축한국, 1976, 6, pp.38-40. 또한 민간신앙에 신과 잡귀는 직진성이라는 주술적 인습이 있기 때문에 올레 형태는 꺾이거나 구부러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중국의 사합원에 있어서도 대문의 위치가 동남모퉁이에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민간신앙적 차원에서 귀신은 직진성만을 갖고 있어 대문을 동남모퉁이에 배치한 다음 이것을 다시 직절시키고 또다시 진입방향축으로 직절시켜 중정 안으로 들어가도록 배려되어 있다.

따라 모로얏은 형과 마주얏은 형으로 구분되며 그것의 구성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을 낳게 한다. 이중 가장 많은 형태는 두거리집과 세거리집인데 여기에서 유형별로 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연구자에 따라 한거리나 두거리집에서 건물수로 유형을 나눈 경우도 있으며²⁹⁾ 밖거리가 없이 안거리와 기타 부속채로 구성된 집으로 한거리집(외거리집)으로 나누고 안거리와 밖거리가 같이 있는 유형을 두거리집이라고 하는 경우³⁰⁾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단순한 건물의 수로만 유형을 나눈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제주도의 장남분가제도나 취사분리의 의미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3.2.3 민가의 평면 유형³¹⁾

제주도 민가는 일반적으로 안거리의 평면을 중심으로 민가를 분류한다. 안거리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칸 막살이형, 세칸형, 네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칸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민가의 유형이며 이는 작은구들이 없는 형과 작은구들이 있는 형으로 나뉘며 작은구들이 있는 형은 그 위치에 따라 한칸형, 정지내형, 중마루형으로 나뉜다. 그 이전 단계로 덜 발달된 두칸 막살이형이 있다. 그리고 중류층 이상에서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챗방 공간을 갖는 네칸형이 나타난다.

가. 2칸형 (막살이집)

3칸의 안거리를 지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2칸막살이 집을 짓고 산다. 2칸이기 때문에 3칸집에서 필요불가결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상방공간이 생략되고 3칸집에서 머리와 아래간이 붙어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제주도 주택의 특징상 여기서도 구조체가 완결형인 까닭에 간잡이가 분할식으로 들어가지 차후에서 육지에서처럼 덧붙이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없다. 역시 2칸 전후좌우퇴집이다. 정지가 어느 쪽으로 놓이느

29)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론, 1999.

30) 강장호,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론, 1999. 박은영은 안거리 하나로 구성된 집이라 하여 단순한 건물동수에 의해 유형을 분류하였고, 강장호는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인 취사분리에 의한 독립생활로서의 공간의 의미로 밖거리가 없이 안거리와 부속채로 이루어진 배치유형이라 설명하고 있다.

31) 제주민가의 평면유형은 김홍식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의 평면구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냐는 앞의 3칸집과 마찬가지로 일정치 않다.

2칸 막살이집도 7량가로서 구조형식은 완결형이다. 대체로 곽은도리를 활용하는 까닭에 산방낭을 보이고 있는 집은 드물다. 그렇다면 산방낭은 고식이면서도 완전한 구조-잘 짓는 집에서만 쓰였던 법식이고 곽은도리 방식은 간이식 구법이었다는 뜻도 될 것이다. 큰구들쪽 간잡이는 3칸집의 경우와 비슷하다. 앞퇴에는 물등이, 앞 한칸에는 구들이 시설되고 구들의 옆에는 굴목이 놓이며 뒤칸에는 옆과 뒤등까지를 통칸으로 만들어서 곽으로 쓴다. 물등은 난간 마루가 시설되지 않고 토방이므로 물등, 곧 물의 끝자락이라는 의미인 듯하다. 곽은 정지간에 출입하도록 만들어진다. 정지간은 3칸집의 정지간과 같은데 다만 통칸으로만 쓰고 3칸집의 경우처럼 작은구들이 시설되는 예는 전혀 없다. 다만 막살이 집에는 마루가 없으므로 마루가 들마루로 만들어져서 정지간 앞에 시설되는 경우도 있다.

막살이집이 이보다 규모가 작아지면 뒷간이 없어지므로 곽이 없어지고 대신 정지간 안에 뒤쪽으로 조그맣게 간살이를 만들어서 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산북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난한 집에서는 정지간에 소를 들여놓아서 쇠왕으로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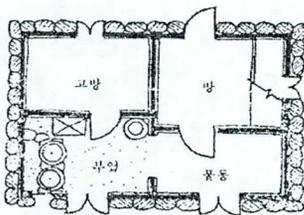


그림 3 2칸 부엌안고팍집
(제주도민속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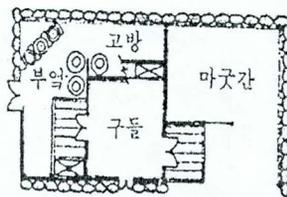


그림 4 2칸 마굿간집
(제주도민속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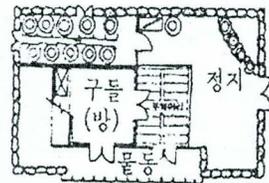


그림 5 2칸 부엌집
(제주도민속자료)

● 2칸부엌안 곽팍집

오른쪽은 방, 왼쪽은 부엌인데 부엌 뒤에는 곽이 만들어지고 방 앞에는 토방이 배치된 원시적 평면이다. 전면을 양분하여 왼쪽 앞에는 작은 한칸 크기의 부엌을, 뒤에는 역

시 작은 한칸 크기의 고팡을 배치한다. 오른쪽에는 앞으로 반칸 크기의 토방과 뒤쪽으로 한칸 크기의 구들을 놓고 방의 오른쪽에는 길게 반칸 크기의 굴목을 배치한다.

● 2칸 마굿간집

한칸은 마굿간으로 이용하고 다른 한칸은 살림방으로 쓰고 있는 집을 말한다. 이 집은 독립된 민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의 밖거리를 개조하여 쓰고 있는 집이다. 평면은 긴 네모꼴이나 여느 집들과 달라서 주출입구를 측벽에 내고 있다. 구들 왼쪽 반칸에는 봉당이 배치되는데 구들 앞문 앞에는 마루가 놓여지며 고팡 왼쪽 옆에는 역시 반칸 크기의 부엌이 만들어진다.

● 2칸 부엌집

전면을 2등분하여 한쪽은 부엌, 다른 한쪽은 앞로부터 토방, 구들, 고팡을 놓으며 구들 한쪽 측면에 굴목을 배열한다. 부엌과 셋문 앞은 식사공간으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식사를 할 때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마른풀을 깔아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편상이 놓이는 수도 있으며 이것을 ‘정지마리’라 부른다.

나. 3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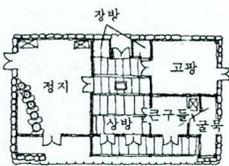


그림 6. 작은구들 없는 3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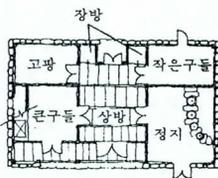


그림 7.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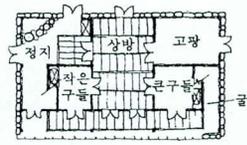


그림 8.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정지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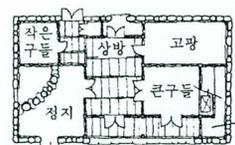


그림 9.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종마루형)

● 작은구들 없는 세 칸집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집은 안에 구들이 하나만 배치되는 집으로, 평면구성은 중앙의 상방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정지가 있으며, 우측으로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이 위치한다.

상방과 큰구들 앞에는 난간이 있으며 큰구들 옆에 굴목이 위치한다. 그러나 가운데 칸인 상방을 중심으로 평면의 좌우가 바뀌는 경우수가 있으며, 두 칸집과 세 칸집이 다른 점은 정지와 구들 사이에 상방이라는 공간이 발생함으로써 공간 분화를 한 점이다.

정지에 있어서 정지앞문과 정지뒷문이 설치되며 상방과의 동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정지셋문이 있게 된다. 창은 봉창으로 하나 정도가 화덕쪽의 외측벽에 설치된다. 화덕은 반드시 상방과 반대쪽인 외측벽이 앞쪽에 붙여서 설치되며, 연료는 상방 벽의 앞쪽구석에 앞문으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놓는다. 정지 바깥벽과 앞벽이 이루는 구석에 공간을 만들어서 연료 저장창고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고랑채라고 한다. 물항은 뒷문 옆에 놓고 그 옆에 살레를 배치한다. 정지에는 안벽에 붙여서 셋문 앞쪽으로 검질을 깔고 짚방석을 몇 개 놓아 농번기 또는 간단한 식사를 할 때 식사공간으로 이용한다. 설거지를 할 때 쓰는 곳은 물통은 살레 앞에 놓고 사용하는데, 쓰고나면 치위 뒷벽에 세워 놓는다. 봉덕(또는 부섭)의 위치는 정지의 중앙에서 약간 뒤가 된다. 이것은 겨울에 불을 피워서 정지 공간의 공기를 덥게 하는 채난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큰 일 때에는 생선이나 고기 등을 굽는 용도에 이용되기도 한다. 정지의 불치공간 위에는 닭통을 만들어 놓는다. 물을 길는 허벅을 올려놓는 물팡은 정지 앞문 밖에 만들어진다. 장항은 정지뒷문의 안뒤공간에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배열된다.

난간은 대부분 마루로 되어 있으며 상방 앞과 구들 앞에 기다랗게 설치된다. 처마끝 서리 앞에는 풍채를 다는데, 이것은 비바람이 칠 때 내려서 비바람을 막고, 벌이 날 때에는 올려서 벌이 상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상방은 집의 중앙으로 앞쪽에는 주출입문인 대문이 있고 규모가 특별히 작은 집이 아닐 경우 대문 옆에 대부분 호령창(또는 생깃문)이 있다. 이것은 대문 옆인 구들쪽에 설치한다. 상방 뒤쪽에는 안뒤 공간과 연결되는 뒷문이 있다. 그 외 정지셋문, 고팡문, 구들셋문이 있다. 부섭(혹은 봉덕)은 돌을 네모나게 가운데를 파서 만든 것으로서 정지의 것과 같은 용도로 쓰이며 정지의 것보다 모양이 좋게 가공하였다. 위치는 상방 중앙에서 뒤로 치우쳐서 배치하였다. 장방은 뒷문 뒤의 퇴에 만드는데 이런 집의 형태에서는 고팡쪽으로만 만들어지며, 상마루 밑에는 병풍, 초석, 젓상 등을 올려놓는 도들이 설치된다.

구들은 바른 네모꼴로서, 사람의 출입은 상방에 붙어있는 구들셋문으로 하고 난간에 설치된 창은 채광, 통풍, 조망용이다.

고팡은 긴 네모꼴 평면이다. 문은 상방쪽으로 고팡문이 있고, 창은 뒷벽에 쌍여닫이로 설치하거나 봉창을 이용한다. 고팡의 용도는 막살이 집과 같다. 곡식을 담은 항아리는 건물 뒷벽과 셋벽에 붙여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한다.

굴뚝은 구들에 붙을 지피는 공간으로 출입은 난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은 없다. 바닥은 흙바닥이며, 벽과 천장은 정지와 같으나, 그 마감이 거칠다.

작은구들이 없는 세 칸집은 비교적 긴 울레를 가지고 있다. 울레는 마당 옆으로 연결되었으며 마당은 비교적 크다. 마당 옆에는 놀이 설치되어 있다. 안뒤는 우영까지 트여있다. 우영에는 채소 등을 심어 일상의 조리에 사용한다. 변소는 돼지우리(뚝통)안에 배치하되 대지 안의 구석지면서 정지와 반대되는 떨어진 곳에 만든다. 이런 유형의 집은 복제주군보다 남제주군에 더 많이 존재한다.

●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한칸형)

평면 구성은 가운데에 상방을 두고 왼쪽으로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 오른쪽으로 앞뒤에 정지와 작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큰구들과 상방 앞에는 난간이 있으며 큰구들 옆에 굴뚝이 위치한다. 이 집도 다른 형태의 집과 마찬가지로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정지와 작은구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정지가 뒤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작은구들이 뒤로 배치되는 경우는 주로 산북지역에서 많이 본다. 정지의 문은 외부로 연결되는 정지앞문과 상방으로 연락되는 정지셋문이 있지만 정지뒷문은 없다. 창은 봉창이 하나 정도는 화덕쪽의 외측벽에 있다. 화덕은 바깥벽 쪽에 설치하거나 작은구들 벽에 붙여 설치하기도 한다. 연료는 정지 앞문 옆 구석에 저장하며, 물항은 정지앞문 옆 연료 맞은편에 놓는다. 살레는 상방쪽 셋벽에 붙여서 놓고 식사공간은 상방을 이용한다. 장항은 정지뒷문 밖에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놓여진다. 난간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흙바닥으로 된 집도 있다. 서리 앞에는 풍채가 있으며 전면은 개방되어 있다.

상방에는 앞쪽에 대문이 있고 뒤쪽에 뒷문이 있다. 그 외 정지셋문과 큰구들셋문, 작은

구들셋문, 고팡문이 있다. 장방은 뒷문 양옆 또는 고팡쪽에 설치된다.

구들은 바로 네모꼴인데, 큰구들은 안방에 해당하고 작은 구들은 건넌방에 해당되며 크기는 큰 차가 없고 다만 위치가 다를 뿐이다. 고팡 앞에 있는 구들은 큰구들이고 정지 앞에 있는 구들은 작은구들이다. 구들에는 각각 구들셋문과 창이 설치된다. 고팡의 이용과 설비는 다른 집과 동일하다.

큰구들과 작은구들의 굴목은 남제주지역에서는 난간에서 ㄱ자로 꺾이어 출입하도록 설치하여 굴목에 바람이 치지 않게 하였으며, 북제주 지역에서는 난간을 거치지 않고 측벽에서 바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작은구들이 후면에 놓일 때는 굴목이 설치되지 않고 정지에서 직접 불을 뿜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작은구들이 정지 뒤에 있을 때는 외측벽[굴목이 설치되어야 할 위치]에 난간을 만들어 놓는 수도 있다.

작은구들이 있는 세 칸집은 대체로 짧은 울레를 가지고 있다. 집 앞에는 마당이 있으며 마당 옆에는 놀이 설치된다. 우영이 없는 경우도 자주 있다. 보통 부속건물 밖거리 또는 쇠막이 이 집과 함께 지어지는 수가 흔하다. 이 집은 밀집한 도시형 촌락에 많으며 산북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정지내형)

작은구들 없는 3칸집의 정지 안에 작은구들을 꾸민 집으로서 작은구들의 구조는 건물의 구조와 별개로 된 집이다. 평면구성은 작은구들 없는 세 칸집과 같은 간살로 하되 다만 정지 앞쪽(또는 뒤쪽)구석에 붙여 작은구들을 설치하는 것만이 다르다. 이때 작은구들은 상방 옆쪽에 붙으며 그 옆은 정지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난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곳을 쓰고 있다. 즉 큰 구들의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불편한 점과는 다르게 정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작은구들이 없는 3칸집에서 발전해 가는 첫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네칸집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난간, 상방, 큰구들, 고팡과 굴목은 그것의 위치, 크기, 각변의 비, 마감이 모두 작은구들이 없는 세 칸집과 같다. 정지는 이곳에 작은구들이 설치됨으로써 ㄴ자 평면이 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작은구들 옆 공간은 정지의 수장공간으로 이용되므로 정지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작은구들은 상방쪽에 붙여서 정지 앞쪽(또는 뒤쪽)에 위치시키는데 구들의 크기는 큰 구들과 비슷하며 모양은 대략 바른 네모꼴이다. 이런 형은 지역에 관계없이 볼 수 있으며 특히 남제주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중마루형)

평면구성은 정지내형과 같은 간살로 하되 작은구들을 상방에 붙이지 않고 거꾸로 상방 반대쪽에 붙여 상방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이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런 집 역시 정지의 위치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 배치된다. 난간, 상방, 큰구들, 고팡과 굴목은 그것의 위치, 크기, 각 변의 비, 마감이 모두 작은구들이 없는 세 칸집과 같다. 정지는 정지내형과 달라서 뒤쪽을 완전히 작은구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므로 해서 바른 네모꼴에 가까운 평면을 갖는다. 작은구들은 정지 뒤쪽에 붙여서 배치하며 벽장은 정지 쪽 또는 그 반대쪽에 설치되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굴목과 정지쪽이나 그 반대쪽에 배치된다. 크기는 큰구들보다 작다. 이런 집은 지역에 따라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북제주 서부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다. 4칸집

평면구성은 가운데에 상방을 두고 왼쪽(또는 오른쪽)으로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이 있으며, 오른쪽(또는 왼쪽)으로 앞뒤에 챗방과 작은구들 그리고 그 옆에 정지가 배치되어 있다. 상방과 구들 앞에는 난간이 있으며 큰구들 옆에 굴목이 위치한다.

작은구들이 없는 세 칸집과 다른 점은 정지공간이 분화하여 작은구들과 챗방이 발생한 점이다. 이것도 상방을 중심으로 좌우 간살이 바뀌지기도 한다.

목안지역에서는 보통 챗방이 작은구들의 앞으로 놓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뒤에 위치한다. 정지앞문과 정지뒷문은 세 칸집과 그것의 위치, 규모, 용도에 있어서 같다. 정지와 챗방 사이에는 보통 벽이 없고 따라서 문도 없지만 규모가 큰 집에서는 벽도 있고 챗방문이 만들어진다.

화덕은 챗방의 바닥이 토상일 경우와 마루일 경우가 그 위치에 있어 다르다. 앞의 경우에는 집의 외측벽에 붙여서 챗방 맞은편에 설치하지만 뒤의 경우에는 작은구들 벽에 붙여서 만들어진다. 연료는 정지 앞쪽 외측벽에 붙여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구석에 놓는다. 물항은 정지 뒷문 바로 옆에 붙여 놓는다. 살레는 물항 옆에 놓이며 굵은 물통은 물항 앞에 놓고 사용한다.

챗방은 작은구들이 없는 세 칸집의 정지에 있던 식사공간이 독립하여 하나의 공간을 이룬 곳이다. 문은 상방과 동선을 연결하는 샛문과 작은구들에 출입하는 작은구들문이 있다. 정지와외 사이에는 벽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창은 바닥이 마루일 때 앞벽(또는 뒤벽)에 쌍여닫이의 조그만 창이 설치된다. 챗방에는 밥상이 한 쪽으로 치워져 있고 반찬을 담는 조그만 식기들이 구석에 놓여져 있다.

작은구들은 대략 바른 네모꼴로 벽장을 정지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출입문은 챗방바닥이 마루일 때는 챗방쪽과 상방으로 하고, 챗방의 바닥이 흙바닥일 때는 상방으로 낸다. 창은 뒷벽에 봉창 또는 쌍여닫이창을 설치한다. 난간은 대부분 마루로 되어 있으며 모든 설비 등이 세 칸집과 같다. 상방의 대문은 상방 중앙에 위치하고 호령창은 보통 설치되지 않는다. 뒷문과 고평문, 구들샛문은 세 칸집과 같다. 장방은 뒷문 옆에 설치한다. 큰구들, 고평 및 굴목은 배치, 규모, 이용 등에 있어 세 칸집과 같다.³²⁾

32) 김정가, 김홍식, “주택”,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p.292.

4. 제주시 귀덕마을 민가의 변용 특성

4.1 조사개요 및 대상가옥의 건축적 특성

4.1.1 조사대상 가옥의 일반적 특성

거주하는 실이 있는 살림채만을 대상으로 가옥의 배치형태를 분류하여 보면 일자, 이

표 6 조사대상가옥의 일반적인 특징

소유주	주소	안거리향	배치 형태	대지면적	건물 구분	건축 면적	정면 칸	구조	지붕	지붕재료	가구	건축 연대	부엌 상태	방수	취사 연료	난방 방식
남진규	718	서서북(5)	二字	351	안거리	47.79	4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40	입식	3	가스	기름
강성선	713	남향	二字	453	안거리	55.37	4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입식	4		
좌태은	787-2	동동북(24)	二字		안거리	54.71	4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2고주5량	1933	입식	2	가스	기름
고영식	788	남남동(40)	二字		안거리	43.7	3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50		2	가스	기름
고원환	786	동동북(10)	ㄱ자	274	안거리	43.57	4칸	목골조	모임	초즙		1933		3	가스	전기
김윤옥	777-2	동향	二字	410	안거리	50.77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2	가스	전기
남인화	770-2	동향	일자		안거리	32.63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41	입식	2		
김두행	767	동동남(3)	ㄱ자		안거리	42.23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33		2	가스	가스
이순민	761	북북동(5)	一자		안거리	40.87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2		
고경하	778	동동남(15)	二字		안거리	48.14	4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60		3		
강두하	775(a)	동동남(10)	二字		안거리	43.22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33		2		
이치진	1298	동동북(13)	일자	519	안거리	43.65	3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37		2		
고태원	1297	동동남(10)	二字	549	안거리	36.04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2고주5량	1933		2		
김중화	1290	북북동(3)	二字	463	안거리	41.53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2고주5량	1933		3		
조철용	1293	남남동(10)	ㄱ자	628	안거리	46.42	4칸	목골조	모임	일식기와	2고주5량	1935		3		
고경오	1300	동동북(10)	二字	407	안거리	51.88	4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33	입식	4	가스	기름
김중화	1301	동동북(5)	二字	400	안거리	56.96	4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85	입식	4	가스	기름
김임윤	1366-2	동동남(3)	二字	230	안거리	50.3	4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41		2	가스	기름
이태순	1346-5	동동북(37)	二字	462	안거리	84.1	4칸	목골조	모임	일식기와			입식	4	가스	기름
이두옥	1343-4	동동남(10)	二字	539	안거리	58.82	4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60	입식	3	가스	
김재진	1341	동동남(5)	一자	407	안거리	43.55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48	입식	4	가스	기름
강우진	752-2	남동(40)	二字	469	안거리	53.92	4칸	목골조	모임	일식기와	간이식7량	1966		4		
조인화	748	동동남(17)	一자	587	안거리	60.11	4칸	목골조	모임	일식기와		1960		5	장작	장작
이순여	1312	동동북(10)	一자	526	안거리	52.12	3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33	입식	3	가스	
조형표	1308	동동북(5)	二字	456	안거리	55.37	3칸	블럭조	모임	슬레이트		1933	입식	3	가스	기름
홍성화	1323-1	동동남(5)	二字	307	안거리	26.97	3칸	목골조	모임	초즙	2고주5량	1933	입식	3	가스	전기
홍성춘	1316-2	동동북(10)	一자	383	안거리	50.27	3칸	목골조	모임	슬레이트		1933		2		

자, 드물게 1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2자형이 주류를 이룬다. 2자형은 밖거리에 정지를 두거나 정지없이 구들과 헛간 부속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는 3칸형과 4칸형이 있는데, 찻방이 있는 4칸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칸형은 정지에 작은구들을 둔 것과 정지의 작은구들과 상방 사이에 마루를 설치한 2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안거리의 향은 동향을 중심으로 남동향과 북동향이 많으며 조사되었다.

4.2 공간구성요소의 이용현황

주거를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작은구들, 정지, 상방, 큰구들, 고팡, 찻방, 안방, 작은방, 마루 등 단위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의 사용여부와 증감을 살펴 주공간 구성요소의 변용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구성요소중 작은구들은 안주인이, 바깥구들은 바깥주인이 기거하던 공간으로 그 개수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으며, 상방과 정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수의 증감과 같은 물리적인 변용과 상관없이 각 실의 용도는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다. 구성요소의 물리적인 변용과 더불어 용도변용을 파악하기 위해 변용전후의 공간요소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가. 남무형가옥

이 가구는 부부와 2남1녀로 구성되었고 지금은 부부만 거주하고 자녀들은 제주시에 분가하여 살고 있다. 가옥은 안거리와 창고로 구성되었고 서북향으로 자리한 안거리를 마주보고 부속채인 창고가 자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배치형태는 2자형이다. 가옥은 정면 4칸 겹집형태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부엌, 찻방, 작은방, 마루, 안방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현재 사용하는 실은 안방과 마루 그리고 부엌이고 찻방과 작은방은 방치된 상태이다.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안방의 경우 부부의 침실, 식사 손님맞이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장소로 사용하고, 마루는 식사와 손님접대 그리고 부엌은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공간요소인 낭간은 작은 구들과 상방 큰구들에 통합되어 사라졌고 고팡 또한 굴묵과 함께 큰구들에 통합되어 사라졌다.

표 7 남무형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부엌	입식으로 개수됨.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챗방	창고로 사용	식사장소
작은방	사용하지 않음	주인 침실, 손님맞이
마루	식사, 손님접대	휴식, 손님접대
안방	부부침실, 손님맞이, 제사, 식사	자녀침실 및 공부방
보일러실	난방방식의 변화로 증축됨	처마

이와 같이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 중 고평, 챗방, 낭간 그리고 굴목 등은 큰구들, 상방 등으로 통합되어 사라지는 변용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당시 추가였던 지붕은 슬레이트로 바뀌었고 돌담과 벽체는 블록과 벽돌로 창문과 문은 현대식 목조와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다.

나. 좌태은가옥

이 가옥은 85세의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약 30여년전에 이사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1남 5녀를 두었지만 현재는 모두 출가한 상태이다. 고령으로 홀로 경제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옥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성되었고 동북향으로 자리한 안거리를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어 전체적인 배치형태는 2자형이다. 안거리는 4칸 일자형의 겹집으로 공간구성요소는 정지, 방, 부엌, 마루, 방, 고평, 낭간, 챗방을 구성되었다.

표 8 좌태은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재래식 부엌을 유지 사용하지 않음	식사준비 설거지
방(부엌옆)	주인의 거처, 손님맞이, 식사	주인의 거처
챗방(부엌)	챗방에 싱크 및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식사준비와 설거지, 빨래	식사
마루	여름식사	손님맞이
방	사용하지 않음	자녀거처, 공부방
고평	가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다.	곡식보관
낭간	마루와 방 전면만 남아 있음. 마당과 연결되는 통로	통로

각 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지의 경우 재래식부엌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얼마 전까지 설거지와 빨래를 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부엌 옆방의 경우 과거에는 작은구들로 불렀으나 개수 후 방으로 부르고 있는데 침실과 식사 등 주인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고 손님을 맞거나 제사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찻방의 식사가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현재는 싱크대와 가스렌지 등을 들여 식사준비와 설거지 빨래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루 옆방은 과거에는 큰구들이었으나 현재는 방으로 칭하고 있으며 방치된 상태이다. 고팡의 경우 곡식을 보관하던 장소였으나 현재 가사도구를 놓아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사용하는 공간요소는 감소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주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고영식가옥

이 가옥은 3남 1녀를 둔 부부가 가정으로 현재는 부부와 막내아들만 거주하고 있다. 가옥은 2차형으로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으며 안거리는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안거리는 아들이 밖거리는 부부 내외가 거처하고 있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은 작은방, 정지, 마루, 큰방, 골방이고, 밖거리는 욕실, 부엌, 방, 안방, 작업장, 냉장고방으로 구성되었다.

표 9 고영식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큰방	큰구들을 보수하여 사용중. 제사, 침실, 공부방	바깥주인거처, 제사
작은방	작은구들을 보수하여 사용중. 공부방,	안주인 거처, 손님맞이
부엌	재래식부엌이 남아 있으나 사용하지 않음	식사준비
마루		손님맞이 가족단란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보관
욕실	빨래, 샤워, 세면	-
부엌	식사준비, 식사, 설거지	-
안방	부부침실,	-
방	손님접대, 손님침실	-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안거리의 경우 아들의 생활공간으로 작은방과 마루를 침실과 공부방, 통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큰방은 제사를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골방과 정지는 방치하고 있다. 부부는 신축한 밖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안방과 방을 부부의 침실과 손님접대, 손님 침실로 사용하고 식사준비와 식사 설거지는 부엌에서 이루어지며 빨래와 세면 등 위생공간으로 욕실을 사용하고 있다.

라. 고원향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가옥으로 슬하에 두 형제가 있으나 모두 출가한 상태이다. 가옥은 안거리와 부속채인 헛간채로 구성되어 있고 안채는 동북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안거리와 헛간채는 직각방향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인 배치는 튼-자형이다. 안거리를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정지, 작은구들, 챗방, 마루, 고팡, 큰구들로 이루어졌으며, 헛간채의 경우 헛간과 방으로 구성되었다.

표 10 고원향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재래식부엌을 그대로 사용 식사준비	식사준비, 설거지
챗방	사용하지 않음	식사
작은구들	침실, 식사, 손님접대	주인침실, 손님접대
마루	식사	가족단란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큰구들	사용하지 않음	자녀공부
수돗가	빨래	-
낭간	마루를 걷어내고 시멘트로 개수, 통로	통로, 손님맞이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주인의 침실, 식사, 손님접대가 이루어지고, 식사는 재래식정지에서 준비하여 작은구들에서 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낭간의 경우 마루를 걷어내어 시멘트로 개수하여 현재는 현관으로 이용되며, 챗방, 고팡은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거주자인 할머니의 경우 혼자 거주하고 있고 또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구들과 정지를 주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공간요소는 대부분 방치된 상태이다.

마. 고원선가옥

이 가옥은 고령의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가옥으로 거주기간은 오래되지 않으며 가족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정부보조금으로 유지 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쇠막으로 구성되었고, 안거리와 밖거리는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고 문간은 밖거리의 우측에 밖거리와 나란히 배치되었다. 전체가옥의 배치는 2자형이고 안채는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표 11 고원선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창고, 사용하지 않음	식사준비
고팡	사용하지 않음	식사
작은구들	침실, 일상생활, 손님취침	주인 거처
상방	식사준비, 식사, 손님맞이	손님맞이
큰구들	사용하지 않음	곡식보관
낭간	통로공간	통로

각 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은구들이 주인의 침실과 식사, 손님의 침실로 사용되고, 정지의 경우 재래식으로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현재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싱크대와 취사도구를 상방에 설치하여 취사행위와 식사를 모두 상방에서 하고 있다. 또한 손님맞이 또한 상방에서 이루어져 주인의 주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외 안거리와 밖거리의 대부분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이다. 주인 혼자 거주하고 있고 노령으로 상방과 작은구들을 주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난방 또한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어 더욱 활용하는 공간이 적어지고 있다.

바. 남인화가옥

이 가옥은 72세의 노부와 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으로 올라가 없이 동네 동쪽 안길에 면해 있다. 가옥은 안거리와 창고로 구성되었고 창고는 안거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배치되었다. 안채는 정동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의 우측전면에 수돗가, 우측배면에 변소가 자리하고 있다.

안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요소로는 정지, 작은방, 마루, 큰방, 고팡으로 구성되었다. 각 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지의 경우 입식으로 개수하여 식사준비와 설거지, 식기

보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작은방은 주인의 거처로 주인침실, 식사, 손님맞이 등으로 사용되며, 큰방은 자녀의 침실, 손님 방문 시 침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루 또한 식사와 손님 접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팡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빨래와 설거지를 수돗가에서 하고 있다. 노부와 딸이 거주하고 있어 생활공간이 마루를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표 12 남인화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입식부엌으로 개수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작은방	작은구들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주인거처, 식사,	주인거처, 손님맞이
마루	식사, 손님접대	가족단란,
큰방	자녀거처, 손님취침	자녀방, 제사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수돗가	설거지, 빨래	-

사. 김이진

이 가옥은 할머니와 막내아들이 거주하는 세대로 슬하에 2남 5녀를 뒀지만 모두 출가해 나가고 막내아들과 둘만이 거주하고 있다. 안채와 창고와 헛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채를 기준으로 왼쪽에 창고, 정면에 안거리를 마주보고 헛간채가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안채의 배면에 텃밭이 오른쪽에는 텃밭과 수돗가가 자리하고 있다. 안채의 공간요소는 정지, 작은방, 마루, 고팡, 큰방으로 구성되었다.

표 13 김이진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큰방	제사, 손님맞이, 식사, 손님취침	자녀 거처
작은방	식사, 주인거처	주인거처, 손님접대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보관
마루	사용하지 않음	손님맞이
정지	입식으로 개수하여 사용,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설거지
수돗가	빨래	-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은구들이었던 큰방의 경우 제사, 손님맞이, 식사 등이 이

루어지고, 작은방은 주인의 거처로 사용되고 여름철 식사가 이루어진다. 정지의 경우 입식으로 개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사준비, 설거지, 식기와 주방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빨래는 수돗가에서 하고 있다.

아. 이성진가옥

이 가옥은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세대로 슬하에 5남2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가하고 현재는 혼자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부속채인 쇠막으로 구성되었고, 안거리를 중심으로 오른쪽 전면에 안거리와 직각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작은방, 정지, 마루, 큰구들, 고팡, 굴목, 낭간으로 구성되었다

표 14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작은방	주인침실, 손님맞이, 식사	주인침실, 제사
정지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마루	통로	식사, 손님맞이
큰구들	손님취침, 제사,	공부방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보관
굴목	사용하지 않음	난방
낭간	시멘트로 보수 통로	

각 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은구들을 개수하여 작은방으로 부르고 있으며 주인의 거처공간이다. 주인의 침실과 식사공간으로 활용되며 손님을 맞기도 한다. 정지는 싱크대와 가스렌지 등을 들여 입식으로 개수하였고 식사준비, 설거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굴들의 경우 제사를 모시고 손님의 취침공간으로 활용되고 식사는 주로 마루에서 하고 있다. 이 가옥은 공간요소 중 작은방과 정지 그리고 마루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할아버지 혼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입식과 작은방의 난방방식의 개조 등은 노령으로 인한 생활 편의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자. 홍해생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세대로 몇 달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

으나 작고하시고 현재 혼자 살고 있다. 가옥은 안거리 밖거리 그리고 헛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거리를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안거리를 기준으로 정면에 안거리와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고 안거리의 우측으로 헛간과 올래가 배치되었다. 안채의 공간구성요소는 고팡, 큰구들, 마루, 작은구들, 부엌이며 작은구들 정면에 물부엌이 자리하고 있다.

표 15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 저장, 창고
큰구들	사용하지 않음	자녀 침실, 제사
마루	통로	식사, 손님접대, 가족단란
부엌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작은구들	주인침실, 식사, 손님접대	주인침실,
물부엌	빨래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고팡과 큰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마루의 경우 현재 통로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부엌과 작은구들을 주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엌에서는 식사준비와 설거지를 작은구들은 침실과 식사 그리고 손님접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빨래는 작은 구들의 전면에 설치한 물부엌에서 하고 있다. 현재 작은구들이 전면에 부엌이 배면에 있지만 과거에는 부엌이 전면 작은구들이 배면에 위치해 있던 것을 개보수 과정에서 두 공간의 위치가 바뀌었고 부엌은 입식으로 작은구들의 난방방식이 바뀌었다.

차. 홍계숙가옥

홍계숙가옥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가옥으로 넓은 대지 안에 안거리만 북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의 전면과 우측면에는 텃밭이 자리하고 안채의 좌측 전면으로 올래가 위치한다. 안거리를 구성하는 공간요소로는 고팡, 큰방, 마루, 정지, 방으로 구성되었다.

표 16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고팡	사용하지 않음	창고, 곡식저장
큰방	사용하지 않음	주인거처, 제사
마루	손님접대	손님접대
정지	식사준비	식사준비
작은방	주인침실, 일상거처	주인거처

구성요소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할머니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정지와 인접한 방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요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지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등을 하는 공간으로 방의 경우 취침과 식사 그리고 티비를 보거나 하는 일상의 대부분을 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손님의 접대 또한 여기서 하고 있다.

카. 고영민가옥

이 가옥은 고영민씨 혼자 거주하는 가옥으로 가옥을 구성은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쇠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의 배치는 二 자형으로 안거리는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안거리와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밖거리의 좌측으로 올래와 쇠막이 배치되었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작은구들, 정지, 마루, 고팡, 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17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작은구들	주인 거처, 식사	주인거처
정지	식사준비	식사준비
마루	통로	손님맞이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창고
큰구들	사용하지 않음	바깥주인거처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은구들의 경우 취침과 식사 등 주인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사용되고 정지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가사도구의 수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루, 고팡, 큰구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수리해서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타. 김중화가옥

이 가옥은 할아버지 혼자 거주하는 가옥으로 가옥을 구성은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쇠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의 배치는 二 자형으로 안거리는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안거리와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밖거리와 직각방향으로 쇠막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ㄷ자형 배치라 할 수 있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로는 큰구들, 방, 상방,

작은구들, 정지로 이루어져 있다.

표 18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큰구들	사용하지 않음	주인거처
방	고팡을 방으로 개수	창고, 곡식저장
상방		손님맞이
작은구들	주인의 침실, 식사	주인거처
정지	배면을 증축하여 공간확장, 식사준비	식사준비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은구들의 경우 취침과 식사 등 주인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사용되고 정지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가사도구의 수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빨래와 설거지는 물부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큰구들, 방, 상방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파. 조철옹가옥

이 가옥은 부부와 아들 내외 그리고 미혼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성되었다. 부정형의 대지에 안거리가 북동향으로 자리하고 안거리를 마주보고 밖거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밖거리의 우측에는 대문가 부속채인 창고가 벽에 맞대어 자리해 전체적으로二字형의 배치형태이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부엌, 방, 챗방, 마루, 할머니방, 방으로 구성되고 밖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자녀방, 마루, 자녀방, 부엌으로 구성되었다.

표 19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부엌	식사준비, 식사	식사준비
작은방	주인침실, 손님접대	주인거처
챗방	통로공간, 수납공간	식사
마루	손님맞이	손님맞이, 가사
할머니방	큰구들을 개수하였음	바깥주인거처, 제사
방	고팡을 개수하여 사용함, 부인침실, 제사	창고, 자녀방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싱크대와 주방기구를 들여 입식으로 개수하여 사용하

는 공간으로 식사준비와 식사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주인의 거처의 경우 바깥주인은 작은 구들에서 안주인은 큰구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제사는 큰방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식사하던 찻방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손님은 대부분 마루에서 맞이하고 취침은 큰구들에서 하게 한다.

하. 고경오가옥

이 가옥은 부부와 2남 1녀로 구성된 세대로 현재 부부와 1남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가옥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성되어 있고 안거리는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안거리와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었으며 밖거리 우측에 올래와 창고가 배치되 전체적으로 2자형의 배치형태이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부엌, 방, 찻방, 마루, 할머니방, 방으로 구성되고 밖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창고와 방으로 구성되었다.

표 20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방	고팡을 방으로 개수 현재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제사방	제사, 손님취침	바깥주인거처, 제사
마루	식사, 손님맞이	손님맞이
안방	주인침실, 식사	안주인거처
찻방	사용하지 않음	식사
부엌	식사준비, 식사	식사준비
창고	가사도구 저장	-
수돗가	빨래	-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재래식부엌을 입식으로 개수하여 식사준비와 식사 그리고 수납의 용도로 사용되고 작은구들이었던 방을 개수하여 안방으로 부르고 있으며 주인의 거처와 식사가 행해지고 있다. 제사는 제사방에서 손님접대와 손님의 취침은 마루와 제사방에서 이루어지며 제사 시에는 제사방과 배면의 방을 통합하여 제사를 모신다. 빨래 등 물을 사용하는 일은 대부분 수돗가에서 이루어지고 증축한 창고는 가사도구들을 수납해두고 있다.

거. 김중화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가옥으로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가하고 현재는 홀로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헛간으로 안거리는 북동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안거리와 거리를 두고 헛간이 정면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안거리의 좌측과 전면에는 텃밭이 있고 그 사이에 울래가 배치되어 가옥의 배치는 一자형이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정지, 작은구들, 마루, 큰구들, 고팡, 낭간, 굴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면에 수돗가가 자리한다.

표 21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사용하지 않음	식사준비
작은구들	침실, 식사	주인거처
마루	취사, 수장	손님맞이
큰구들	사용하지 않음	주인거처, 제사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보관 창고
굴묵	사용하지 않음	난방
낭간	통로	통로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은구들에서 취침과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식사준비는 마루에서 석유곤로를 이용하고 빨래와 설거지 등 물을 사용하는 일은 배면의 수돗가에서 한다.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어 작은구들과 식사를 준비하는 마루 외의 공간은 모두 방치하고 있다.

너. 김갑생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가옥으로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의 배치는 二자형으로 안거리는 동향으로 자리하고 안거리와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울래가 안거리와 밖거리의 중앙 측면에 위치해 있다. 가옥의 공간구성요소로는 안거리의 경우 안방, 고팡, 상방, 작은방, 부엌, 물부엌, 보일러실이고 밖거리의 경우 창고, 방, 정지, 고팡으로 구성되었다.

표 22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안방	주인침실, 제사	바깥주인거처, 제사
고광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상방	통로	손님접대, 가족단란
작은방	사용하지 않음	안주인거처
부엌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물부엌	제사준비	-
보일러실	난방	-
수돗가	빨래	-

각 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안방의 경우 주인의 침실과 일상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사 시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부엌의 경우 식사준비와 설거지가 행해지고 식사는 안방에서 하고 있다. 또한 제사를 모실때 제사 준비는 물부엌에서 빨래는 수돗가에서 하고 있다. 할머니 혼자 기거하는 가옥으로 전체적으로 개개의 실의 사용빈도는 낮고 안방과 부엌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다. 이태순가옥

이 가옥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세대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으나 출가하고 현재는 두명이 살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창고로 구성되었고 북동향으로 자리한 안거리의 전면에 비스듬하게 창고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안거리의 부엌 전면에 물부엌을 증축하였고 우측에는 변소가 있으며 전체적인 배치의 형태는 二자형이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부엌, 보일러실, 안방, 허드렛방, 마루, 자녀방, 할머니방, 낭간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엌의 전면에 물부엌이 있다.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입식으로 개수하여 식사준비와 설거지가 행해지고 식사는 여름에는 마루 겨울에는 안방에서 이루어지며 안방은 주인의 일상거처공간이다. 아들은 자녀방에서 거처하고 있으며 제사나 손님의 침실로도 사용된다. 빨래는 물부엌에서 하고 있으며 할머니방과 허드렛방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고광과 굴뚝 등을 일상거처를 위한 공간으로 변용하여 사용하였으나 구성원의 감소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실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표 23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부엌	입식으로 개수, 식사준비, 설거지 수납	식사준비
보일러실	챗방을 개수 난방	식사
안방	주인침실, 식사	주인침실
허드렛방	고팡을 개수, 가사도구 수납	곡식저장
마루	여름식사, 손님접대	손님접대
자녀방	큰구들을 개수함, 제사와 손님침실	자녀거처, 제사
할머니방	사용하지 않음	할머니거처
낭간	현관	통로
물부엌	빨래	-

러. 이두옥가옥

이 가옥은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가가 살고 있는 세대로 2대 6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채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세대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으나 출가하고 현재는 모자만이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창고로 구성되었고 북동향으로 자리한 안거리의 전면에 안거리를 바라보고 평행하게 창고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창고의 좌측으로 울래를 지나 변소가 배치되어 전체적인 배치의 형태는 二자형이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정지, 안방, 챗방, 상방, 작은방, 고팡, 낭간으로 구성되었고 안거리의 배면에 통시가 있던 자리가 남아 있다.

표 24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식사준비	식사준비
안방	제사, 아들침실	주인침실, 제사
챗방	식사	식사
상방	손님맞이	손님맞이
작은방	손님침실	주인침실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낭간	통로	통로

각실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안방의 경우 아들의 침실과 공부 등 일상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작은방의 경우 어머니의 침실과 식사, 손님맞이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식사의 경우 준비는 정지에서, 식사는 작은방에서 하고 있다.

며. 김재진가옥

이 가옥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1명이 살고 있는 세대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세대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으나 출가하고 현재는 두 명이 살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창고로 구성되었고 동남향으로 자리한 안거리의 우측 전면에 비스듬하게 창고가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배치형태는 二자형이다.

안거리는 작은방, 부엌, 마루, 안방, 고팡, 창고로 구성되었고, 안거리의 측면에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다.

표 25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작은방	사용하지 않음	주인거처
부엌	입식으로 개수, 식사준비, 식사, 설거지	식사준비
마루	손님맞이, 취침, 식사,	식사
안방	제사, 취침	주인거처, 제사
고팡		곡식저장
창고		가제도구 저장
수돗가	빨래, 설거지	-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입식으로 개수하여 식사준비와 설거지가 행해지고 식사는 여름에는 마루 겨울에는 부엌에서 이루어지며 안방은 주인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다. 빨래는 수돗가에서 하고 간혹 설거지를 하기도 하며 여름에는 마루에서 식사와 취침을 하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고팡, 창고, 작은방 등은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안방, 마루, 부엌을 주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버. 이순여가옥

이 가옥은 이순여씨의 가옥으로 슬하에 2남4녀를 뒀으나 1남2녀는 출가하고 어머니와 1남2녀가 살고 있는 세대이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창고로 이루어졌고 안거리는 동북향으로 대지의 뒤쪽에 자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측 전면에 창고와 울레가 붙어 전체

의 배치는 7자 형태이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방, 부엌, 마루, 방으로 구성되었고 가옥의 우측면에 변소가 있다.

표 26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작은방	어머니 거처, 제사, 식사, 손님맞이	주인거처
부엌	식사준비	식사준비
마루	손님맞이, 식사	손님맞이 식사
방	고팡을 방으로 개조 아들거처	곡식보관
큰방	딸 거처	주인거처공부방, 제사
물부엌	빨래, 제사준비	-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재래식부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사준비가 이루어지고 식사는 주인방과 마루에서 행해지고 있다. 각 방은 어머니와 아들, 딸의 거처로 사용되고 마루는 여름철 식사와 손님을 맞이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엌의 배면에 물부엌을 증축하여 빨래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 조형표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와 딸이 거주하는 세대로 할머니는 슬하에 5녀를 두었으니 모두 출가하고 딸과 들만 살고 있는 가옥이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쇠막으로 구성되었고 대지의 뒤쪽에 동향으로 자리한 안채를 중심으로 전면 좌측에 밖거리 그 옆으로 나란히 쇠막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2자형의 배치형태를 하고 있다. 안거리의 공간 구성요소는 작은방, 부엌, 마루, 방, 찻방, 물부엌으로 구성되었고, 안거리의 좌측으로 변소가 있다.

표 27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작은방	주인거처, 손님맞이, 손님취침, 식사	주인거처,
부엌	식사준비, 설거지	식사준비
마루	식사	손님맞이
방	사용하지 않음	주인거처,
찻방	사용하지 않음	식사
물부엌	빨래	-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배면으로 확장하여 입식으로 개수하였고 식사준비와 설거지 그리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식사는 여름은 마루에서 겨울은 작은방에서 하고 있다. 작은방은 주인의 거처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손님맞이와 손님의 취침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큰방은 딸의 거처로 이용되고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며 빨래는 물부엌에서 하고 있다.

어. 송여량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세대로 슬하에 2남 4녀를 뒀으나 지금은 모두 나가고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문간으로 대지의 우측에 동남향으로 자리한 안거리를 중심으로 안거리를 마주보고 밖거리가 배치되고 안거리와 밖거리 중간에 문간이 자리해 전체적으로 튼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는 방, 부엌, 마루, 방, 찻방, 물부엌으로 구성되었고, 안거리의 좌측으로 변소가 있다.

표 28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식사준비	식사준비
작은방	주인침실, 식사	안주인, 딸거처
찻방	사용하지 않음	식사
마루	손님맞이, 제사	
안방	사용하지 않음	바깥주인 거처, 제사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창고

각 실의 사용실태는 부엌의 경우 시멘트로 바닥을 개수하였고 식사준비와 제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할머니의 거처는 작은방으로 식사와 취침등 대부분의 생활을 작은방에서 하고 있다. 마루의 경우 손님의 접대와 제사를 모시고 있는 공간이다.

저. 홍성춘가옥

이 가옥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세대로 자녀는 모두 출가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안거리만 있는 것으로 대지의 배면에 동북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안거리의

전면에 대문이 있고 전면 우측에 변소가 자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배치형태는 一자형이다. 안거리를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방, 정지, 마루, 방, 고팡, 물부엌으로 구성되었다.

표 29 가옥의 공간구성요소 이용현황

공간요소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작은방	주인거처, 식사, 가사일	주인거처
정지	식사준비	식사준비
마루	손님맞이, 여름철식사, 제사	단란공간
방	사용하지 않음	제사, 바깥주인거처
고팡	사용하지 않음	곡식저장, 창고
물부엌	설거지, 빨래	-

각 실의 사용실태는 정지의 경우 재래식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사준비를 하고 설거지와 빨래는 물부엌에서 하고 있다. 작은구들을 개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의 경우 할머니의 주생활공간으로 취침과 가사일 그리고 식사 등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마루의 경우 여름철 식사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손님을 맞거나 제사를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지와 방 이외의 공간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연구대상가옥의 각 실별 이용실태는 작은구들의 경우 안주인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식사와 손님접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옥이 가장 주된 공간요소이고, 큰구들의 경우 바깥주인의 거처로 제사를 모시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녀의 거처나 손님의 침실로 이용되고 있어 가정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상방의 경우 가사일과 단란공간, 손님접대가 주된 용도이고, 찻방과 고팡은 원래의 기능인 식사와 수장 외에 방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정지의 경우는 60%정도 입식화 되었으나 화장실과 욕실등 위생공간이 부가되지 않은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표 30 실별 이용실태

구분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정지	정지	식사준비, 창고, 설거지	식사준비, 설거지
	부엌	입식으로 개수됨, 식사준비, 식사, 설거지, 설거지 수납	식사준비
작은구들	작은구들	주인침실, 식사, 손님접대, 일상생활, 손님취침	주인침실, 손님접대
	작은방	공부방, 주인침실, 식사, 손님맞이, 일상거처, 손님침실, 어머니 거처, 제사, 가사일	주인침실, 손님맞이, 제사, 주인거처, 딸거처

구분		현재 이용실태	과거 이용실태
상방	상방	식사준비, 식사, 손님맞이, 통로	손님맞이, 가족단란
	마루	식사, 손님접대, 통로, 취사, 수장, 취침, 제사	휴식, 손님접대, 가족단란, 식사, 가사
큰구들	큰구들	손님취침, 제사	자녀공부, 곡식보관, 자녀침실, 제사, 주인거처
	안방	부부침실, 손님맞이, 제사, 식사, 주인침실, 아들침실	자녀침실 및 공부방, 안주인거처
	큰방	제사, 주인침실, 공부방, 자녀거처, 손님취침, 손님맞이, 식사, 딸 거처	주인거처, 제사, 자녀방, 자녀거처
	제사방	제사, 손님취침	바깥주인거처, 제사
	자녀방	큰구들을 개수함, 제사와 손님침실	자녀거처, 제사
챗방	챗방	창고, 통로공간, 수납공간, 식사	식사장소
	보일러실	챗방을 개수, 난방방식의 변화로 증축됨, 난방	처마, 식사
고팡	고팡	창고	곡식보관, 식사, 창고
	허드렛방	고팡을 개수, 가사도구 수납	곡식저장
	방	고팡을 방으로 개수, 주인거처, 손님맞이, 손님침실, 식사, 아들 거처	자녀거처, 공부방, 창고, 곡식저장, 주인거처, 제사, 바깥주인거처
낭간		통로, 현관	통로, 손님맞이
굴목		사용하지 않음	난방
증축	물부엌	빨래, 제사준비	-
	창고	가사도구 저장	가제도구 저장
	할머니방	사용하지 않음	할머니거처
수돗가		설거지, 빨래	-

4.3 행위에 따른 공간의 변용

공간구성요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각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행위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취침, 식사, 제사, 접객, 수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주된 공간을 파악해 봄으로써 주된 생

표 31 각종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가옥명	주인취침	식사준비	식사	제사	접객	손님취침	가족단란	설거지	개인생활	수장	빨래
남진규가옥	안방	부엌	마루/안방	안방	마루						
강성선가옥	안방	부엌									
좌태은가옥	작은구들	챗방	마루/작은구들		작은구들			챗방		고팡	
고영식가옥	큰방	부엌	부엌	큰방	작은방	작은방				큰방/ 작은방	
고원향가옥	작은구들	정지	마루/작은구들		작은구들						
김윤옥가옥	작은구들	상방	상방		상방	작은구들				정지	
남인화가옥	작은방	입식정지	마루/작은방		마루	큰방		입식정지	큰방		
김두행가옥	작은방	입식정지	작은방/큰방	큰방	큰방	큰방		입식정지	큰방		
이순민가옥	작은방	정지	작은방	큰구들	작은방	큰구들		정지			수돗가
고경하가옥	작은구들	정지	챗방								
강두하가옥	작은구들	부엌	작은구들		작은구들			부엌			물부엌
이치진가옥	작은방	정지	마루/작은방								
고태원가옥	작은구들	정지	작은구들								
김중화가옥	작은구들	정지	작은구들							정지	
조철웅가옥	작은방	정지	챗방								
고경오가옥	작은방	부엌	부엌		작은방				방(고팡)	챗방	
김중화가옥	안방	부엌	부엌/마루	제사방	마루	제사방					수돗가
김임문가옥	안방	부엌		안방				부엌			수돗가
이태순가옥	안방	부엌	마루/안방	자녀방	마루	자녀방	자녀방	부엌/자녀방	큰방	부엌/허드렛방	물부엌부엌/ 허드렛방
이두옥가옥	안방	부엌	챗방	안방	상방	작은방			안방	고팡	
김재진가옥	안방	부엌	마루/부엌	안방	마루			부엌			수돗가
강우진가옥	안방	부엌	챗방								
조인화가옥	작은방	부엌	챗방								
이순여가옥	작은방	부엌	마루/작은방	작은방	작은방/ 마루	작은방/ 마루	작은방/ 마루		큰방/방		물부엌
조형표가옥	작은방	부엌	마루/작은방		작은방	작은방			방		물부엌
홍성화가옥	작은방	정지	작은방	마루	마루						
홍성춘가옥	작은방	정지	마루/작은방		마루			물부엌			물부엌

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변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발생하는 행위를 취침, 가사노동,接客 및 단란, 개인생활, 수납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31>은 생활행위가 발생하는 실을 정리한 것이다.

가. 취침행위

주생활 행위 중 가장 필요하고 변화가 적은 것은 취침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것이다. 조사대상가옥의 경우 바깥주인은 큰구들에서 안주인은 작은구들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취침공간의 변용은 난방방식의 변화와 인접요소와의 통합을 통해 방을 확장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취침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용으로 생겨난 방이 기존의 작은구들과 큰구들의 위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변용 후 이름이 작은방 안방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 취침행위는 주로 작은방과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부부가 살고 있는 경우나 노인 혼자 사는 경우 작은방 즉 작은구들을 이용하고 있다.

표 32 취침행위의 장소

취침공간	작은방	작은구들	안방(작은구들)	안방(큰구들)	큰방	방
가구수	11	7	5	3	1	
비율	41	26	18.5	11	3.5	

<표 32> 은 취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낸 것으로 작은방, 작은구들, 안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작은방과 안방은 작은구들이 있던 위치에 변용된 것으로 약 85%에 달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인의 침실은 작은구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자녀들이 기거하는 경우 대부분 큰방에서 취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가사행위

가사 노동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식사준비와 난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노동은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변화시키고 난방을 연탄, 기름으로 바꾸면서 가사노동의 형태는 변화를 가져왔다.

부엌의 경우 조사대상 27개 가옥중 14개 가옥이 입식으로 개수 하였고 2개 가옥은 식사공간이던 찻방을 개수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표 33 가사행위의 장소

식사행위	마루	안방	부엌	작은구들	작은방	상방	큰방	챗방
여름	11		1					
겨울		2	1	2	5		1	
4계절			2	3	2	1		5

1곳의 가옥은 마루에 석유곤로와 싱크대를 설치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 70%의 가옥이 부엌의 내부화하였다. 이와 같은 부엌의 내부화와 동시에 취사도구는 가스렌지로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바뀌었다.

식사공간은 정지에서 음식을 준비해 정지 옆에 있는 챗방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챗방이 방으로 바뀌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옥이 많아졌고 주로 식사는 작은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마루에서 주로 한다. 또한 부엌이 입식화되고 공간이 확장되면서 부엌에서 준비해서 부엌에서 식사하는 가옥도 생겨났다. 이와 같이 식사행위는 주로 작은구들, 마루 부엌에서 행해지고 있어 가사행위의 대부분이 부엌, 작은구들 그리고 마루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3.1 가족단란 및 접객행위

가족 단란은 여전히 작은구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는 큰구들 또는 마루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방을 확장하거나 마루에 난방을 설치하여 단란공간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명절과 제사 시에 모이는 제사공간을 가족의 단란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제사를 모시는 공간은 바깥주인이 거처하던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바깥주인이 거처하던 큰구들은 대부분 개수되어 안방, 큰방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고 있으며 그 공간들은 가족구성원의 감소로 제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실이 많아지고 있다.

표 34 가족단란행위 및 접객행위의 장소

구분	마루	안방	부엌	작은구들	작은방	상방	큰방	챗방
제사	1	4			1		4	
접객	8			6	8	1		
손님취침		2		1	4		6	

명절과 제사 그리고 그 밖의 손님 접객의 공간은 여주인의 일상거처 공간인 작은구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웃이나 친구의 경우 상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손님의 경우 제사를 모시던 큰방이나 안방에서 접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손님이 자고 가는 공간으로는 제사를 모시는 공간인 큰방, 큰구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조상을 모시는 공간으로 귀한사람이 큰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많은 가옥이 이에 해당한다.

다. 개인생활행위

주인의 휴식 장소는 티비나 라디오가 있는 작은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족 구성형태가 노인혼자, 노부부가 대부분으로 과거의 자녀의 공간과 자녀의 공부공간은 모두 파악하긴 어려웠으나 자녀의 개인 공간으로는 큰구들과 고팡이나 칫방을 방으로 개수한 공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35 개인생활행위의 장소

구분	마루	안방	작은구들	작은방	상방	큰방	방
개인생활		3	4	2		3	
공부방		2	3	3		4	1

그러나 조사대상 주거의 구조는 개인생활을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작은구들과 큰구들에서 일상거처 개인생활 제사 접객 등의 다양한 생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수납행위

연구대상가옥에 나타난 수납공간은 과거 고팡, 물팡 등이 대표적인 공간이다. 고팡의 경우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로 큰구들 배면에 위치하고 있고 물팡은 물질에 사용했던 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정지의 전면이나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0 수납행위의 장소

구분	마루	안방	정지	작은구들	작은방	물팡	고팡	칫방
수납	1		3		1	1	6	

물팡의 경우는 대부분 인접 요소를 확장하는 과정에 사라졌으며 한 가옥만이 아직 정지의 전면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납 공간의 원래 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일상용품을 수납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필요시 창고를 증축하여 보관하고 있다. 또한 수납 물품의 종류도 바뀌고 수납의 형태도 바뀜에 따라 더 많은 공간과 다른 수납의 형태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가사용품은 기존 수납공간으로는 부족하여 안방, 마루, 방 등 사용하지 않은 방까지 확대되어 수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비어있는 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4 구성요소별 변용

연구대상 가옥을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정지, 작은구들, 챗방, 상방, 큰구들, 고팡, 굴목, 낭간 등의 단위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단위공간의 증가와 감소, 확장과 통합 그리고 사용여부 등을 살펴 주공간의 변용특성과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공간요소 중 정지, 작은구들, 상방, 챗방 등이 변용되었고 그 변용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6 구성요소별 변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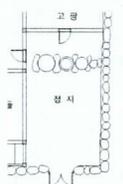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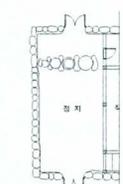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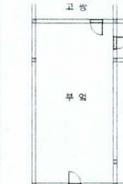
소유주	정지	작은구들	챗방	상방	큰구들	고팡	굴목	낭간
남진규	확장/입식	확장(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고팡)	없어짐	없어짐	축소
강성선	축소/입식	재분할(정지)	확장	확장	재분할	없어짐	없어짐	없어짐
좌태은	입식	확장(낭간)	용도(입식부엌)	유지	보일러	유지	유지	축소
고영식	유지	유지	유지					
고원향	유지	유지	유지					
김윤옥	유지	유지	유지					
남인화	확장/입식	확장(낭간)	없음	유지	확장(낭간)	유지	용도(보일러)	
김두행	유지							
이순민	입식	확장(낭간)	없음	유지	보일러	유지	유지	축소
고경하	입식	확장(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고팡)	없어짐	없어짐	축소
강두하	입식	확장(낭간)	없음	유지	통합(굴목낭간)	유지	없어짐	축소
이치진	입식	보일러	없음	유지	통합(굴목낭간)	유지	없어짐	축소
고태원	입식	확장(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낭간)	유지	없어짐	축소
김중화	입식	확장(낭간)	없음	유지	통합(낭간)	용도(방)	유지	축소
조철웅	입식	유지	유지	유지	통합(낭간)	유지	유지	축소
고경오	입식	통합(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낭간)	용도(방)	없어짐	축소
김중화	입식	통합(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낭간)	용도(방)	없어짐	축소
김임문	입식,이동	확장(정지낭간)	확장/용도(물부엌)	유지	통합(굴목낭간)	유지	없어짐	축소
이태순	입식	확장(낭간)	용도(방)	유지	통합(굴목낭간)/확장	용도(보일러)	없어짐	축소
이두옥	유지	확장(낭간)	유지	유지	보일러	유지	유지	축소
김재진	유지	유지						
강우진	분할(고팡)	통합(낭간)	유지	유지	보일러	용도(방)	유지	축소
조인학	분할(방)	보일러	유지	유지	통합(굴목낭간)	용도(방)	없어짐	축소
이순어	확장/입식	통합(낭간)	없음	유지	통합(낭간)	용도(방)	용도(창고)	축소
조형표	확장/입식	통합(낭간)	없음	유지	통합(굴목낭간)	용도(방)	없어짐	축소
홍성화	입식	확장(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낭간)	유지	없어짐	축소
홍성춘	입식	통합(낭간)	유지	유지	통합(굴목낭간)	유지	없어짐	축소

4.4.1 정지

정지는 가옥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작은구들과 접해있는 요소로 20가구의 정지에서 변용이 발생하였다. 변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면적과 형태를 유지하고 입식으로 개수한 경우와 정지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간을 확장한 경우 그리고 정지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변용으로 정지를 분할하여 다른 공간요소를 들이는 경우가 나타났다.

먼저 면적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입식으로 개수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정지를 마루나 구들의 높이로 바닥을 올리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정지공간을 내부화하는 변용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옥은 13채가 해당된다. 그 중 김중화, 이태선, 고태원 등의 가옥은 재래식 정지의 바닥을 다른 공간요소와 같은 높이로 보수하고 온수 온돌로 난방을 바꾸었으며 싱크대와 가스렌지 등의 편의시설을 들여 정지공간을 내부화 하였다. 이는 거주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노부부 또는 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대응하여 생활편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자의 주생활 공간이 부엌과 작은 구들로 한정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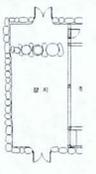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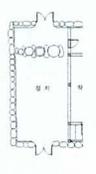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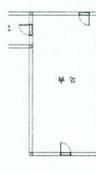
표 37 정지의 변용 1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개수, 급배수 설비	좌태은, 이순민, 고경하, 강두하, 이치진, 고태원, 김중화, 조철웅, 고경오, 김중화, 이태선, 홍성화, 홍성춘	11
이태선가옥		고태원가옥				

다음은 정지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용으로 정지를 전면 또는 배면으로 넓히는 변용으로 정지를 다른 실과 같은 높이로 증가시키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입식화 하였다. 이와 같은 변용은 면적을 증가시켜 정지를 가족의 단란공간과 식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의 절감과 식사공간인 찻방을 다른 용도로 변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변용은 4개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남진규 조영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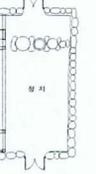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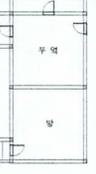
가옥의 경우 정지를 전면으로 확장시키고 입식으로 개수한 경우로 입식부엌에서 식사 준비와 식사행위 그리고 접객행위 등 부엌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변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확장형의 변용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단위공간의 면적 증가뿐만 아니라 안거리의 평면형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일자형의 평면이 ㄱ자형 또는 돌출형으로 변하게 한다.

표 38 정지의 변용 2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전면으로 확장시킴 입식부엌으로 개수	김갑생, 강성선, 남진규, 남인화, 이순여, 조형표	6
남진규가옥		조형표가옥				

다음으로 정지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변용의 형태로 정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공간 요소를 추가하였다. 정지를 입식부엌으로 개수하면서 정지의 배면에 고팡을 들이거나 안방의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지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등의 변용이 발생하였다. 정지는 입식으로 개수되었고 식사준비공간만이 요구되는 정지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인 일상거처공간과 수장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었다.

표 39 정지의 변용 3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부엌의 전면은 방으로 배면은 입식부엌으로 개수	조인학	1
조인학가옥						

이와 같은 변용이 발생한 가옥은 3개로 그중 강우진가옥은 정지를 입식으로 개수하면서 배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수장공간인 고팡을 들었다. 또 조인학가옥의 경우 정지를 입

식으로 개수하는 과정에서 정지를 반으로 나누어 전면에 방을 들이고 정지의 배면에 고팡을 증축했다. 전면의 방은 낭간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부엌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며 개수된 부엌의 경우 마당과 췌방 증축된 고팡과 연결하여 식사준비와 식사행위 그리고 수납공간을 연결시켜 가사동선을 최소화하였다.

4.4.2 작은구들

작은구들은 안거리 단부의 정지 다음에 위치한 요소로 주로 안주인이 기거하는 공간이다. 작은구들 중 변용이 발생하지 않는 가옥은 조철웅, 김재진, 고영식가옥을 비롯해서 6채이고 변용이 발생한 가옥은 21채로 그 변용의 유형은 먼저 평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난방방식만을 변용한 경우와 작은구들과 인접한 공간요소를 통합하여 면적을 증가시킨 경우 그리고 인접한 공간요소와 통합 후에 재분할한 경우로 총 3가지 변용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평면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난방방식만을 변용한 경우로 채래식 부엌이 입식으로 바뀌어 부엌 내에 있던 굴목이 사라지고 난방은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로 대체되었고 이에 맞춰 온수온돌로 난방이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용이 발생한 가옥은 이치진, 조인화가옥이다.

표 40 작은구들의 변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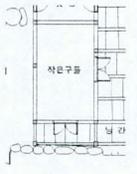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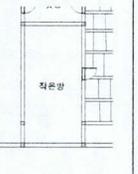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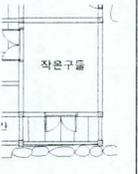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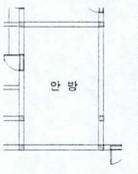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평면형태는 변용하지 않고 난방방식을 변용함	조인학, 이치진, 고향원	3
조인화가옥						

다음으로 작은구들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용으로 작은구들과 인접한 구성요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었다. 이러한 변용은 17채의 가옥에서 나타났으며 주인의 거처공간의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작은구들과 인접한 공간요소로는 낭간과 췌방 그리고 상방으로 이중 낭간을 통합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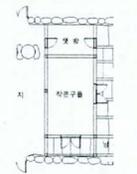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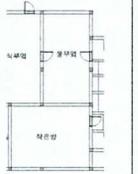
용이 가장 일반적이다. 통합을 통해 면적을 증가시킨 가옥 중 남인화, 이여순, 조형표를 포함해 16개 가옥은 작은구들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여 작은구들의 면적을 증가시켰다.

표 41 작은구들의 변용 2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전면의 낭간이나 측면의 굴목을 통합하여 면적 증가	강우진, 고경오, 김중화, 홍성춘, 이순여, 조형표, 남진규, 이두옥, 좌태은, 이순민, 고경향, 강두하, 고태원, 김중화, 이태순, 홍성화, 남인화	17
김중화가옥		이태순가옥				

다음으로 작은구들과 인접한 공간요소를 통합하여 재분할 한 경우로 기존의 공간요소의 배치와 평면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변용으로 2개의 가옥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임문가옥의 경우 정지와 작은구들 그리고 챗방을 동시에 변용시킨 경우로 정지, 챗방, 낭간 그리고 작은 구들이 포함된 가옥의 좌측을 한꺼번에 변용시킨 경우로 기존의 공간을 무시한 채 배면의 두칸에 입식부엌과 챗방을 들이고 전면에는 보일러실과 작은구들을 설치해 기존의 평면 형태를 변용시켰다.

표 42 작은구들의 변용 3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인접공간을통합 후 재분할하여 면적과 형태를 변용시킴	김갑생, 강성선	2
김갑생가옥						

작은구들에 나타난 대부분의 변용은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전면의 낭간이 가장 많이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마당에서 낭간을 통해 작은구들로 진입하던 동선이 마당에서 낭간, 상방을 거쳐 작은구들로 진입하는 공간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변용현상은 작은구들의 용도가 주인의 일상거처와 손님접대, 가사일 등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보다 넓은 면적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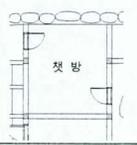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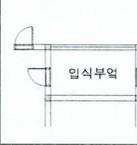
4.4.3 챗방

챗방은 정지와 작은구들과 인접해 있는 공간구성요소로 연구대상 가옥 중 챗방이 있는 가옥은 20채이다. 주로 정지에서 바로 연결되며 식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대부분 마루를 깔았고 일부 흙바닥에 장판이 설치된 경우도 있다.

챗방에서 나타난 변용은 두 가지 형태로 먼저 챗방의 형태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cot방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변용이다.

용도를 변경한 경우로 챗방의 마루를 걷어 내고 방이나 입식부엌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변용은 2개의 가옥에서 나타났으며 이태순가옥의 경우 챗방을 개수하여 자녀방을 들인 경우로 가족구성원이 증가하여 일상거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수된 경우이다. 다음은 좌태은 가옥으로 챗방의 마루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급배수설비를 마루 아래에 설치하고 싱크대와 전자레인지를 들여 입식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가옥의 경우 정지는 재래식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챗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상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김갑생가옥은 작은구들 정지, 챗방을 통합하여 다시 재분할하는 방법으로 챗방을 물부엌으로 변용한 경우로 식사행위는 마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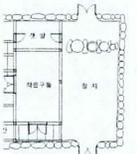
표 43 챗방의 변용 1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개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함.	이태순, 좌태은	2
이태순가옥		좌태은가옥				

다음은 챗방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변용으로 안거리의 배면으로 확장시켜 소요공간을 확보한 가옥으로 강성선가옥의 경우 챗방을 배면으로 확장하여 면적을 증가시켰다. 이 가옥은 부엌을 입식으로 개수하는 과정에 부엌과 챗방을 모두 확장하여 식사 준비와 식

사행위를 가까운 공간에서 행할 수 있도록 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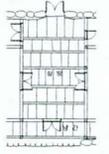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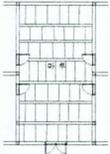
표 44 책방의 변용 2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안거리의 배면으로 확장하여 면적을 넓힘	강성신	1
강성신가옥						

4.4.4 상방

상방은 가옥의 중심에 자리한 요소로 낭간을 통해 접근하게 되며 작은구들과 큰구들을 연결시키는 공간이다. 상방의 경우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상방이 변용된 가옥은 1채로 강선선가옥이다. 이 가옥의 경우 상방 전면의 낭간을 상방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확장시켰다. 이와 같은 변용으로 상방은 마루로 바뀌어 불리고 낭간을 통해 각 방으로 진입이 가능하였으나 요소의 확장으로 낭간이 사라져 각 실은 모두 마루를 통해 진입하게 되는 공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표 45 상방의 변용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여 상방의 면적을 증가시킴	강성신	1
강성신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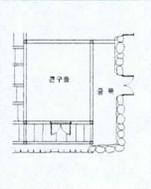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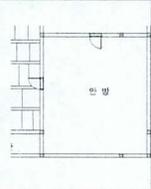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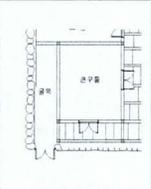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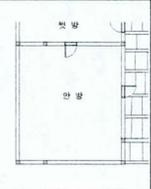
4.4.5 큰구들

큰구들은 정지와 작은구들의 반대편의 끝에 자리하고 있는 요소로 바깥주인이 주로 사용하던 공간요소이다. 큰구들의 경우 19개 가옥에서 변용이 발생하였고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큰구들과 인접한 공간을 통합하는 변용과 인접공간을 통합하고 전면이나 측면

으로 증축한 변용 그리고 인근요소와 통합한 후 재분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큰구들과 인접한 공간을 흡수 통합하여 큰구들의 공간을 넓히는 변용으로 전면의 낭간과 우측 또는 좌측의 굴목을 통합하여 면적을 넓히는 변용이다. 큰구들의 변용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굴목과 낭간을 통합하거나, 낭간만을 통합하거나 고팡과 굴목을 통합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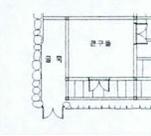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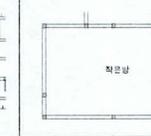
표 46 큰구들의 변용 1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여 상방의 면적을 증가시킴	남인화, 김중화, 조철웅, 이순여, 남진규, 고경하, 강두하, 이치진, 고태원, 고경오, 김중화, 김갑생, 조인학, 조형표, 홍성화, 홍성춘	16
김중화가옥		조인학가옥				

이와 같은 변용은 16개 가옥에서 발생하였고 남인화, 김중화, 조철웅, 이순여 가옥은 큰구들과 낭간을 통합하였고, 남진규, 고경하가옥은 큰구들, 굴목, 고팡을 통합하였으며, 강두하, 이치진, 고태원, 고경오, 김중화, 김갑생, 조인학, 조형표, 홍성화, 홍성춘가옥은 큰구들, 굴목, 낭간을 통합하여 면적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변용현상은 난방 방식의 변화에 따라 굴목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가족의 단란공간과 제사를 모시는 공간 그리고 가구의 수납 등 소요면적 확보의 필요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큰구들과 인접한 공간을 통합하고 추가로 전면과 측면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태순가옥의 경우 낭간과 굴목을 포함하여 전면으로 약 1m가량 돌출시켜 큰구들의 면적을 증가시켰다. 가족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넓은 공간이 요구되어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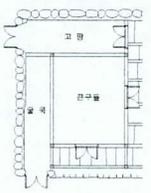
표 47 큰구들의 변용 2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인접한 공간요소와 통합하고 추가로 확장시켜 면적을 증가시킴	이태순	1
이태순가옥						

노부부만 거주하는 관계로 큰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작은구들이 일상거처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큰구들과 인접한 공간요소를 통합하여 다시 분할하는 방법으로 변용한 것으로 가족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거처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변용이 발생한 가옥은 강성신가옥으로 큰구들과 인접한 고팡, 굴목 그리고 낭간을 통합하고 이를 다시 분할한 것으로 같은 규모의 방을 겹집형태로 앞뒤에 들였으며 분할된 방을 각각 작은방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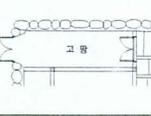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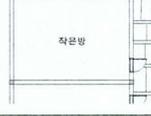
표 48 큰구들의 변용 3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인접공간을 통합한 후 재분할	강성신	1
강성신가옥						

4.4.6 고팡

고팡의 경우는 주로 큰구들의 배면에 위치한 공간요소로 곡식을 저장하는 수납공간이다. 고팡에서 나타나는 변용은 인접한 구성요소에 통합되어 없어지거나 개수하여 다른 용도로 바뀌는 변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팡의 변용은 가족의 증가에 따라 방의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방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된 일상거처공간은 가족구성원의 감소로 인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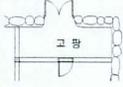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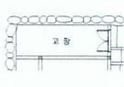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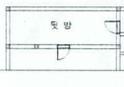
표 49 고팡의 변용 1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큰구들로 통합되어 고팡이 사라짐	강성신, 남진규, 고경하	3
강성신가옥						

고광이 없어진 가옥은 3개로 강선선, 남진규, 고경하 가옥으로 큰구들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큰구들에 통합되어 없어지게 되었다.

용도가 변경된 가옥은 8개 가옥으로 강우진, 고경오, 김중화, 조인학, 조형표, 김중화, 이순여, 이태순가옥이다. 이 중 이태순가옥은 고광에 보일러와 기름탱크를 설치하여 보일러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나머지 7개의 가옥은 제사방, 자녀방, 방 등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표 50 고광의 변용 2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여 상방의 면적을 증가시킴	강우진, 고경오, 김중화, 조인학, 조형표, 김중화, 이순여, 이태순	8
이태순가옥		조인학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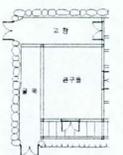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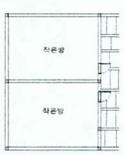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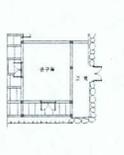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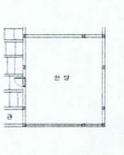
4.4.7 굴목

굴목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아궁이와 장작을 쌓아둘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주로 큰구들에 난방을 위한 공간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큰구들의 측면이나 배면에 위치하고 큰구들의 반침부분에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굴목의 변용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광과 동일하게 다른공간에 포함되어 사라지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남인화, 이순여가옥으로 남인화 가옥의 경우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해 보일러와 기름통을 저장하는 보일러실로 바꾸어 사용하고 남인화 가옥의 경우는 가사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굴목이 없어진 가옥은 강성선, 남진규, 고경하, 강두하, 이치진, 고태원, 고경오, 김중화, 김갑생, 조인학, 조형표, 홍성화, 홍성춘, 이태순가옥으로 큰구들에 통합하여 큰구들의 면적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굴목의 변용은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해 재래식 난방공간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일상거처공간의 면적확보를 위해 행해졌다.

표 51 골목의 변용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변용전	변용후			
				평면의 형태는 유지하고 용도를 변경시킴	강성선, 남진규, 고경하, 강두하, 이치진, 고태원, 고경오, 김중화, 김갑생, 조인학, 조형표, 홍성화, 홍성춘, 이태순	14
남인화가옥		남진규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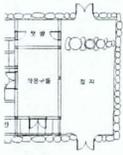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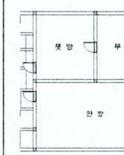
4.4.8 낭간

낭간의 경우 가옥의 전면 퇴칸으로 마루를 깔아 마당에서 각 실 즉, 작은구들, 상방, 큰 구들로 각각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공간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일상거 처공간의 면적 증가라는 필요에 의해 대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낭간의 변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실의 면적 확보를 위해 모두 통합되어 없어진 경우와 일부분만 통합되고 남아 낭간이 축소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없어진 경우는 강성신가옥으로 큰구들, 상방, 작은구들을 전면의 낭간을 포함시켜 확장하여 낭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낭간을 통해 각각의 실로 바로 접근이 가능했던 공간구조가 마당에서 마루로 진입하여 각실로 접근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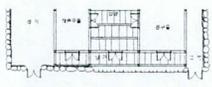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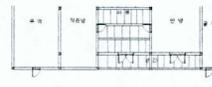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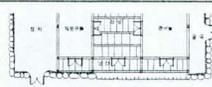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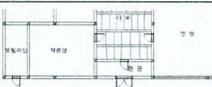
표 52 낭간의 변용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공간의 확장으로 낭간이 사라짐	강성신	1
강성신가옥						

낭간이 축소된 가옥은 20개 가옥으로 큰구들과 작은구들을 전면으로 확장하고 상방부분의 낭간을 남겨놓은 형태의 변용으로 기존의 공간구조가 마루를 중심으로 양분되는 다시 말해 상방을 중심으로 한쪽은 정지와 작은구들, 반대쪽은 큰구들과 방, 큰구들과 고평

으로 나누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표 53 낭간의 변용 2

변용 사례		변용내용	대상가옥	개소
변용전	변용후			
		요소의 통합으로 낭간이 축소됨	조인학, 이치진, 조철웅, 김갑생, 강우진, 고경오, 김중화, 홍성춘, 이순여, 조형표, 남진규이두옥, 좌태은, 이순민, 고경하, 강두하, 고태원, 김중화, 이태순, 홍성화	20
				

이러한 변용은 가족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개실의 면적 증가와 방의 개수의 필요로 인해 발생되었고 다시 구성원의 감소함에 따라 마루를 중심으로 정지가 있는 공간만을 이용하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실의 변용현상을 정리해보면 먼저 정지의 경우 재래식을 입식으로 바꾸어 변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와 더불어 배면을 분할하여 고팡을 들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작은구들의 경우는 인접한 다른 공간을 통합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변용이 주로 발생하였고 특히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큰구들 또한 인접한 요소인 낭간과 굴목을 통합하여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팡과 챗방의 경우 다른 공간에 통합되거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이나 부엌 등으로 용도가 바뀌는 변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공간 요소는 다양한 변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별 변용빈도는 작은구들, 큰구들(22)>정지, 낭간(21)>고팡(11)>챗방(6)>상방(4)순으로 작은구들, 큰구들 그리고 부엌을 중심으로 변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용의 주된 내용은 실의 통합과 확장 그리고 용도가 변경을 통한 실의 개수와 면적을 확보하였고, 설비기술의 도입으로 난방방식과 입식부엌으로 개수가 진행되어 공간활용의 기능성과 생활 편의성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변용이 진행되었다.

4.5 평면형태의 변용

평면형태는 지역별 민가의 계통성분류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대상가옥의 평면형태는 제주지역 가옥의 전통적인 형태인 겹집 一자형이고, 정면의 칸수는 3칸과 4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상가옥 27개 중 22개의 가옥에서 변용이 발생되었다.

평면 변용은 공간구성요소가 확장과 통합 부가 등의 방법으로 변용됨에 따라 평면의 형태와 구조가 변용되는 것으로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평면변용은 내부조정형, 부가형, 혼합형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54. 평면형태의 변용유형과 특징

구분	유형	변용사례			변용가옥	특징
		지정당시	조사당시	가옥 내용		
내부조정형				좌태은 작은구들화장, 찻방, 입식부엌화	(10개소)	내부의 벽체를 철거하거나 또는 신설하여 실의 용도와 더불어 간살잡기가 변함.
				고경오 고광용도변경, 큰구들, 통합, 작은구들, 통합		
부가형				이순민 정지의 왼쪽에 다용도실 확보	이순민 (1개소)	기존평면의 측면에 부속공간을 덧붙여 “—”자형 평면이 “ㄱ”자 변함.
혼합형				김갑생 부엌, 찻방, 작은구들, 재조정 및 배면확장	(11개소)	내부조정형과 부가형이 혼합된 형으로 내부와 외부의 평면형이 함께 변함.
				이태순 큰구들, 통합, 창고증축, 고광용도변경		

먼저 내부조정형으로 대상가옥 중 10개의 가옥이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간구성요소가 상호 통합되거나 여러 공간으로 분할하는 변용이 발생되나 평면의 규모와 형태는 변하지 않고 일자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가옥은 강성선, 좌태은 김윤

옥, 고경하, 강두하, 이치진, 고경오, 이두옥, 강우진, 홍성화가옥이다.

표 55 좌태은가옥의 변용 사례 [내부조정형]

구분	도면	사진
변용전		
변용후		

이 중 좌태은가옥의 경우를 살펴보면 용도변경과 통합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정지는 재래식으로 유지시키고 찻방에 싱크대와 가스레인을 설치하여 입식부엌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작은구들의 경우 전면의 낭간과 통합하여 면적을 증가시켰고 전면의 출입문은 막아 벽을 만들었으며 주 출입은 상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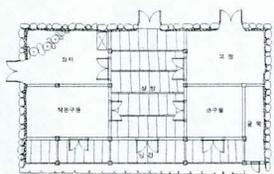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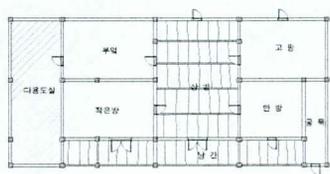
고경오가옥의 경우 인접 공간을 통합하여 평면이 변용된 것으로 정지는 입식부엌으로 개수하였고, 작은구들의 전면 낭간을 통합하여 공간을 확장시켰으며 큰구들은 전면의 낭

표 56 고경오가옥의 변용 사례 [내부조정형]

구분	도면	사진
변용전		
변용후		

간과 측면의 굴목을 통합하여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주 출입은 상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고팡의 경우 바닥을 높여 방으로 변용하였으며 외부에서 진입하던 출입구를 상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변용은 각실의 출입이 독립적으로 행해졌으나 낭간이 사라지면서 각실의 출입은 상방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57 이민순가옥의 변용사례 [부가형]

구분	도면	사진
변용전		
변용후		

다음은 부가형의 경우로 원래의 일자형 평면의 측면 또는 배면으로 부속공간 또는 방을 증축하여 평면 형태를 ㄱ자 또는 요철형으로 변용시킨 것이며 대상가옥 중 1개의 가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민순가옥의 경우 정지를 입식으로 변용하고 난방방식을 온수온돌로 바꾸었으나 내부의 평면은 변용시키지 않고 유지하였다. 그러나 가옥의 우측면에 다용도실을 추가하여 3칸이던 평면을 4칸으로 증축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혼합형으로 내부조정형과 부가형이 하나의 평면에 나타나는 경우로 공간요소가 통합하거나 확장되어 평면을 외부로 돌출시키거나 물부엌이나 다용도실 같은 부속공간이 증축되어 평면의 형태를 ㄱ자형이나 요철형으로 변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옥은 11개 가옥으로 남진규, 남인화, 조형표, 김갑생, 이순여, 김중화, 김중화, 이태순, 김재진, 조인학, 홍성춘가옥이 해당된다. 이 중 남진규가옥의 경우 정지를 입식부엌으로 개수하는 과정에서 정지의 전면을 약 1.5m 확장하여 작은방의 전면에서 측면으

로 진입하도록 개수하였고, 작은 구들의 경우는 작은 구들의 전면 낭간을 통합하여 면적을 넓혔으며 큰구들의 경우 낭간과 배면의 고평 그리고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여 방의 규모를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해 큰구들의 측면에서 전면으로 이어지는 보일러실을 증축하여 전체적인 평면의 형태를 요철형으로 변용하였다.

표 58 남진구가옥의 변용 사례 [혼합형]

구분	도면	사진
변용 전		
변용 후		

조인학가옥의 경우 통합, 부가, 용도변경 그리고 분할이 모두 발생한 가옥으로 큰구들의 경우 큰구들, 전면의 낭간, 좌측의 굴목을 통합하여 실의 면적을 확대시켰고 큰구들 배면의 고평은 방으로 개수하였다.

표 59 조인학가옥의 변용 사례 [혼합형]

구분	도면	사진
변용 전		
변용 후		

우측의 정지는 입식으로 변용시키는 과정에서 전면과 배면으로 구분하여 전면에는 방을 만들고, 배면에 입식부엌을 설치하였으며 부엌의 배면에 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고팡을 증축하여 평면의 형태를 ㄱ자형으로 변용하였다.

공간구성요소의 통합, 확장, 분할 등의 변용현상은 단위공간의 변용뿐만 아니라 평면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공간구성요소의 변용으로 발생된 평면변용의 유형을 정리하면 내부조정형, 부가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정형 평면의 경우 내부의 벽체를 철거하거나 또는 신설하여 평면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10개의 가옥이 이에 해당된다. 부가형은 기존 평면의 측면이나 배면 등에 실이나 부속공간을 덧붙여 “—”자형 평면이 “ㄱ”자 “ㄴ”자로 변한 것으로 1개가옥에서 나타났다. 혼합형의 경우는 내부조정형과 부가형이 함께 나타난 평면변형 유형이며 가장 많은 11개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변용현상이다.

4.6 가옥 배치의 변화

오늘날의 사회는 그 구조가 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편리함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사고를 추구함에 따라 제주도 귀덕마을 가옥들의 주생활도 하나의 단위 건축물로 집중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개인방의 확보, 침실의 분리현상도 도드라졌다.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 기존의 가사노동공간이 적극적으로 개조·확장되었고 가사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엌은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핵가족화 되면서 주부를 위한 공간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여성이 가사일 전반에 참여함에 따라 가사노동의 편리를 위하여 가전제품의 사용빈도가 커졌으며 부엌의 설비시설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가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들은 거주자의 고령화와 자녀의 도시 이동 등 생애주기가 변함에 따라 이용의 빈도가 감소하면서 공간의 구조가 축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료 및 기술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변용현상은 주생활의 요구에 의해 확장되거나 증축된 가옥들에는 보통 시멘트블록이 사용되었다. 안거리와 밖거리에서의 변용양상은 기존의 목조에 정면, 측면 그리고 배면으로의 소극적인 확장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부속채들은 골조가 없이 블록벽을 쌓아 지붕을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시멘트 블록조의 축조가 쉽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공사기간의 장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손쉬운 조적조식의 건축행위는 다양한 배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4.6.1 가옥의 배치형태

제주도 귀덕마을 조사대상 가옥의 배치 좌향³³⁾은 주로 동향, 남동향, 북동향, 서향의 순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내륙지방의 전통가옥에서 남쪽 중심으로 안채의 향을 설정하여 일조조건을 이용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 27곳의 가옥 중 25곳이 동쪽을 중심으로 동향이 9곳, 남동향이 9곳, 북동향이 7곳으로 집중되어 있다.

33) 가옥 전체의 좌향(座向)은 주생활공간인 안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조사대상 가옥들 중 많은 수가 해안 쪽에 위치해 있어 바다를 향해 좌향을 선정한 것과 북향 등 특이한 좌향을 택한 가옥들은 입지적 조건에 있어 북쪽이 물과 농토가 있고 뒤쪽은 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입지에 따라 좌향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0 안거리의 배치 향

구분	남향	남서향	서향	북서향	북향	북동향	동향	남동향
배치가옥			남무형 홍해생			좌태은 고원항 이치진 고경오 이태순 이순여 홍성춘	고원선 남인화 김이진 이성진 김중화1 김중화2 김갑생 이두옥 조형표	강성선 고영식 홍계숙 고영민 조철웅 김재진 강우진 조인학 송여량
가옥수	0	0	2	0	0	7	9	9
비율(%)			8			26	33	33

가옥의 배치 또한 대지의 안에 위치한 안거리를 중심으로 밖거리와 기타 부속채가 대지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근거리로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각 가옥의 실측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가옥의 배치형태는 앞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부속채들이 이루는 형상에 따라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ㄷ자형, ㄱ자형, 부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一자형이 1가옥, 二자형 9가옥, ㄷ자형, ㄷ자형이 각각 6가옥과 7가옥,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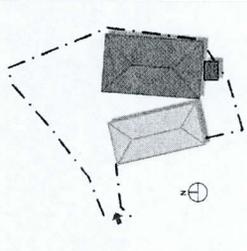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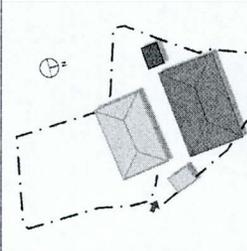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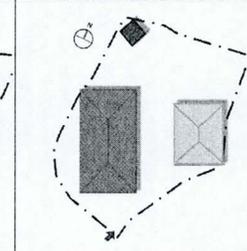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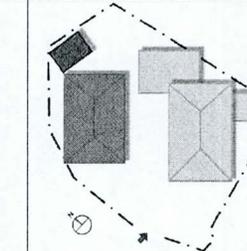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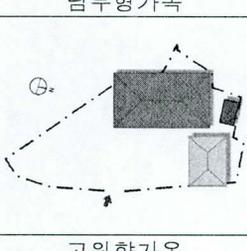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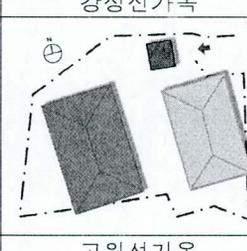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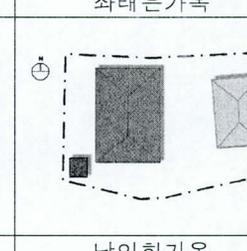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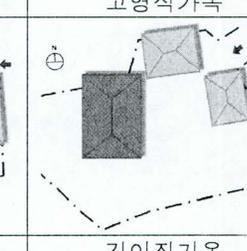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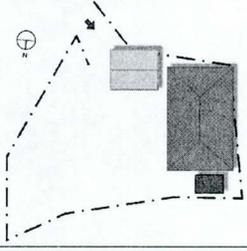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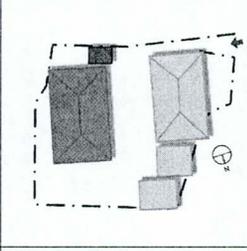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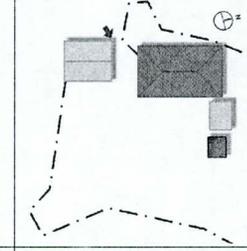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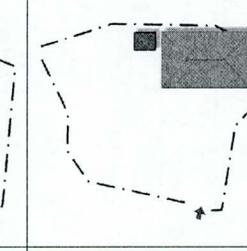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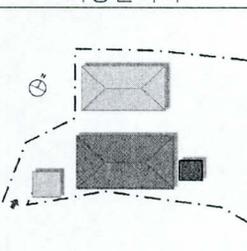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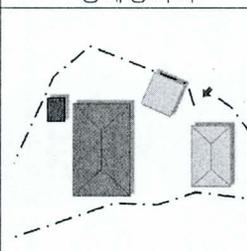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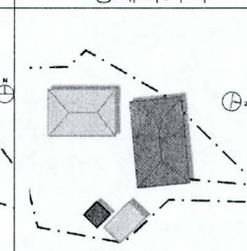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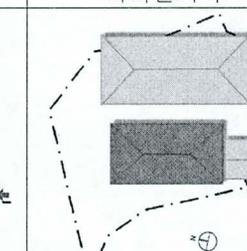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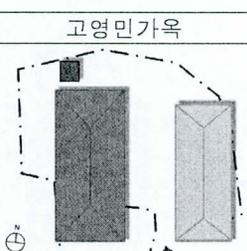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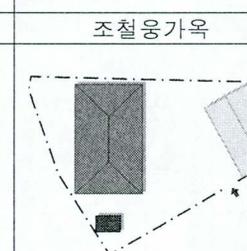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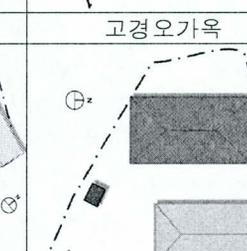
표 61 배치형태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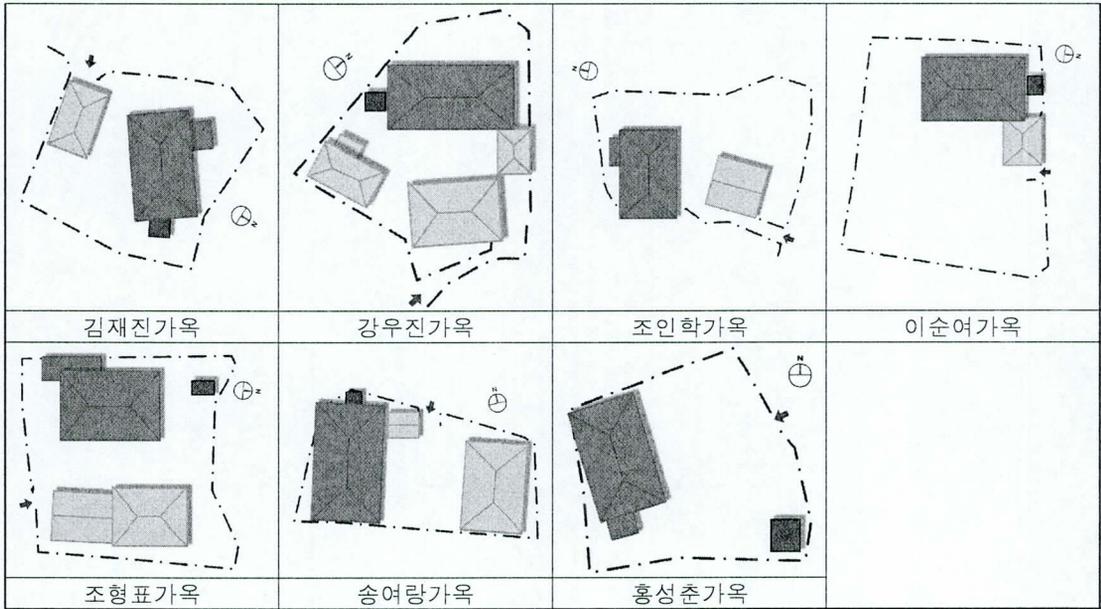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ㄷ자형	ㄱ자형	자유형
배치형태						
가옥수	1	9	6	6	0	5
비율(%)	4	33	22	22		19

형 4가옥 순으로 나타나 一자형과 ㄱ자형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고른 배치 유형이다.

안거리에서 대문, 밖거리를 포함한 부속채의 위치는 대문의 경우 주로 5~10m 사이에

표 62 각 가옥의 배치형태

			
남무형가옥	강성선가옥	좌태은가옥	고영식가옥
			
고원향가옥	고원선가옥	남인화가옥	김이진가옥
			
이성진가옥	홍해생가옥	홍계숙가옥	이치진가옥
			
고영민가옥	김중화1가옥	조철웅가옥	고경오가옥
			
김중화2가옥	김갑생가옥	이태순가옥	이두옥가옥



위치하고 그 방향은 주로 남동과 남서로서 정면진입 보다는 좌측과 우측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속채도 대문과 동일하게 5~10m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방향은 남동에서 남서 사이에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문에서 안채로의 진입은 직선진입이 대부분이고 이중 안채의 남동에서 진입하는 가옥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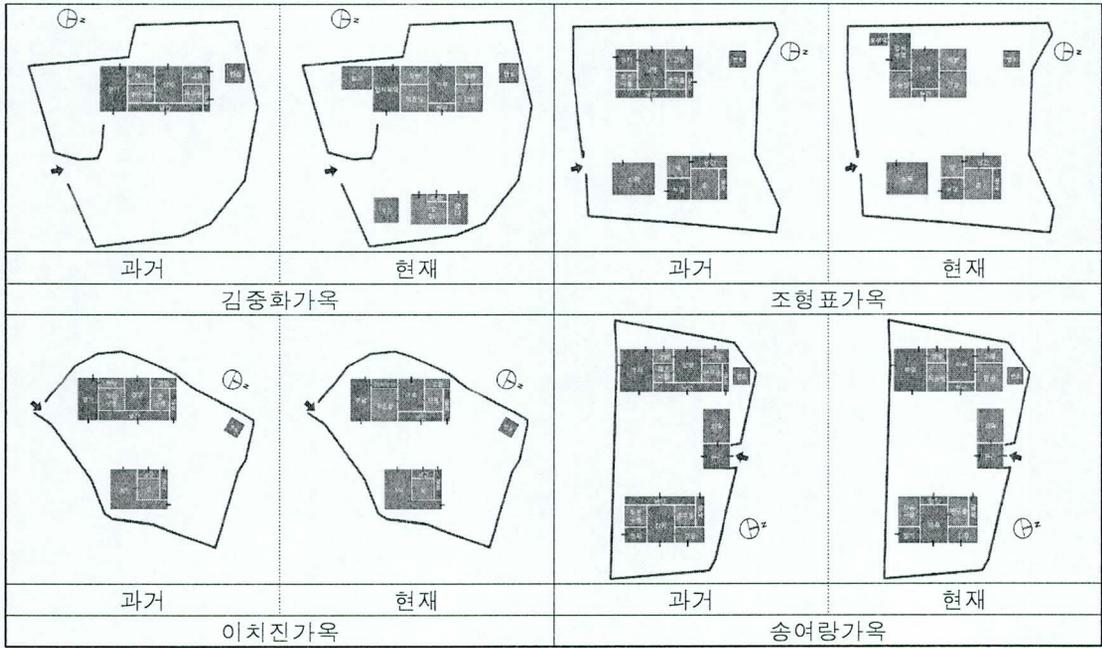
4.6.2 배치형태의 변화

지금까지 서술한 가옥의 배치는 과거와는 상이한 현재의 배치 형태로서 1900년대 초반에 건축된 27곳의 가옥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생활 및 가족구성원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증축, 개축, 신축, 철거 등의 다양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신축 당시 각 가옥의 배치형태는 현장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하여 각 건물의 평면구성요소까지 추정하여 표시하였다.

배치형태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가족구성원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주생활공간의 소요면적 변화, 거주자의 경제력, 대지의 형상, 기존 안거리의 규모 각 가옥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치형태 변화의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다섯 종류로 축약된다. 첫째, 기존의

표 63 가옥 배치의 원형추정과 배치 형태의 변화 사례

과거	현재	과거	현재
홍성춘가옥		고영식가옥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김이진가옥		홍계숙가옥	
과거	현재	과거	현재
홍계숙가옥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성진가옥		김재진가옥	



안거리 외에 새로운 부속채가 추가되는 경우. 둘째, 밖거리를 포함한 기존의 부속채가 철거되는 경우. 셋째, 부속채의 신설이 없이 안거리의 규모를 확장하여 평면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넷째, 기존 부속채를 철거한 후 새로운 평면형태의 부속채를 신축하는 경우. 다섯째, 안거리와 밖거리, 쇠막, 헛간 등 부속채의 배치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안거리를 기준으로 한 부속채의 증축위치를 살펴보면 전체 부속채 신설의 91%인 20

표 64 배치형태의 변화 유형

유형	특징
1 부속채의 추가	기존의 안거리 외에 새로운 부속채가 추가된 경우
2 부속채의 철거	밖거리를 포함한 기존의 부속채가 철거된 경우
3 안채의 규모확장	부속채의 신설이 없이 안거리의 규모를 확장하여 평면형태가 변화한 경우
4 부속채의 철거후 신축	기존 부속채를 철거한 후 새로운 평면형태의 부속채를 신축한 경우
5 기존형태유지	안거리와 밖거리, 쇠막, 헛간 등의 부속채의 배치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

건의 건축행위가 안거리의 전방에서 행해진데 비하여 측면과 배면의 합은 2건에 지나지 않는다. 마당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부속채를 신설한 경우는 전체 22건의 68%인 15건이

표 65 가옥배치의 변화 유형

과거	⇒	현재	가옥수	대상가옥	특징		
 <p>—자형</p>	⇒	 <p>—자형</p>	3	남무형가옥 남인화가옥 김중화가옥	- (남무형가옥) 안거리의 맞은편에 창고를 신축하여 수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남인화가옥) 안거리의 맞은편에 밖거리를 신축하여 방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p>—자형</p>	⇒	 <p>ㄷ자형</p>	2	고영식가옥 홍성춘가옥	- (고영식가옥) 안거리의 맞은편에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주생활공간(안거리의 역할)으로 사용하고 있음. 새로운 주생활공간의 신축으로 기존의 안거리에서는 변용이 일어나지 않음		
 <p>—자형</p>	⇒	 <p>ㄷ자형</p>	1	홍계숙가옥	- 기존의 밖거리 2채를 철거하고 변소를 창고로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화장실을 신설함		
 <p>—자형</p>	⇒	 <p>ㄷ자형</p>	2	김이진가옥 이태순가옥	- (김이진가옥) 안거리의 맞은편에 헛간이 있는 ㄷ자형 배치구조에서 가옥의 출입구쪽에 방을 신설하였음 - (이태순가옥) 안거리부역의 앞에 물부역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p>—자형</p>	⇒	 <p>자유형</p>	3	고경오가옥 김재진가옥 강우진가옥	- (고경오가옥) 안거리의 옆에 욕실이 신설 - (김재진가옥) 안거리의 서쪽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생활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안거리의 평면은 변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 안거리의 정면에 방과 창고를 신설		
 <p>자유형</p>	⇒	 <p>ㄷ자형</p>	1	조철웅가옥	- 안거리, 밖거리, 쇠막으로 구성된 배치형식에서 쇠막이 철거되어 현재에 이룸		
배치형태의 변화가 없음 안거리 및 밖거리의 평면요소 변용			15	강성선가옥 좌태은가옥 고원향가옥 고원선가옥	홍해생가옥 이치진가옥 고영민가옥 김중화가옥	이두옥가옥 조인가옥 이순여가옥 조형표가옥	이성진가옥 김갑생가옥 송여랑가옥

다. 빈도가 높은 안거리의 맞은편과 좌우측은 생활공간 및 수장공간의 확장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빈도수 7에 해당하는 마당의 우측과 맞은편은 각각 생활공간과 수장공간의 신설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안거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는 보조 생활공간을

가옥의 출입구 근처인 안거리의 건너편에는 수장공간을 신설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옥 전체의 면적과 비교하여 마당의 넓이는 제주도 외 지역의 가옥마당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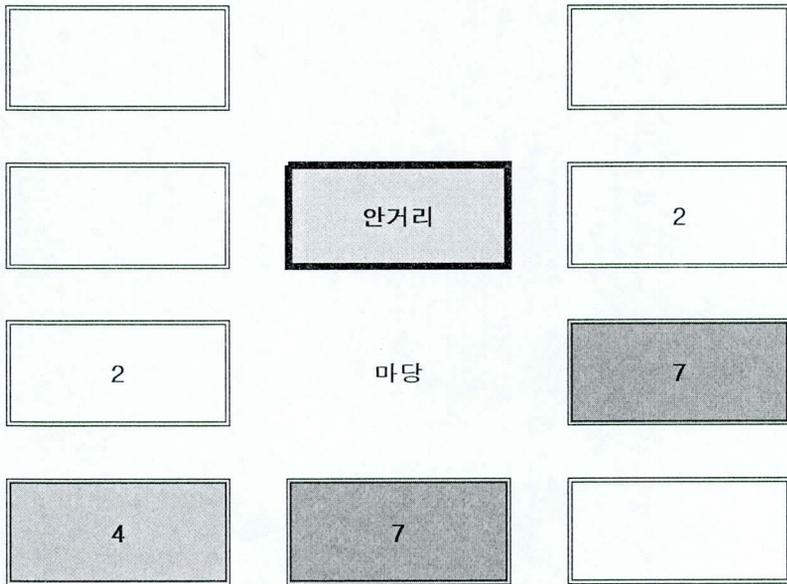


그림 56 안거리를 중심으로 본 부속채의 증축위치
(숫자 : 해당 위치의 빈도, 중복 표기함)

다 상대면적과 개방감이 덜하지만 마당을 비우고 증축한 것은 이곳의 마당도 가옥 내의 중요한 작업장, 건조장, 만남의 장 등의 완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가옥의 배치형태 변화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속채추가형

부속채추가형은 안거리 확장 및 부가 등의 행위가 없는 가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표 68 조사대상 가옥 안거리의 칸 수

규모	3칸	4칸
가옥의 수	12	15
비율(%)	44%	56%

들 가옥의 안거리는 3칸의 규모로 조사대상 귀덕마을의 27곳 가옥의 안거리는 4칸형이 더 많음을 감안하였을 때 평면의 협소함과 목재의 단면이 작은 목조 초가의 증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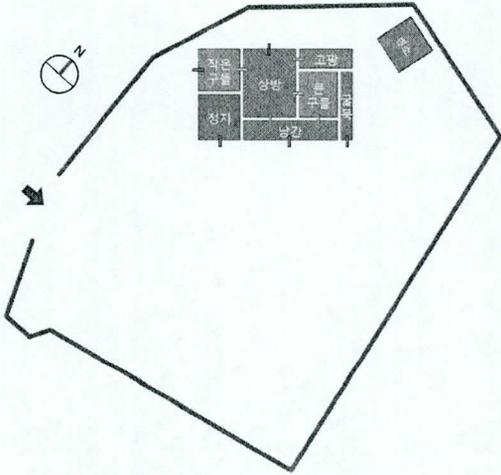


그림 57 부속채 추가형(최초) [고영식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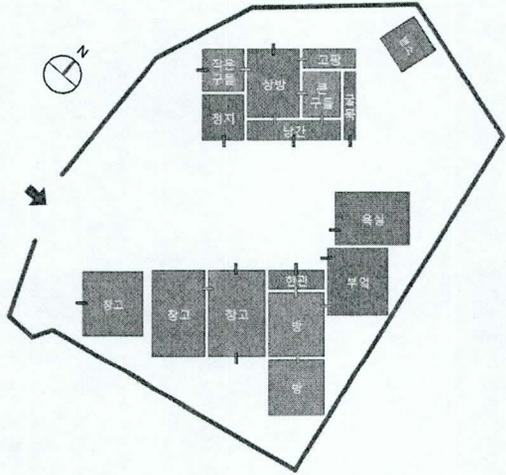


그림 58 부속채 추가형(2008년) [고영식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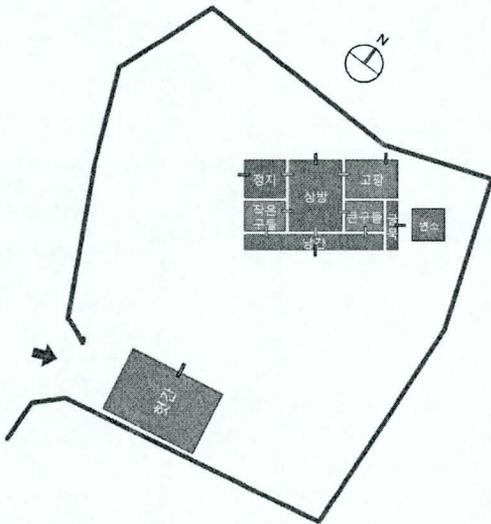


그림 59 부속채 추가형(최초) [김재진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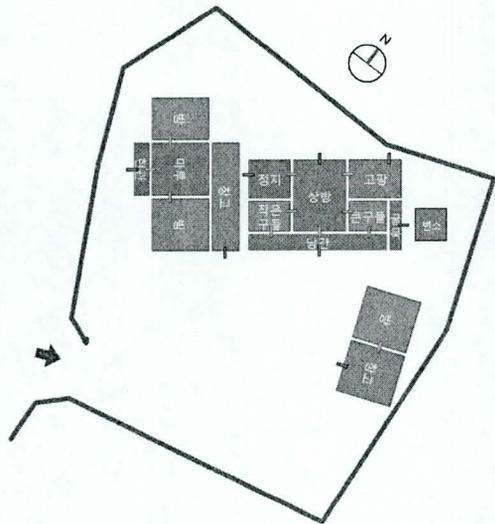


그림 60 부속채 추가형(2008년) [김재진가옥]

에 한계가 있는 안거리의 확장보다는 손쉬운 재료에 의한 대지 내 부속채의 신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영식가옥과 김재진가옥 안거리의 최초 평면형태는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³⁴⁾이었다. 이러한 평면의 형태의 대부분은 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개수가 이루어졌으나 근대화 시기에 건축되어 주생활을 수용하는 부속채로 인해 현재까지 변용이 일어나지 않고

34) 임성추, 성음민속마을의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35~42

있는 사례이다. 단, 대지 내에 건축된 부속채는 기타 배치 유형에서 나타나는 부속채에 비하여 그 규모가 월등히 크다.

나. 부속채철거형

부속채철거형은 생애주기적 변화에 따라 가옥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었던 시기가 지남에 따라 방치된 부속채들이 자연스레 멸실되었거나 철거된 경우이다. 방의 사용빈도가 낮아질 경우 수장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가 거주자가 고령화되어 경제 활동범위가 축소되면 수장공간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멸실될 가능성이 높다.

홍계숙가옥은 부속채철거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초 건축 당시에는 안거리와 밖거리 2채의 평면형태가 유사하여 각각의 채가 살림이 가능한 구조로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의 핵가족화, 이농현상 등의 이유로 안거리 중심의 주생활이 빈번해지고 그에 따라 안거리의 평면형태 변화도 찾아지게 되었던 경우이다. 부속채인 밖거리 2채는 멸실되었고 안거리의 평면형태는 마루와 입식부엌 중심의 공간구조로 재편되었다.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안거리의 굴뚝은 방으로 병합되었고 대지 북쪽의 창고는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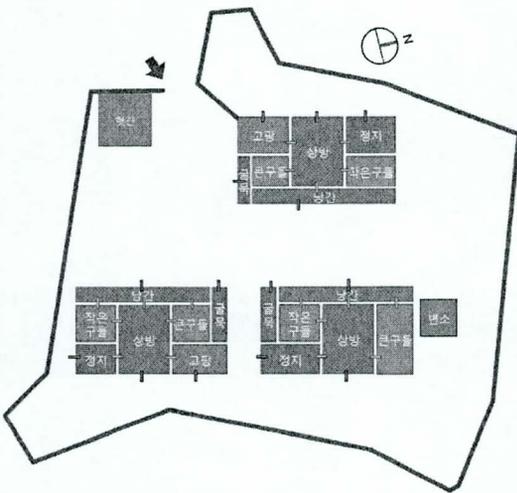


그림 61 부속채 철거형(최초) [홍계숙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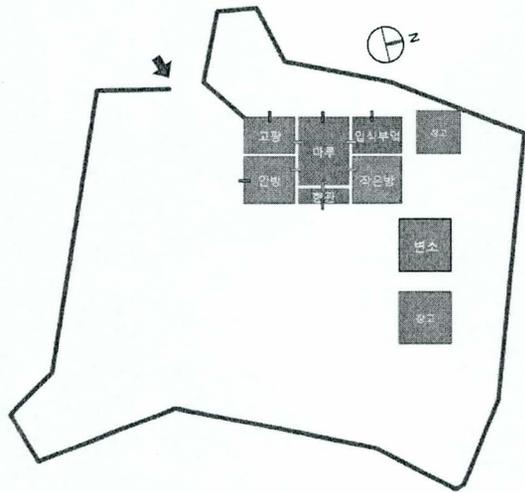


그림 62 부속채 철거형(2008년) [홍계숙가옥]

다. 안채규모확장형

안채규모확장형은 대지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좁아 새로운 부속채의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생활이 현대화됨에 따라 기존의 협소한 정지를 넓혀 입식부엌으로 확장 개조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김갑생가옥 안거리의 정지, 낭간일부, 작은구들, 뒷방을 개조하여 보일러실, 입식부엌, 물부엌, 작은방으로 확대 개조한 경우이다. 조형표가옥도 부엌을 배면으로 확장하고 남쪽으로 물부엌을 부가하여 안거리 형태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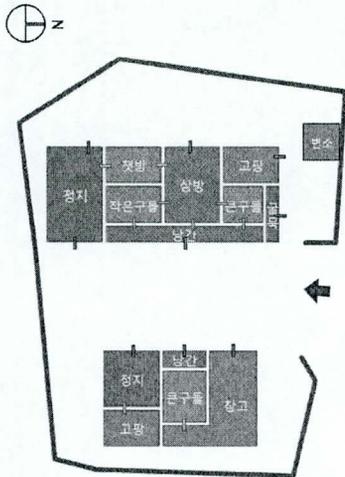


그림 63 안채규모확장형(최초)
김갑생가옥



그림 64 안채규모확장형(2008년)
김갑생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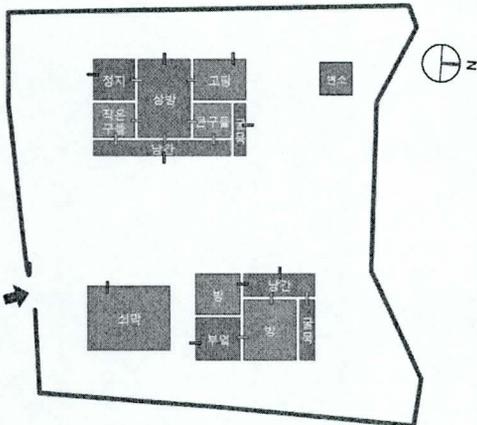


그림 65 안채규모확장형(최초)
[조형표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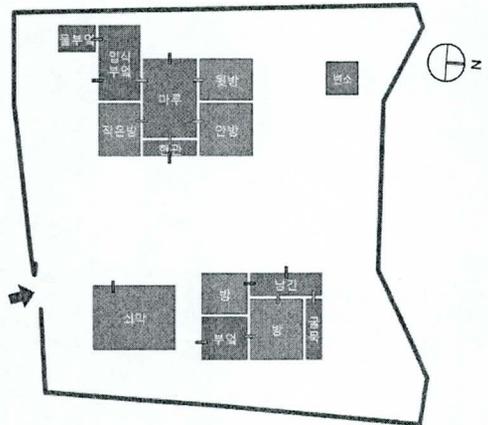


그림 66 안채규모확장형(2008년)
[조형표가옥]

라. 부속채철거후신축형

부속채철거후신축형은 안채의 주변에 있던 부속채를 철거한 후 같은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규모의 차이가 생겨나도록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성진가옥에서는 헛간과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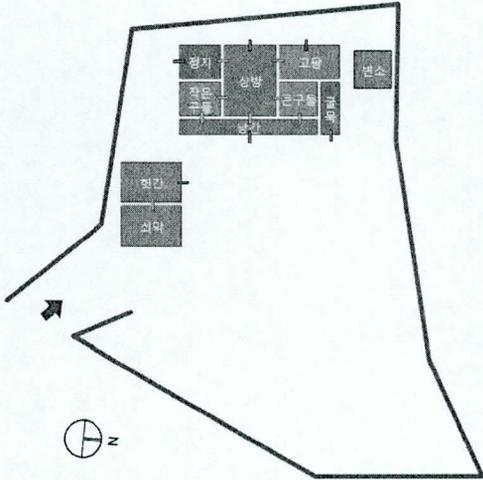


그림 69 부속채철거후신축형(최초)
[이성진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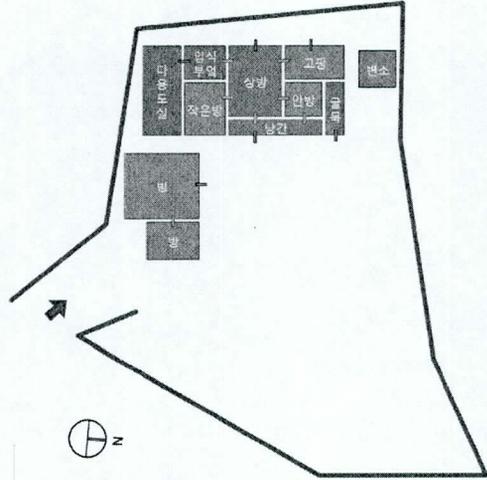


그림 70 부속채철거후신축형(2008년)
[이성진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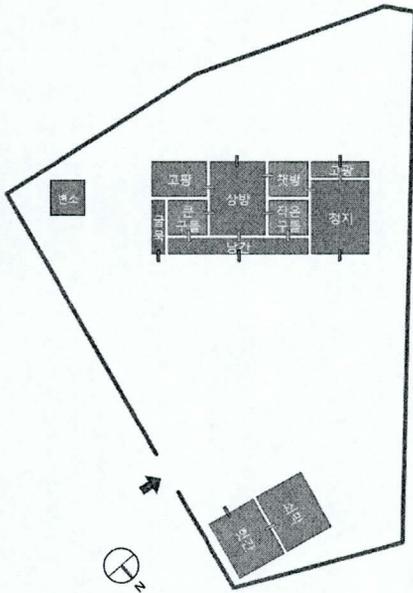


그림 67 부속채철거후신축형(최초)
[이태순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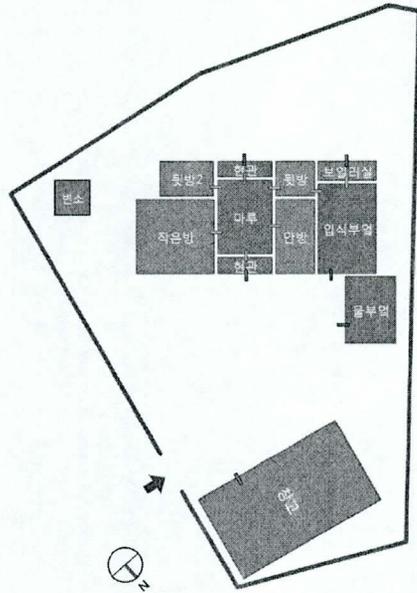


그림 68 부속채철거후신축형(2008년)
[이태순가옥]

막이던 부속채를 해체한 후 방 2칸을 신설하였다. 이태순가옥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안거리의 정면과 측면을 처마끝선까지 증축하였고 부엌 쪽에 물부엌을 내달았으며 가옥의 출입구 근처에 있는 쇠막을 철거하고 창고를 신축하였다.

마. 기존형태유지형

전체 가옥의 56%인 15곳의 가옥에서 나타나는 기본형태유지형은 안거리와 밖거리·부속채의 배치형태가 신축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되지 않은 유형이나 가옥을 구성하는 단위 채의 내부는 변용되는 경우이다.

강성선가옥의 안거리는 공간의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굴목, 고팡, 낭간 등의 제주도 전통의 공간요소가 없어지고 대신 기존의 방을 키우거나 새로운 방이 신설되었다. 상방 자리에 설치된 마루는 현대 주택의 거실 역할을 하는 공간요소로 좌우의 각 방으로 통한다.

밖거리의 기본적인 평면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나 내부의 각 실들은 성격이 바뀌어 현재 창고로 이용된다. 과거 2세대가 거주하여 밖거리도 주생활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수요가 없어서 각종 물건과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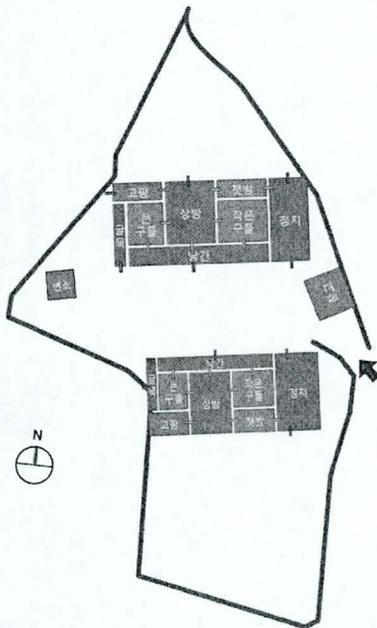


그림 71 기존형태유지형(최초)
[강성선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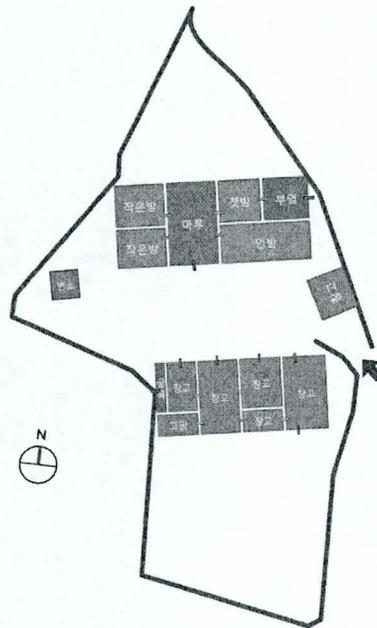


그림 72 기존형태유지형(2008년)
[강성선가옥]

4.7 안거리 공간구조의 변화

주생활공간인 안거리의 공간구성요소들은 확장, 용도변경, 재분할, 부가 등의 건축행위를 거치면서 가옥배치의 변화 및 평면형태의 변용과 함께 공간의 구조 또한 과거와 상이하게 변화되었다. 각 가옥별로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면도상에서의 평면형태와 동선을 기준으로 신축 당시와 현재의 안거리 공간의 상호 열개를 다이어그램으로 도시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조사대상 27곳의 가옥별로 과거의 평면과 현재의 평면에 대하여 각각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상호 대조하여 기존 평면의 공간구조 유형과 변용된 평면의 공간구조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징과 변화양상을 기술하였다.

4.7.1 공간구조의 특징

신축당시 안거리의 공간구조³⁵⁾는 앞서 작성한 평면도를 통하여 7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크기는 3칸형과 4칸형으로 구분되고 3칸형은 『상방중심3칸형』, 『낭간중심3칸형』으로, 4칸형은 『고팡내부출입4칸형』, 『고팡외부출입4칸형』, 『정지분할4칸형』, 『2칸정지4칸형』, 『정배면낭간4칸형』으로 재분류된다.

가. 3칸형

『상방중심3칸형』과 『낭간중심3칸형』은 가운데 칸에 상방이 위치하고 양 옆으로 큰 구들과 고팡, 정지와 작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상방중심3칸형』의 경우 큰구들, 상방, 작은구들의 정면에는 낭간이 있으나 내부로의 연결은 상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낭간중심3칸형』은 대청역할의 상방 뿐만 아니라 낭간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3칸형의 가옥들은 간혹 정지와 작은구들의 위치가 상호 바뀌기도 하는데 정지가 정면에 위치할 경우 정지 앞의 낭간은 생략된다. 상방에서는 대부분의 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어 4칸형의 챗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행위의 장소가 『상방중심3칸형』과 『낭간중심3칸형』에서는 상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5) 안거리의 공간구조는 김홍식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75 신축 당시 안거리의 공간구조

	유형	대상가옥	수	공간구조	평면구조
3칸형	상방중심 3칸형 (작은구들3칸형)	송계숙가옥 이치진가옥 고원선가옥	3		
	남간중심 3칸형 (작은구들3칸형)	김재진가옥 김이진가옥 남민화가옥 홍성춘가옥 김중호가옥 조형표가옥 이순여가옥 이성진가옥	8		
4칸형	고광내부출입 4칸형	고원항가옥 좌태은가옥 송여량가옥 남무형가옥 강우진가옥 조인화가옥 강성선가옥 고영식가옥	8		
	고광외부출입 4칸형	이두옥가옥 김중화가옥 김갑생가옥 고경오가옥	4		
	정지분할 4칸형	이태순가옥 홍해생가옥	2		
	2칸정지 4칸형	고영민가옥	1		
	정배면남간 4칸형	조철웅가옥	1		

범례 : ■ 일상거처공간 ■ 가사노동공간 ■ 접객및단란공간 ■ 수장공간 | 공간요소간 연결 | 공간요소와 외부의 연결

보통 큰구들은 정지와 거리가 멀어 별도의 난방시설인 굴목이 설치되어 함실아궁이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비와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상 굴목도 돌담으로 구획된 내부공간요소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4칸형

『고팡내부출입4칸형』, 『고팡외부출입4칸형』은 제주도 민가를 대표하는 4칸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16곳의 4칸형 가옥 중 12곳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큰구들과 작은구들은 상방을 중심으로 양 옆에 위치하고 작은구들의 옆으로 다시 정지가 위치하는 공간구조이다. 이들의 평면형태는 동일하지만 고팡의 출입위치에 의해 공간구조 상에서는 분류가 가능하다. 내부로 통하는 고팡은 주로 곡식을 저장하였고 외부에서 통하는 고팡은 농기구를 비롯한 각종 생산도구의 보관 장소로 생각할 수 있다. 4칸형의 다른 특징으로 정지와 상방을 연결하는 챗방이 놓였다는 점이다. 정지와 챗방 사이에는 벽과 문이 없이 트인 공간으로 3칸형의 정지나 상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행위가 이곳 챗방에서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분할4칸형』은 혼합형 평면구조로 『고팡내부출입4칸형』, 『고팡외부출입4칸형』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킨다. 기존의 『고팡내부출입4칸형』에 정지의 배면 일부를 할애하여 고팡을 두고 외부와 정지의 양쪽에서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조이다. 정지의 배면에 고팡이 있으므로 정지로부터 챗방을 거쳐 상방으로 통하는 곳에서는 『고팡내부출입4칸형』 외의 유형들보다 챗방의 폭이 더 넓어야 정지와 챗방이 이어지는 동선의 확보가 가능하다.

『2칸정지4칸형』은 다른 유례가 없는 특수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통 한 칸에 정지가 놓이거나 정지와 작은구들 등이 배치되어 공간이 구성되는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고영민가옥에서는 정지와 상방 사이에 또 다른 정지가 확인된다. 안거리의 전체 면적에 대한 정지의 면적비가 상당히 높다. 정지와 정지는 벽체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구부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는 점으로 미루어 다른 4칸형에 존재하는 챗방의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상방부분도 일반적인 4칸형과는 달리 배면에 바깥으로부터

통할 수 있는 고팡이 존재하여 큰구들 배면의 곡식 저장 고팡과의 연결이 다소 불편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배면낭간4칸형』은 안거리 정면의 낭간과 배면의 낭간이 규모가 비슷하여 평면상으로 정배면의 구분이 모호한 공간구조를 지닌다. 정면의 낭간에서는 큰구들로 배면의 낭간에서는 작은구들로의 동선이 원활하다. 뒷마당이 존재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구조로 한 건축물에서 여러 행위를 수용하기에 적당한 구조이다. 조철용가옥의 배치를 살펴보면 배면에 독립된 마당공간이 있어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배면의 퇴에 낭간을 두고 작은구들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났으로써 작은구들의 생활영역을 따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7.2 공간구조의 변화

주공간 구성요소의 확장, 용도변경, 재분할, 부가 등의 변용은 평면형태의 변용뿐만 아니라 공간구조도 변화시켰다. 공간구조 변화의 파악은 평면 형태를 다이어그램으로 도시하여 변용 전과 변용 후를 비교하였다.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은 공간구조의 『축약형』, 『방치형』, 『증가형』으로 분류하였다.

가. 축약형

공간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특징인 축약형은 기존의 실들이 통합되어 안거리의 전체 평면구성요소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강성선가옥을 예로 들면 낭간을 상방과 통합하여 마루로 변경함에 따라 낭간과 상방 중심의 공간구조패턴에서 기존에 상방이었던 현재의 마루 중심의 공간구조로 변경되었다. 동선체계가 단순해져 현대 주택의 거실처럼 마루의 비중이 커졌다. 흥해생가옥은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팡과 굴목을 방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상방이었던 마루가 가옥의 중심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기존의 큰구들은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조로 바뀌었다.

공간구조의 감소형은 기존 공간구성요소의 사용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멸된 경우가 아니고 제주민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구들의 협소함 때문에 일상거처공간인 방들의 확장을 위하여 실의 통합과정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6 안거리의 공간구조 변화 양상

유형	특징	공간구조	
		초기	2008년
축단형	강성선가옥 -남간을 상방과 통합하여 마루로 변경 -남간과 상방중심의 공간구조패턴에서 마루(기존의 상방)중심의 공간구조로 변모		
	홍해생가옥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팡과 굴목을 방으로 통합하여 마루(기존의 상방)중심의 공간구조로 변모 -안방(기존의 큰구들)은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조로 변모		
방치형	송어랑가옥 -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 -챗방은 사용하지 않고 식사행위는 마루(기존의 상방)에서 이루어짐 -챗방은 단지 통로의 기능 -가옥의 한쪽만을 사용하여 난방비절약		
	홍성춘가옥 -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 -가옥의 한쪽만을 사용하여 난방비절약 -부엌 옆에 물부엌을 증축하여 물 사용의 편의 도모		
증가형	이성진가옥 -남간을 줄이고 작은구들을 정면으로 확장함으로써 남간으로부터의 동선차단 -배면에 위치한 부엌의 옆에 다용도실을 증축하여 가사노동의 편의도모 -큰구들은 확장하지 않음. 난방도 하지 않고 여름에만 사용함		
	김중화가옥 -상방에서 통할 수 있는 고팡을 개조하여 뒷방으로 변경 -정면에 위치한 큰구들은 사용하지 않음 -부엌의 옆에 물부엌을 증축 -작은구들을 확장하면서 남간을 없애고 외부와의 연결도 차단하면서 동선체계는 마루(기존의 상방)중심으로 개편		
	강우진가옥 -부엌의 배면에 창고를 증축하여 공간요소가 증가 -작은구들을 확장하면서 남간을 없애고 외부와의 연결도 차단하면서 마루중심의 동선체계로 개편 -기존의 뒷방 옆에 보일러창고 증축		

범례 : ● 일상거처공간 ● 가사노동공간 ● 접객단리공간 ● 수장공간 ※진한테두리의 공간요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음

나. 방치형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가 변하고 거주자의 경제력이 축소됨에 따라 실의 사용에 여분이 생겨 방치해 두는 경우이다. 송여량가옥은 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부엌과 마루를 연결하는 책방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통로의 기능만 하고 있다. 마루(상방)을 기준으로 한쪽만 사용하므로 난방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홍성춘가옥은 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안방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이다. 기존의 정지는 입식부엌으로 변화되었고 그 옆에 물부엌을 증축하여 공간활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공간구조의 변화는 거주자의 감소에 의해 방치된 실의 증가와 부엌의 측면 또는 배면에 신설된 각종 편의시설에 의해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변화는 평면의 변용유형과 상관성을 갖고 있다.

다. 증가형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증가형은 주로 일상 거처공간과 가사노동공간에서 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성진가옥의 경우 안거리 정면의 낭간을 줄이고 작은구들을 정면방향으로 확장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차단되었다. 이 가옥 역시 낭간과 상방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마루(상방) 중심의 공간구조로 변모하였다. 배면에 위치한 부엌의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증축되어 가사노동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난방방식 및 면적의 변화가 없는 큰구들은 난방을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사용한다고 한다. 김종화가옥은 상방에서 통하는 고팡이 개조되어 뒷방으로 변경되었다. 정면에 위치한 큰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부엌의 옆에 증축된 물부엌은 부엌과 연결된다. 작은구들을 확장하면서 낭간을 없애고 외부와의 연결도 차단되면서 동선체계는 마루(상방)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강우진가옥은 부엌의 배면에 창고가 증축되어 공간요소가 증가되었다. 이 역시 작은구들이 확장되면서 낭간이 없어지고 외부와의 연결동선이 생략되어 마루를 중심으로 동선구조가 바뀌었다. 기존의 뒷방 옆에는 보일러창고가 증축되어 바깥을 통하여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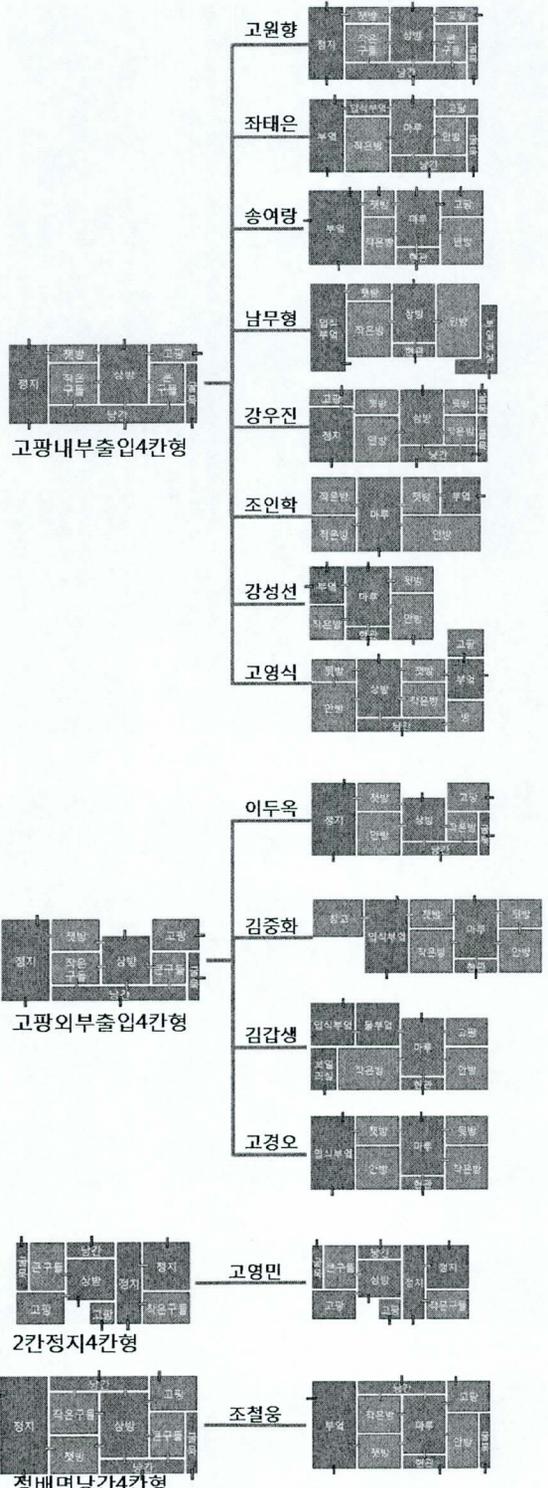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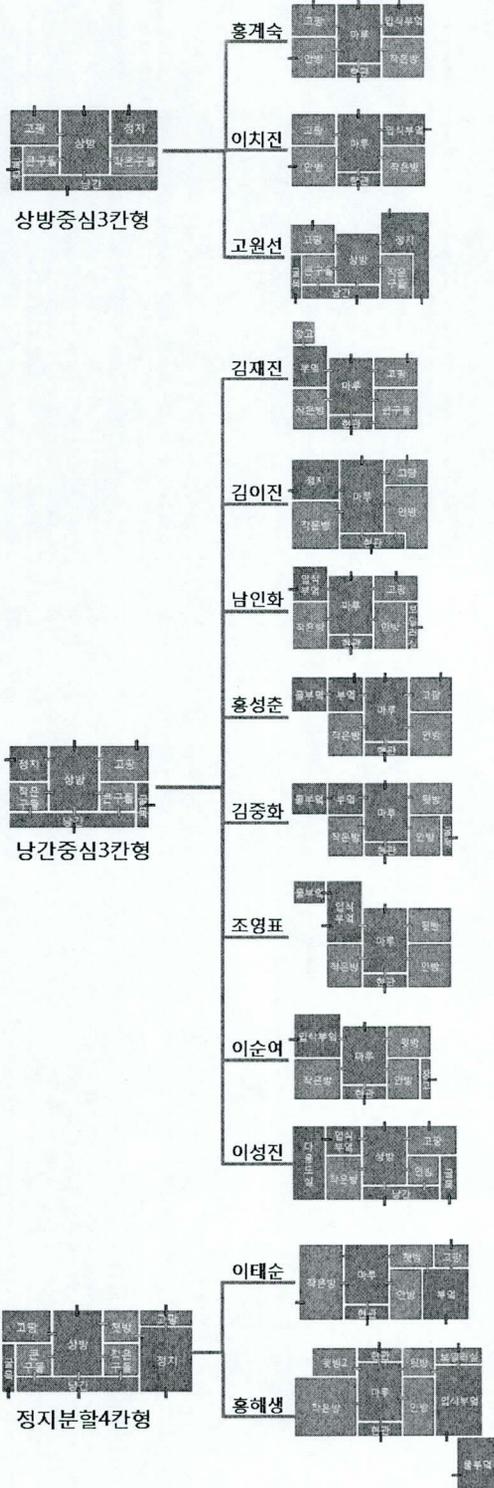


그림 77 안거리의 공간구조유형별 변용 추이

5. 결론

본 연구는 제주 한림읍 귀덕마을에 위치하는 전통민가를 대상으로 가옥 구성요소의 이용실태 및 변용, 평면의 변용, 배치의 변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현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힌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민가의 각 실별 이용실태는 작은구들의 경우 안주인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식사와 손님접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옥이 가장 주된 공간요소이고, 큰구들의 경우 바깥주인의 거처로 제사를 모시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녀의 거처나 손님의 침실로 이용되고 있어 가정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상방의 경우 가사일과 단란공간, 손님접대가 주된 용도이고, 찻방과 고팡은 원래의 기능인 식사와 수장 외에 방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둘째, 취침행위는 작은구들(작은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정지(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여름은 마루 겨울은 작은구들(작은방)에서 식사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를 맞이할 때는 작은구들(작은방)에서 맞이하고 어려운 손님과 중요한 손님은 큰구들이나 상방에서 맞이한다. 개인휴식은 주로 작은구들에서 자녀의 공부는 큰구들에서 이루어졌으며 수납은 고팡과 물팡 그리고 정지에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간요소별 변용은 정지의 경우 재래식을 입식으로 바꾸어 변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와 더불어 배면을 분할하여 고팡을 들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작은구들의 경우는 인접한 다른 공간을 통합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변용이 주로 발생하였고 특히 전면의 낭간을 통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큰구들 또한 인접한 요소인 낭간과 굴목을 통합하여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팡과 찻방의 경우 다른 공간에 통합되거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이나 부엌 등으로 용도가 바뀌는 변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공간 요소는 다양한 변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별 변용빈도는 작은구들, 큰구들(22)>정지, 낭간(21)>고팡(11)>찻방(6)>상방(4)순으로 작

은구들, 큰구들 그리고 부엌을 중심으로 변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용의 주된 내용은 실의 통합과 확장 그리고 용도가 변경을 통한 실의 개수와 면적을 확보하였고, 설비기술의 도입으로 난방방식과 입식부엌으로 개수가 진행되어 공간활용의 기능성과 생활 편의성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변용이 진행되었다.

넷째, 공간구성요소의 통합, 확장, 분할 등의 변용현상은 단위공간의 변용뿐만 아니라 평면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공간구성요소의 변용으로 발생한 평면변용의 유형을 정리하면 내부조정형, 부가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정형 평면의 경우 내부의 벽체를 철거하거나 또는 신설하여 평면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10개의 가옥이 이에 해당된다. 부가형은 기존 평면의 측면이나 배면 등에 실이나 부속공간을 덧붙여 “一”자형 평면이 “ㄱ”자 “ㄴ”자로 변한 것으로 1개가옥에서 나타났다. 혼합형의 경우는 내부조정형과 부가형이 함께 나타난 평면변형 유형이며 가장 많은 11개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변용현상이다.

다섯째, 가옥의 배치는 二자(9), ㄷ자(6), ㄷ자형(6)이 고르게 나타났고 주 진입은 안거리의 좌우측에서 이루어진다. 배치형태의 변용은 기존 배치에 부속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부속채추가, 부속채철거, 안채의 규모확장, 부속채의 철거후 신축, 기존형태 유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형태의 유형 중 부속채가 증가하는 위치는 안채를 기준으로 정면(7)과 좌측전면(7) 그리고 좌측면(2)과 우측전면(2)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간구성요소의 변용은 평면의 형태 뿐만 아니라 공간의 구조도 변화시켰다.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은 특정요소로 동선이 축양되는 축약형, 증가된 공간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치형, 편의 공간의 증가로 다양한 동선을 갖게 되는 증가형으로 변용되었다.

參 考 文 獻

■ 단행본

- 김광언, 풍수지리- 빛깔있는 책들 140편, 서울:대원사, 1994.
- 김광언, 『주생활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 김봉렬, 전통마을의 가치와 보존방향, 꾸밈, 1990.
- 김선범, 도시공간론,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6.
- 김영돈,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89.
- 김왕직, 민속마을의 건축사적 가치와 보전의 문제, 플러스 110호, 1996.
-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 낙안읍성, 낙안읍성민속마을, 2000.
- 도서출판 꾸밈, 특집-전통민속마을의 보존과 이용, 제83호, 1995.
- 류재춘, 近世 韓日城廓의 比較研究, 國學資料院, 1999.
-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서울:형설출판사, 1997.
- 박명덕, 보존이란 문제를 통해 본 민속마을의 상황들, 플러스 110호, 1996.
- 박홍규,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 반영환, 한국의 성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서정석, 유적과 보존, 서경, 2002.
-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 손영식, 한국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 1987.
-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오택섭, 사회과학데이터분석법, 나남출판, 1998.
- 운양민속박물관, 圖說 한국의 민속, 계몽사, 1980.
- 이광규,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③ 한국인의 집 이야기, 기린원, 1991.
- 이왕기, 전통마을의 현재적 의미, 꾸밈, 1990.

- 이왕기, 전통문화의 보고, 민속마을의 보전, 플러스 110호, 1996.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7.
- 장명수, 城郭發達과 都市計劃研究, 學研文化社, 1994.
- 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제, 1974.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주남철, 한국의 주택건축, 일지사, 1980.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1997.
- 최경숙, 보전한옥의 개수방향, 플러스 51호, 1991.
- 최재석, 제주도의 가족조직, 일지사, 1979.
-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관광지리(교재), 2000.
- 한국관광공사, 전통민속마을 관광상품화 방안, 1998.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⑩, 『한려수도와 제주도』, 도서출판 돌베개, 1998.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중세편, 풀빛, 1995.
- 한국전통건축 제1권 관아건축, 대한건축사협회, 1992.
- 허경진, 한국의 읍성, 대원사, 2001.

■ 학회논문

- 강동진, 한국 전통마을 보존방법론에 관한 연구 -현행 보존과정의 특성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3-3, 1994.
- 공청회 발표논문집, 문화재청, 2003.
- 김성균, 전통적 마을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환경현장 연구방법적 접근, 국토도시계획학회지 27-2, 1992.
- 김성우, 건축 문화재 복원의 동향과 방향, 건축역사학회지, 9-1, 2000.
- 김용환 외,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12집, 1995.
- 박경립, 민속마을 원형보존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발전, 민속마을 보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공청회 발표논문집, 문화재청, 2003.

- 박익수, 건축문화재의 보존방향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논문집, 1997.
- 박현장, 안동문화권의 마을공간구성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
- 신석하, 제주도의 덜 알려진 건축, 대한건축학회, 건축, 1998.
- 신석하, 제주도 초가의 비례구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988.
- 양택훈, 濟州道民家の 住生活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 이건영, 전통마을의 배치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 이상선 외, 낙안읍성 민가의 주공간 변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
- 이왕기, 민속마을내 전통민가 거주환경 개선방안, 민속마을 보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공청회 발표논문집, 문화재청, 2003.
- 이왕기, 역사적 문화환경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련법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4, 1997.
- 임만택 외, 낙안읍성 민가와 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발표논문집, 12-2, 1992.
- 임창복, 유럽의 도시주거지 가구와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 조성기, 한국 중부지방 민가의 평4량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 조중근, 한국중가 건축공간의 연속성 및 위계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9, 1994.
- 주남철, 객사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6.
- 천득염 외, 전남지방 민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 1986.
- 최선주, 우리나라 역사지구 보존의 과제, 도시문제 31권, 1996.
- 탁수성 외, 文化財指定傳統家屋의 住居空間 利用行態및 變容實態調査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
- 한삼건, 안양읍성 체성(體城)의 단면 형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4, 2002.

■ 학위논문

-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1.
- 강장호,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석론, 1999.

- 고태주, 낙안읍성의 민가와 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연구, 조선대석론, 1992.
- 권오문,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론, 1987.
- 김근호, 한국전통마을의 취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론, 1987.
- 김동식, 近代建築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관한 研究, 청주대박론, 2001.
- 김영식,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론, 1996.
- 김윤정, 해미읍성 문화재 설계, 서울대석론, 1994.
- 김향집, 전통마을의 형성요인과 그 패턴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론, 1989.
- 나종현, 해방이전에 지어진 경기도 지역의 농촌주거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석론, 2000.
- 나한범, 전통마을의 장소성과 그 공간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론, 1987.
- 모장진, 문화재를 고려한 도시문화재주변지역 도시설계연구, 한양대석론, 2000.
- 민경수, 강원도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연구, 강원대석론, 1996.
-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과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론, 1991.
-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론, 1999.
-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론, 1987.
-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박론, 1990.
- 신세광, 화성의 역사성보존과 주변지역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론, 1999.
- 신유승,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방안 연구, 서울대석론, 2002.
- 양택훈, 『濟州道住居建築의 變遷過程에 關한 調查研究』, 한양대석론, 1988.
- 윤홍택, 한국주거 건축공간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론, 1970.
- 이기환, 도시문화재로서의 종로 파마길 보존방향 연구, 한양대석론, 2000.
- 이동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박론, 2006.
- 이승중, 20세기 초중반 경기도 죽산지역에 나타난 민가의 변천연구, 명지대석론, 2000.
- 이인섭, 외암리 마을 상류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산업대석론, 1993.
- 이정근, 한국자연부락의 공간구조, 서울대 석론, 1972.
-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론,

1991.

조성기,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박론, 1985.

최상식, 일제시대 홍주읍성의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석론, 2001.

최재권,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박론,
2002

한충한, 낙안읍성민속마을의 주공간 변용과 보존에 관한 연구, 조선대박론, 2007.

홍창식, 전통민속마을의 문화관광상품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석론, 1995.

■ 조사보고서

금정기, 김홍식 외, 성읍민속촌보존 및 육성기본계획, 제주도, 1980.

김태조, 심대섭, 유승완, 양동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보고서, 경주시, 2002.

김홍식, 민속촌지정보존대상지역조사보고서, 제주도, 1978.

남제주군, 成邑民俗마을 綜合整備計劃, 1994.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1994.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2002.

문화재관리국, 安東河回마을 保存管理方案調查研究報告書, 1989.

민경민, 신승균, 안동하회마을 종합정비계획조사보고서, 안동시, 2001.

박경립 외, 고성 왕곡마을 보존 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 강원도 고성군, 2001.

복원·정비학술조사보고서-언양읍성,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2003.

승주군, 마을 세부현황종합조사보고서, 승주군, 1985.

아산군, 아산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1990.

아산군, 외암리민속마을(도록), 1983.

안동시, 하회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조사보고서, 1995.

언양읍성 종합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울산광역시, 2003.

이형재,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2002.

장순용, 이왕기 외, “아산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아산시, 2002.

전라남도 승주군, 樂安邑城民俗마을 細部現況綜合調查報告書, 1985.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세부현황 종합조사 보고서』, 1985.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1995.
제주도,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제주도, 제주의 민속 IV 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도, 1997.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제주도문화광보담당관실편,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1987.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건축공학과 교수님을 비롯하여 연구실의 사람들, 대학원 원우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박강철지도 교수님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찬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인교수님, 임만택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로 용기를 주신 양영성교수님, 이청웅교수님, 김정섭교수님, 김의식교수님, 조용준교수님, 장동국교수님, 김인호교수님, 최재혁교수님, 염대봉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준비하는데, 자료조사 및 정리 과정에서 정성껏 도와준 연구실의 선후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수집과 현장조사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신석하교수님과 임성추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랑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고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가족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하며, 항상 저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 12. 23

김 창 우